

2015년도 제19차 정기(제20차) 총회

2015년도
제19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20차 총회)

일 시 : 2015년 1월 29일(목) 19:00~21: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5년도 제19차 정기(제20차) 총회

2015년도
제19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 20차 총회)

일 시 : 2015년 1월 29일(목) 19:00~21: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2
■ 제18차 정기(제19차)총회 회의록	3
■ 2014년 감사 보고	9
■ 2014년 사업보고 및 평가	15
I. 사업 총평	17
II. 사업보고 및 평가	20
[1] 조직 사업	20
[2] 평화-통일 사업	34
[3] 정보-홍보 사업	48
[4] 회원 사업	53
[5] 재정 사업	54
[6] 연대 및 협력사업	57
[7] 무실 갈등해결센터	75
[8] 무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18
■ 임원 인선안	127
■ 2015년 사업계획안	131
I. 2015년 사업기준 및 방향(안)	133
II. 2015년 사업계획(안)	135
[1] 조직 사업	135
[2] 평화-통일 사업	137
[3] 정보-홍보 사업	138
[4] 회원 사업	138
[5] 재정 사업	138
[6] 연대 및 협력사업	138
[7] 무실 갈등해결센터	139
[8] 무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41
■ 부록	143
평화여성회 정관	145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154
2014년 성명서 목록	155
2014년 발간자료 목록	224
회원가입서	225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7:00)

II부 본 회의 (오후 7:00 ~ 오후 9:00)

1. 개회선언
2. 서기일명
3. 성수보고
4. 회순대역
5. 전차회의록 낭독
6. 2014년 감사보고
7. 2014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14년 결산보고와 승인
9. 임원 선출
10. 구·신 임원 인사
11. 2015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2. 2015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3. 기타 로의
14. 모범 회원상 수여
15. 회의록 발음
16. 폐회

전 회의록 낭독

제18차 정기(제19차)총회 회의록

□ 서기: 김영진, 김정아

1. 일시: 2014년 1월 23일(목) 19:00 - 21:20

2.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3. 주요내용

- 1) 개회선언 : 이해숙 의장이 오후 7시 개회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 2) 이사장 개회인사 : 김성은 이사장이 개회인사를 하다.
- 3) 격려 인사 : 박차옥경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격려 인사를 하다.
- 4) 서기 임명 : 김영진, 김정아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 5) 성수보고 : 김지호 총무가 재직회원 51명 중 참석 21명, 위임 17명, 총 3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이해숙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 6) 회순제택 : 이해숙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고, 김선혜 회원 동의, 김성은 이사장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 7) 전차회의록 낭독 : 김영진 회원이 요지를 낭독하다. 조보성 회원이 회순에 따라 총회록 순서가 명기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이를 받아 이번 회차부터 적용하기로 하다.
- 8) 감사보고 : 안수경 감사가 대표보고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다.
- 9) 2013년 사업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 총회 자료집 17쪽에서 133쪽을 토대로 최단정, 명희 회원이 영상으로 요약보고하다. 안수경 회원 동의, 유은주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 10) 2013년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 별도 자료를 토대로 김지호 총무가 결산보고하다. 안수경 회원이 전년이월금을 예산에 포함해야함을 지적하고, 김지호 총무가 표기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수정하기로 하다. 표기 수정한 내용을 받기로 최안전경 회원 동의, 김진희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 11) 임원 선출안

: 임시의장으로 조영희 회원이 김선혜 회원을 추천하여 유은주 회원 동의, 최지영 회원 재청으로 선출하다.

김선혜 임시의장의 주재로 회의진행하다. 조영희 인선위원회 위원장이 인선위원회의 활동과 총회 자료집 137쪽과 같이 임원 인선안을 보고하다. 박수선 회원이 정관에 대표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질문했고, 안수경 회원이 비상상황인 점을 언급하고 안경애 회원이 정관의 임원에 대한 별도 규정에 대한 의견, 이경순 회원이 적법절차확인요청, 조영희 인선위원장의 통상적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다. 김선혜 임시의장이 잠시 정회를 선포하여 인선위원회가 논의를 하다. 속개 후, 김선혜 임시의장이 논의 내용을 발표하다. 공동대표가 모두 선출되지 못하였으므로 2015년 총회에서 공동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것을 인선안 뒤에 부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박수선 회원 동의, 이경순 회원 재청하고, 모두 동의하다. 김선혜 임시의장이 이사와 공동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해 개별처리와 일괄처리에 대해 의견을 묻고, 조영희 인선위원장이 이사와 공동대표를 개별처리하는 안을 제안하여 안경애 회원 동의, 유은주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수정된 임원 인선안을 박수로 통과하다. 김정수, 정경란 전 대표의 소감을 듣고 신임대표로 선출된 여혜숙 대표의 다짐을 듣다.

12) 2014년 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건

: 이혜숙 대표가 총회 자료집 141쪽부터 146쪽을 토대로 2014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김선혜 갈등해결센터소장이 총회 자료집 146쪽부터 148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이 총회 자료집 148쪽부터 149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여혜숙 대표가 총회 참석 회원들의 사업 및 활동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안대로 받기를 박수선 회원 동의, 이은영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3) 2014년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김지호 총무가 별도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다. 김은희 회원이 자료 제공비와 참가비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제안하고, 박수선 회원이 자료제공비 등을 적절한 단어로 변경할 것을 본회 1차 운영위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하다. 항목의 명칭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을 김정수 회원 동의, 채지영 회원 재청하고, 모두가 동의하여 승인하다.

11) 각종 회원상 : 안경애 회원(윈더우먼상), 조영주 회원(함께해서힘난다상)에게 회원상을 수여하다.

12) 회의록 받음 : 어례숙 대표가 회의록을 본회 1차 운영위에 검토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제안하여 최민경 회원 동의, 김진희 회원 재청하고, 모두가하여 동의하다.

13) 폐회 : 어례숙 의장이 오후 9시 20분 폐회를 선언하다.

2014년 감사보고

2014년 평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평화여성회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이하 '1325호') 이행을 위해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활동하면서 한국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제시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여성단체의 입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구성되지 못했던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1325네트워크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GPPAC 국제사무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GPPAC 올란바토르 회의에 참가하여 동북아지역 민간차원에서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북한이 참가하는 동북아지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및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 그리고 평화여성회는 여권한 인적, 물적 지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식지 올리브의 발간과 온라인 소식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사업과 회원 사업을 지속하였고, 작년에 이어 계속한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을 위한 토대조정교육과 훈련, 지역사회 평화커뮤니티 운동, 학교폭력 해결 절차에서 회복적 접근 방안을 위한 교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 회복적 접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러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3. 갈등해결센터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특히 안산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모임을 진행하고 '안산 열린도론'에 진행자와 참여자로 참여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을 넘어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영향 받고 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활동으로 평가되며, 한국여성 평화연구원이 상반기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여성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역시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레이징+20주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사업” 중 여성안보와 평화 부분을 검토하여 향후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전망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도 좋은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4. 2014년 평화여성회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사업기조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자체평가에서 지적한 아쉬운 점과 향후 과제를 해결할 사업과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조직역량에 맞게 적절한 선택과 집중으로 더욱 알찬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감사 배 상 회
감사 윤 수 정



(인)
[Handwritten signature]

2014년 평화여성회 회계감사 보고

감사 보고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중

2014년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 회, 부산 관동해결센터, 부산 한국여성평화 연구원- 회계감사를 한 결과 금전출납부(역행문서), 목별원장, 수입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잘 구비되어 있고, 통장과도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1. 2014년도 평화여성의 결산액

구분	총 수입	총 지출	차년이월	비고
본 회	75,578,486	75,476,422	102,064	
부산 갈등해결센터	66,365,001	68,569,427	188,773	
부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887,812	1,350,400	537,412	
합 계	146,224,498	145,396,249	828,249	

*사무실 관리비는 본 회에서 지출

2. 본 회의 경우 총액대비 지출비율이 사업비21.4%, 운영비 67.7%로서 사업비가 운영비 1/3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출액의 대부분이 최소한의 고정지출비(업무추진비, 인건비, 사무행정비)를 충당하는 데에 쓰인 것으로 물 때 부득이한 현실입니다.

3.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 1) 사업영역을 다문화, 현실화, 구체화로 회원증가와 후원금을 늘리는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 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서 거대담론보다 생활에서 드러나는 주제로 접근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 2) 회원, 이사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밀착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및 권유가 필요합니다.
- 3) 삶의 전 영역에서 급증하는 폭력(언어폭력, 미디어폭력 등) 의 문제를 드러내고 인식시키는 운동을 관련단체와 연대 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규모가 작은 현시점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회계장부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감사 윤 수 경



감사 배 삼 희



2014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4년 사업 총평

II. 2014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14년 사업 총평

2014년은 2월, 송과 세 모녀의 자살로 인해 사회복지 확장과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이슈화되고, 4-16 세월호 참사로 한국사회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열망이 높았던 한 해였다. 길관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진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2년에 환수하기로 한 전시각전통제권의 무기한 연기를 미국에 요청하였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 하고 있다.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각서를 체결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의 긴장은 높아지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과 국가 공권력의 대신 개입 의혹과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논란 등의 사건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된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 한 해였다.

평화여성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평화운동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 조직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기로 한 활동 기조에 맞춰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했다. 2014년 총회에서 세웠던 사업기조의 네 가지 방향을 토대로 평가해 보려고 한다.

1) 여성들의 평화 형성 역량을 강화 한다.

남북관계가 대립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중국심양에서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평화여성회는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단체로서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였다. 이는 2010년 5-24조치 이후 최초의 민간사회문화교류 행사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행사여서 그 의미가 깊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여성평화역량이 커 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었다. 군사비감축운동이나 평화운동은 연대활동으로 참여하였는데, 여성평화운동과제를 모색하고 연결하는 것은 미흡하였다. 또한 평화여성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인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한국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수렴하

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인 '1325호 민간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최종안에 여성시민단체의 입장을 일정부분 포함하는데 기여하였고, 국제사회에 한국여성시민단체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평가를 알렸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서는 '1325호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과 기존에 여성에 대한 성별평등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인권침해 방지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사항이 다수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한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걸어 온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에서는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의 평가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 변화와 정부정책과 여성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여성운동의 미래진장 만들기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여성평화운동을 살펴봄에 접점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강조하는 시점에 한반도 상황에 맞춰 여성들의 시각으로 통일대박론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폭력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이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으로 회원원래마당을 개최하였고, 강독모임, 평강공주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지역에서 이루어진 회의진행자 과정, 조정자 과정의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 가정, 지역에서의 평화 형성을 위한 통합적 역할을 강화하고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2) 회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평화여성회는 울리브 소식지 준비위원회, 후원행사 준비위원회 등에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여 본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여성평화수다방'을 진행하여 평화여성회 내에 20대 젊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여성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성·평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회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평화를 연결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갈등해결센터는 '강독모임', '평강공주모임', '교재개발모임', 송년회 등을 회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3) 여성의 일상의 삶과 연결된 평화 의제를 발굴해 나간다.

갈등해결센터는 4·16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을 넘어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영향 받고 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모임'을 두 차례 개최하였고, '안산 열린대론'에 진행자와 참여자로 참여하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을 모색하였다. 또한 안산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모임을 2회 진행하였고, 이 활동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여성회는 지난 7월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안보교육이 계기가 되어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통일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폭력적인 안보교육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평화여성회 내부의 역량이 미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4) 2014년은 평화여성회가 창립된 지 18년이 되는 해이다. 본회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본회의 여성평화운동을 정리하며 평화여성회 비전을 세워나가는 논의의 기반을 형성한다.

20주년을 준비하는 논의의 물음 단들지는 못했지만 평화여성회가 그동안 쌓아온 자료문서, 파일, 사진 등을 정리하여 목록화해 나가는 것을 시작하였다. 2015년에 이를 토대로 어떻게 20주년을 정리할 것인지 논의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2015년은 한반도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본단으로 인해 영향 받은 한반도 여성들이 삶을 돌아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실제적인 남북한 여성의 통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면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는 회원 확대 방안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여성회는 2014년만큼이나 2015년도 물적, 인적 토대가 부족한 상태이다.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본회의 현실적 운동 역량 사이에서 잘 조정하고 협력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II. 2014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 의

1-1. 총회

-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2014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2014년 1월 23일(목) 18: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2013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및 상임대표 선출, 회원상 수여 등
- 가. 서기 임명: 김영진, 김정아 회원이 공동 서기로 임명됨.
- 나. 감사보고: 윤수경 감사가 대표 보고함.
- 다. 2013년 사업보고와 승인: 최민정, 명희 회원이 요약 보고함.
- 라. 2013년 결산보고 및 승인: 전년이월금을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함.
- 마. 임원 선출: 김정수, 여혜숙, 정현백, 조영희 이사는 이사 연임, 신임이사로 이은선, 박현선 이사가 선출됨. 상임대표로 여혜숙대표가 선출되었고,

공동대표가 모두 선출되지 못하였으므로 2015년 총회에서 공동대표를 다시 선출하기로 함.

- 바. 2014년 사업계획 및 승인: 여혜숙 대표가 2014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김선훈 갈등해결센터소장이 갈등해결센터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원장이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 사. 2014년 예산안 승인: 김지호 총무가 예산안을 보고함. 김은희 회원이 자료제공비와 참가비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제안하고, 박수선 회원이 자료제공비 등을 적절한 단어로 변경할 것을 본회 1차 운영위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함. 항목의 명칭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을 받기로 함.
- 아. 각종 회원상: 안정애 회원(‘원더우먼’상), 조영주 회원(‘함께해서 힘난다’상)에게 회원상을 수여함.

- 성원보고: 재적회원 51명 중 참석 24명, 위임 17명, 총 41명

- 평가

인사와 덕담 나누기 시간으로 회원 상호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총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2014년 평화여성회 활동으로 기대하는 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회원들이 평화여성회 활동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좋았다는 평가와 진고 목적에 맞게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활동가들이 평화여성회의 사업보고를 발표한 것은 활동가들에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활동가들의 성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총회 장소로 사용한 소통방이 협소하여 다른 장소를 탐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2) 2015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 역할: 정기총회 준비, 설치·운영 기간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행
- 구성: 여혜숙(상임대표), 안정애(정책위원회 위원), 조영희(이사), 김지호(총무국장), 최민정(사업부장), 김경란(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정애(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선훈(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이덕경(부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명희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장)

- 내용:

- 가. 1차: 11/4(화) 18:30. 운영위원 위임안건(11월, 12월 사업계획 점검 등), 준비위원회 서기와 운영규칙 정하기, 준비위원회 회차별 의제확인, 인선위원회 구성 건 등
- 나. 2차: 12/12(금) 17:00. 12월 사업계획 점검, 2014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15년 조직구성 논의, 추경예산(안) 검토, 제 규정 점검 건 등
- 다. 3차: 2015년 1/2(금) 16:00. 2014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14년 사업 총괄 평가, 2014년 결산(안) 검토, 제 규정 점검 건, 총회 정회원 명단 검토 등
- 라. 4차: 2015년 1/7(수) 16:00. 1.2월 사업계획 검토, 2014년 사업 총괄 평가(안) 검토, 2015년 사업계획(안) 검토, 2015년 예산(안) 검토, 이사회 안건 검토, 총회 관련 사안 점검 등

1-2. 이사회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김정은

- 이사: 권정욱,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여혜숙, 이나영, 이은선, 정현택, 조영희, 한정숙(존칭생략, 가나다순)

3) 사업내용

(1) 1차 이사회

- 일시: 2014년 1월 15일(수) 12:00 - 2:00

- 장소: 신촌 동강참치

- 내용: 2013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 예산정점, 총회순서 등

- 참석: 김정은(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여혜숙, 정현택, 조영희, 한정숙, 정경란 (총8인)

(2) 이사 & 사무국 활동가 상견례

- 일시: 2014년 3월 8일(토) 12:00-13:00
- 장소: 청계광장 옆 호아반
- 내용: 기존 이사, 신임이사, 사무국 첫 인사
- 참석: 김성은, 이은선, 조영희, 박유희, 김선훈, 이나영, 윤경민, 김정수, 여혜숙, 김지호, 명희, 이주원, 최민정

(3) 이사진담회

- 일시: 2014년 5월 22일(화) 17:00-18:30
- 장소: 시청역 근처 식당
- 참석: 김성은, 김정수, 여혜숙, 박유희, 한정숙, 김지호(배석), 최민정(배석)
- 내용: 사업보고 및 재정현황 공유 등

(4) 2차 이사회

-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20:00-21:00
- 장소: 카톨릭청년회관 1층 카페
- 내용: 추경예산안 승인, 인선위원회 구성건, 꽃김판매 공지, 정기총회 일정 공지 등

1-3. 운영위원회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여혜숙(상임대표)
- 위원: 김선훈(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지호(총무국장), 조영희(이사), 정경민(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3) 사업내용

- (1) 제1차: 2/5(수), 1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4년 운영위원회 구성건, 총회 위임사안, 총회회의록 검토, 수입항목 계정과목 논의, 정기총회 평가, 2-3월 사업계획 검토

- (2) 제2차: 3/5(목), 2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3-4월 사업계획 검토, 3.8 여성대회 참가, 후원의 밤 관련 논의
- (3) 제3차: 4/2(수), 3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4-5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의 밤, post-2015 관련 논의
- (4) 제4차: 5/8(목), 4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5-6월 사업계획 검토, 활동가 & 회원교육 제안 논의, 후원의 밤 관련 논의
- (5) 제5차: 6/18(수), 5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6-7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의 밤, 평화여성회 인권교육,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 후 평화여성회 대응 방안 관련 논의
- (6) 제6차: 8/29(금), 6-8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9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의 밤, 여성평화아카이브 관련 논의, 재정현황 보고 및 방안마련 논의
- (7) 제7차: 9/29(월), 9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10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의 밤 연극, 총회준비위원회의 관련 논의
- (8) 11월, 12월은 총회준비위원회와 함께 진행

4) 평가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 구성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여혜숙(상임대표), 김지호(총무국장), 최민정(사업부장)
- 3) 내용: 매주 1회 오전 혹은 오후, 1/2, 1/6, 1/13, 1/20, 2/4, 2/11, 2/24, 3/3, 3/11, 3/17, 3/24, 3/31, 4/7, 4/14, 4/21, 4/25, 5/12, 5/19, 5/26, 6/2, 6/9, 6/15, 6/23, 7/4, 7/14, 7/21, 7/28, 8/5, 8/18, 8/25, 9/1, 9/11, 9/29, 10/7, 10/13, 10/20, 10/28, 11/3, 11/10, 11/19, 12/1, 12/9, 12/15, 12/23

4) 평가

- 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여, 일정공유와 진행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조직 내의 진행일정 파악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하였다.

1-5. 기타

1) 평화여성회 전, 현직 대표모임

- 일시: 2014년 10월 29일(수) 13:00~15:3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 참석: 김성은, 이갑현숙, 정현덕, 윤수경, 조영희, 김엘리, 김정수, 여혜숙, 김선혜
- 내용: 평화여성회 대표진 구성에 대한 논의

2) 평화교육연구팀 1차

- 일시: 2014년 8월 27일(수) 16:00~17:00
- 내용: 이 모임에 대한 기대나누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
가. 평화교육의 범주: 조영희, wmp평화교육: 여혜숙, 평화교육전망: 이권영
희 모두: 지금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평화여성회의 평화교육 연관하여 상상하기
- 참석: 여혜숙, 이권영희, 조영희

2. 법인 행정

2-1. 감사

- 1) 역할: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사업감사 (배삼희 변호사), 회계감사 (윤수경 전 공동대표)
- 3) 결과: 감사보고서 참조

2-2. 법인, 행정, 사무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법인 등기

- 2014년 법인 등기이사: 김성운, 여혜숙, 김정수, 강선혜, 박유희 (5인)
- 2014년 2월 14 일원변경 등기 완료
- 법무대행기관: 다름 법무법인

3) 행정 업무

- (1) 중앙 도서관 자료 납본 (발간도서: 1325 연구서)
 - 일시: 2014년 2월 7일(금)
 - 내용: 2013년 11월 1325 연구서 발행시 ISBN번호를 부여받은 도서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납본 등록 함
- (2) 오즈메일리(전체 메일 발송용) 사용료 결제
 - 기간: 2014년 6월 11일(수) ~ 2015년 6월 10일(수)
 - 금액: 158,400원
- (3) 사무실 복합기 임대
 - 일시: 2014년 7월 ~
 - 내용: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복합사용
 - 조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대신, 소모품(토너/드럼)만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함
 - 임대업체: 삼성전자 리예정보기술
- (4) 사무실 인터넷 전화기설치 및 인터넷 광랜 교환
 -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 내용: 인터넷 전화기 8대 설치 및 인터넷 기업망으로 교체
 - 업체: LG U플러스
 - 약정: 3년 (2014년 9월 ~ 2017년 9월)
- (5) 사무국 상근활동가 채용
 -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 대상: 유지연
 - 12월 12일(금) 4대보험 가입 완료

4) 세무업무(반기신고 대상)

- (1) 2013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제출 신청

- 2014년 1월 7일: 기부금자료 내역 제출
- 201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자에게 정 보 제공
- 2014년 8월 27일: 2013년도 기부금발행내역 통보 (영등포세무서)

(2) 각종 세무 신고

- 2013년 7월-12월 원천세 (기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14년 1월 9일
- 2013년 7월-12월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내역 : 2014년 1월 24일
- 2013년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 2014년 3월 10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산재, 고용보험공단)
- 2013년도분 사무국활동가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 : 2014년 2월 27일 (국 세청 홈택스)

(3)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지원 사업건

- 일시: 2014년 10월 30일
- 고용노동부 벤처기업협회를 통하여 청년인턴 알선
- 근무기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 근무자: 유지연
- 내용: 상근활동비의 50%인 55만원을 6개월간 지원 받음

2-3. 프로젝트 행정업무

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청년센터활동가 인턴십 현장활동 사업

- 인턴 현장활동 기간: 2014년 8월 4일(월) ~ 10월 31일(수) 중 최대 35일간

(1) 사전 설명회

- 일시: 2014년 5월 20일(화) 16:00~18: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 내용: 사업 취지 설명 및 일정계획 공유 등
- 참석: 김지호

(2) 현장기관 담당자 간담회

- 일시: 2014년 6월 12일(목) 16:30~18: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5층 컨퍼런스룸
- 내용: 2014년 여성NGO 네트워크 사업 개요 설명, 청년센터활동가 인턴 십 사업 안내, 현장 활동기관의 역할 및 일정 공유 등
- 참석: 최민정

(3) 상호탐색 프로그램

- 일시: 2014년 7월 8일(화) 19:00-21: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5층 세미나실
- 내용: 청년센터활동가와 현장활동기관 매칭 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매칭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탈을 감소 추진하기 위한 미팅
- 참석: 최민정, 명희

(4) 청년센터활동가 활동

가. 본 회 인턴 : 유지연

- 일시: 2014년 8월 6일(수), 8월18일(월)~ 10월31일 (40일간)
- 업무: 여성평화수다방 진행보조, 평화여성회 소개ppt 제작, 온라인소식지 리뷰작성, 사진 스캔

나. 부설 갈등해결센터 : 인턴 1인 배정하였으나, 인턴 대상자가 개인사유로 인턴활동 취소함.

2) 2014년 프로젝트 제출 : 5가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음.

- (1)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평화의 일상을 디자인하라 "365 피스다 이어리"
- (2) 안전행정부: 우리는 역사체험 기획자 "발로 배우는 동서남북 평화통일교실"
- (3) 통일부: 1060 몸과 마음으로 통일 미래를 품다!!
- (4) 49통일평화재단: 도쿄쇼-"여성, 통일대박론을 꼼꼼히 들여다 보다."
- (5) 서울시 인권교육아카데미 II 과정 제안서 (용역사업)

3. 위원회

3-1. 정책위원회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2) 구성

- 위원: 김성은, 김정수, 박현선, 안정여, 여혜숙, 윤경원, 유복남, 조영희, 최민정
- (* 위원장은 교대로 담당하기로 함)

3) 회의

(1) 1차

- 일시: 2014년 1월 14일(화)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내용: 2014년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방향, 방식 등 논의
 - 가. 운영방식: 두 달에 한번 회의 진행(임시회의 별도), 정책위원장을 따로 두지 않고 위원들이 돌아가며 위원장 역할을 담당.
 - 나. 2013년 정책위원회 역할로 적어 놓은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여성평화, 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에서 "여성평화·통일운동"을 "평화·통일운동"으로 수정하기로 함.
 - 다. 운영방향논의: 정책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함. 논의된 이야기는 1. 정체 파악, 정책분석 (대선의제구체화, 지역평화의제 개발 등) 2. 평화통일 관련 사업(남북여성교류 등) 시 여성의 삶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3. 우리의 논리 구조, 논거를 만드는 세미나 개최 (평화, 북한 인권, 다자간안보 등)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함.
- 참석: 김정수, 안정애, 여혜숙, 윤경원, 조영희, 최민정

(2) 2차

- 일시: 2014년 3월 4일(화) 14:00~16: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필리핀 사례를 통한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하 1325호) 평가 등
 - 가. 평화여성회가 1325호를 연구한 시작점에 대해 이야기 함.
 - 나. 필리핀 1325호 수립과정의 경우 여성시민단체가 국가행동계획 작성과 정 준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였으나 현재 여성시민단체가 배제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눔.
 - 다. 앞으로 평화여성회는 1325호를 지역중심의 실생활과 연관된 주제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평화여성회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함.
 - 가) 관련된 영화리스트 만들기
 - 나) 한국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영화보기 모임, 영화상영회
 - 다) 7월 강정평화대행진이나 평화캠프를 할 때 함께 참여하기
 - 라) 분쟁지역 여성의 삶 이야기 듣기, 증언 듣기
 - 매)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분단·통일·여성' 강연과 토크쇼
 - 비) 전쟁, 죽음과 연결해서 평화기행 할 때 비평보기

라. 저변확대와 더불어 제도화(정책)과정의 정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참석: 김성은, 안정애, 여해숙, 윤경원, 조영희, 최민정

(3) 3차

- 일시: 2014년 5월 28일(수) 16:00~18: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여성과 안보, 인권에 관한 발제 후 논의, 연구원과의 공동회의 계획 논의 등

가. 세계화와 여성안보는 안정애 위원이, 인권에 관해서는 윤경원 위원이 발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

나. 군사주의가 우리 내면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토대로 평화여성회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 것인지 의논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 참석: 김성은, 안정애, 여해숙, 윤경원, 조영희, 최민정

(4) 연구원+정책위원회 공동회의(【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2. 회의/세미나 참조)

(5) 2차 연구원+정책위 공동회의(【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4-1. 참조)

(6) 6차

-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18: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2014년 정책위원회 활동 평가

4) 평가

- 정책위원이 보강되면서 폭넓은 의견개진을 통해 관점이 확장되었으며, 위원들이 정책위원장 역할을 고대로 담당하며 역할을 적절히 나눴으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했다. 그리고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베이징+20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사업으로 작성한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보고서에 관한 피드백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을 전망하는데 일조하였다.

내년에 정책위원회는 평화문화정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정책제언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3-2. 국제협력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정경관

2) 활동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2】평화-통일사업의 1-4, 1325호 국가 행동계획 관련 활동 참조)

(2) GPPAC 관련 활동

- * 평화여성회: GPPAC 서울 소속단체
- * GPPAC 동북아 센터 포털포인트: 정경관
-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Northeast Asia)

가. 피터 반 부이즐 GPPAC 국제사무총장 한국 방문 지원

가) GPPAC 서울 소속단체와 내부 회의

- 일시: 2014년 6월 14일 14:00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 참가: 정경관

나) 국제워크숍: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International Workshop: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 일시: 2014년 6월 16일(월) 10:00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1세미나실

- 공동주최: 핵감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PKND) 한국, 무장갈등예방을 위한글로벌파트너십(GPPAC)서울(평화불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마리(ARI), 동북아시아평화구축훈련센터(NARPI), 시민평화포럼(Civil Peace Forum)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대일 발표: 정경관

- 참가: 김지호, 최민정

다)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대회

- 일시: 2014년 6월15일 14:00

- 장소: 서대문 독립공원

- 연대사: 피터 반 부이즐 GPPAC 국제사무총장

- 통역: 정경란

나. GPPAC NEA 국제회의 및 지역운영위원회

- 일시: 2014년 11월 26일 - 28일
- 장소: 몽고 울란바토르
- 참가: 정경란

가) 국제회의

- 일시: 2014년 11월 26일 9:30 - 17:00
- 장소: 몽고 외교경제개발부 회의실
- 주제: "동북아시아 핵지대 건설을 위한 영역틀(Dimensions to create a Nuclear-Weapon Free Northeast Asia)"
- 조직: GPPAC 사무국인 피스보트와 GPPAC 울란바토르 포털포인트인 블루배너(Blue Banner)
- 참석: 울란바토르, 서울, 평양, 동경, 교오도, 광저우, 홍콩,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과 학자, 네덜란드 GPPAC 국제사무국에서 온 대표들을 포함해 60여명 이상.
- 프로그램

(가) 개막식

- (나) 사회: 블루배너의 Governing Council 위원인 전직 대사인 초인 코르 갈부(Choinkhor Jalhuu)
- (다) 개막사: 볼드바타르 몽고 국무장관
- (라) 축사: 오치르바트 몽고 초대 대통령(H.E.Mr. P.Ochirbat) 겸 블루배너 이사회 회장
- (마) 내빈 및 해외 참가자 소개: GPPAC 국제사무국 Peter van Tuiji
- (바) 서선 1. 핵무기논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영역: 2015 NPT검토회의를 위한 준비
- (사) 서선2. 핵무기없는 세계를 촉진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핵지대의 역할 - 발표: 정경란 (Peacebuilding Korea and Nuclear Weapon Free Zone Northeast Asia)
- (아) 서선3. 비전통적인 사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 (자) 최종 결의문 채택

나) 지역회의

- 일시: 2014년 11월 27일 ~ 28일

- 장소: 호텔(27일), 몽고 외교경제개발부 회의실(28일)
- 내용
 - (가) GPPAC 동북아 소속 포컬포인트들의 활동 공유 및 평화여성회 활동 소개.
 - (나) 몽고 정부 당국자로부터 울란바토르동북아안보대화(Ulaanbaatar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에 대한 브리핑 들음.
 - (다) 향후 GPPAC 동북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회의 개최하기 함.
 - (라) 향후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동북아비핵화, 인간안보, 한국전쟁의 종언, 영토분쟁, 일본 평화헌법, 젠더 이슈 등.
- 참가: GPPAC 동북아 지역운영위원회와 국제회의에 울란바토르, 서울, 평양, 동경, 고오도, 광저우, 홍콩,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포컬 포인트들(focal points)과 네덜란드 GPPAC 국제사무국에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

다) 몽고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자문관과 면담

- 일시: 2014년 11월 27일
- 장소: 몽골 정부 청사
- 내용: Lundeg Purevsuren 대통령 정책자문관이 몽고 정부가 추진하는 울란바토르동북아안보대화를 비롯해 몽고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듣고, 향후 GPPAC 동북아와 협력하기로 함.

다. GPPAC 동북아 젠더포컬포인트 활동

- 내용: GPPAC 젠더포컬포인트의 활동을 공유하는 인터넷 회의(Gender Focal Point conference call of the GFP Update)에 참가(2014. 6.23)하고 갈등예방과 관련한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Open Letter to the Friends of 1325: Recommendations on the Zero Draft of the Post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성명서에 연명(2014.6.13)하는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있는 GPPAC 젠더 포컬포인트들과 소통하고 있음.

(3) 통일준비위원회 공감소위-여성분야 전문가 간담회

- 일시: 2014년 10월 23일 07:30 ~10:00

- 장소: 달개비
- 내용: 통일준비위원회의 사회문화분과 산하 공진 :위원회가 주최한 여성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정책 제언
- 참가: 정경란

3) 평가

-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과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1325네트워크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GPPAC 국제사무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GPPAC 을 단발모드 회의에 참가하여 동북아시아 민간차원에서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다. 다른 한편, 동북아 안보 환경 및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1325호와 한반도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2014년 사업계획(안)>

동아시아의 정세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 1)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개발 및 실천
- 2)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정치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 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인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1-1. 평화통일운동 개발 및 실천

1-2. 군사비 감축 활동

1) 세계군축행동의 날

(1) 준비회의(참석: 최민정)

- 2차: 3/6(목) 10:30-12:30. 슬로건, 일정, 방향 논의 등
- 3차: 3/21(금) 16:00-18:00 슬로건, 기자회견 일정 논의 등
- 4차: 3/26(수) 16:00-18:00 기자회견, 캠페인, 홍보 방안 구체화 등

(2) 세계군축행동의 날

- 일시: 2014년 4월 14일(월) 10:0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제: 우리 세금 무기대신 복지
- 내용: 기자회견, 캠페인, 온라인 행동(웹터트럼)
- 비고: 여성단체 참여 독려(대구경북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연
구소 여.세.연, 제주여성회, 기독교인회 연명/ 한국여성민주회 홍보 협조)
- 참석: 김지호, 명희, 여해숙(발언), 이주원, 최민정(피크업스, 거리캠페인)
- 연대: 공동주최(가나다순)

가. 시민사회단체 (28명): 개척자들, 경계물넘어, 경실련통일협회, (사)기독교여
민회, 남북평화재단, 녹색당평화의제모임,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
합, 대전평화여성회,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물결, 시월혁명회, 생명평화연
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제주여성회, 제주평화
인권센터, 전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
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와통일을여
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명학교육훈련원(KOPI), 흥사단민족통
일운동본부

나. 국회의원 (22명): 강기정, 김기식, 김성곤, 김윤덕, 남윤민순, 박수현, 백재
현, 부좌현, 서명교, 우원식, 은수미, 이복희, 이미경, 이학명, 이재근, 임내
현, 장하나, 전순옥, 정호준, 한영숙,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21명), 정진
후 (정의당 1명)

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좌담회(【8】부설 한국여성평화 연구원의 3-2. 참조)

1-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1)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

- 일시: 2014년 3월 28일(금)~30일(일)
- 장소: 중국 심양 칠보산호텔
- 내용: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교류
- 프로그램:

가. 3월 28일(금)

(가) 14:30 인천 출발(KE 833) - 15:25 심양 도착

(나) 18:00 환영만찬

나. 3월 29일(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

(가) 토론회 09:00-11:00

ㄱ. 사회

북측: 박영희(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부장)

남측: 오전-김해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오후-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해외측: 정정순(여성동맹중앙 국제부장)

ㄴ. 인사말 (남, 북, 해외)

남측: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15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북측: 김영숙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해외측: 안병옥 615일본지역위원회 명예의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

협의 부회장

ㄷ. 피해자 증언 : 김원옥 할머니

ㄹ. 주제 발표 1. 과거 일제 식민지 범죄

북측: 김영숙(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남측: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해외측: 김정원(강제인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 중앙본부 사무국 차장)

(나) 12:00-14:00 점심식사

(다) 토론회 14:00-17:00

ㄱ.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탄압관련 활동 영상 상영

ㄴ. 주제 발표 2. 일본군성노예범죄

북측: 리현숙(조선불교도련맹 전국신도의 부회장,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관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

남측: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해외측: 김영희(615해외측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ㄷ. 주제 발표 3.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동향

해외측: 강옥출(여성동맹중앙 부위원장)

북측: 리정희(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남측: 장신화(부산여성의 부대표)

(라) 공동집의문 채택 및 발표

북측: 리산옥(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의 여성의 회장)

남측: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해외측: 김영녀(615 해외측 위원회 위원)

(마) 18:00 만찬

다. 3월 30일(일)

(가) 08:30 호텔 체크 아웃

(나) 09:00-11:30 '9.18 일본범죄폭로전시관'으로 출발

(다) 11:30-13:00 점심식사

(라) 13:00-14:35 공항으로 출발 → 공항 도착

(마) 16:35 심양 출발(KE 834) ~ 19:45 인천 도착

- 대상: 북, 남, 해외 대표단, 참관단, 실무단 40여명

- 참가: 북, 남, 해외 대표단, 참관단, 실무단 40여명

가. 남측

(가) 대표단: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15남측위여성본부 상임대표), 김선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산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혜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INCK)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 6·15남측위여성본부 공동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6·15남측위여성본부 공동대표), 윤미향(남측 대표단 단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장선화(부산여성의 부대표), 진민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6·15남측위여성본부 공동대표),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영수(한국

YWCA연합회 부회장)

- (나) 실무임: 김동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총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6.15남측위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6.15남측위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다) 참기단: 김원옥(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신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총무), 안정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팀부장), 유선희(전국여성연대 은명위원), 이명숙(해남아이공생협 전 이사장), 이문숙(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정경연(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조윤희(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이사), 최민정(평화플란드느여성회 사업부장), 최주안(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턴), Tiffany Hsiung ('Within Every Woman' 감독)

나. 북측대표단

김명숙(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부위원장/ 6.15북측위원회여성분과위원회의부위원장), 박영희(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부장), 조춘희(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 현영래(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부원), 리설아(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의 위원), 리산숙(조선카톨릭교회와 중앙위원회 여성회 회장), 리현숙(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 문제대책위원회위원/ 조선불교도련맹한국신도회부회장), 리정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리명순(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부원), 김설화(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의 위원)

다. 해외여성 대표단

- 가) 단장: 안병옥(6.15일본지역위원회의 명예의장,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의회 부회장)
- 나) 부단장: 양옥출(여성동맹중앙 부위원장(일본))
김영희(6.15해외측위원회의 사무국 부국장(중국))
- 다) 총무: 정정순(여성동맹중앙 국제부장(일본))
김영녀(해외측위원회 위원(중국))
- 라) 단원: 천재련(해외측위원회의 위원, 재중총연 여성부 부장)
김옥순(중국측위원회의 위원)
김정원(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중앙본부 사무국 차장(일본))
박수원(도교조선중고급학교 어머니회 회장)
김우기(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지도원)

- 참석: 여혜숙(대표단), 김정수(발제), 최민정(참관)

2) 신개념 시민들의 레알 소통콘서트 '응답하라, 6.15'

- 일시: 2014년 6월 13일(금) 19:00-22:00
- 장소: 광화문 북측광장
- 내용: 선거연령 낮추기와 교육감 청소년 투표권 요구 1인시위 청소년들의 통일 & 교육정책 생각 발언과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과의 이야기,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실업자의 이야기, 문화공연
- 참석: 여혜숙, 최민정
- 주최: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통일농사협동조합, 남북경협포럼, 남북평화재단 통학인족통일회, 통일맞이, 평화플랫폼느여성회, 흥사단 민족통일은동본부, 6.15 남측위 청년학생본부, KYC(한국청년연합),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동북아평화연대

3) 베이징+20주년, Post-2015 여성운동 전망만들기 사업(【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4. 연구 참조)

1-4.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1) 1325호 네트워크

- 사무국: 평화여성회 (1325호 네트워크 회의 지원,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네트워크의 의견서 및 설명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홍보활동)
- 담당: 정경관(국제협력위원장), 최민정(사업부장)
- 참가단체: 평화플랫폼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록어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어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킴 하는사람들, 펀더멘탈연구소 여, 세, 연,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어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5/28일까지 활동), 원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 YWCA연합회, 참여하는주부모임, 여성평화회의교3 김 (45개 단체)

(1) 회의

가. 1차 회의

- 일시: 2014년 1월 3일(금)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1325호 네트워크의 의견을 조율하 |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관한 의견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전달했음에도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정요인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민관협의체에서 문제제기함. 정부는 1325호 네트워크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꼭 들어가야 할 과제를 선정해주기를 요청함. 이에 1325호 네트워크는 꼭 반영되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 의견마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향후 대응을 모색함.
- 참석: 정경란, 최민정

나. 2차 회의

- 일시: 2014년 4월 28일(월) 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1325호 국가행동계획 발표에 대한 대응 논의
가) 민관협의체 구성요구, 외국군 주둔지역임을 명시, 모니터링 연례화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함.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최종안이 나오면 검토 후 최종 의견 발표하기로 함.
나) 1325호네트워크는 유지하고 사무국은 평화여성회가 담당하되 이후 활동은 유연하게 진행하기로 함.
- 참석: 정경란, 최민정

(2) 1325호 네트워크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가.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작성과정과 민관협의체에 관련한 의견서* 공문 발송

- 일시: 2014년 4월 2일(수)
-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
- 제목: *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연 안보의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작성과정과 민관협의체에 관련한 의견서*

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일시: 2014년 5월 8일(목)
- 제목: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3) 성명서 발표

가. '통일준비는 여성과 함께'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발표

- 일시: 2014년 2월 27일(목)
- 제목: 1325호 네트워크, '통일 준비는 여성과 함께'
여성연합 등 44개 단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 입장 표명
- 보도: 여성신문(2월 28일, <http://www.womennews.co.kr/news/67506>)

나. 한국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채택에 관한 성명서 보도자료 배포

- 일시: 2014년 5월 27일(화)
- 제목: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채택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 내용: 5월 23일(금), 한국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채택할. 이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과 좋은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함.

- 언론보도:

가) '1325 네트워크', 정부에 '민관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5월 28일, 통일뉴스)

나) 14년 만에 '1325호 국가행동계획' 유엔에 제출(5월 27일, 여성신문)

(가) 성명서 번역- 일본 Peace Boat에서 영역 및 일역을 해준

(나) 영역본 국제단체 배포: GPPAC Northeast Asia, GPPAC

Gender Focal Points,

(다) Peacewomen 웹사이트에 성명서 국문과 영문본이 실림

<http://www.peacewomen.org/naps/country/asia-pacific/republic-of-korea>

(4)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협의체에서 활동

- 민간위원: 정경단 국제협력위원장
- 활동: 정부와 시민단체 및 학계 대표로 구성된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

협의체'에서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1: 25호 네트워크"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활동을 1325네트워크 단계들과 공유.

(5) 국회의원과 협력

- 남인순 의원: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인제근 의원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주무부처 관련 질의 요청
- 진성준 의원실: 1325호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질의할 것을 요청 (2014.4.2)

(6) 여성신문 기고

- 제목: 통일은 대박? '피스 메이커' 여성 참여 보장해야
기획 / 유연 안보의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 기고: 여성신문(1월 21일, <http://www.womennews.co.kr/news/65335>)
- 작성: 정경란

(7) 평가

- 1325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시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여성단체의 입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평화여성회는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또한 1325호 민관협의체 민간위원 활동을 통해 여성시민단체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해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여성단체의 입장을 포함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후 '1325호 네트워크'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여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행관련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성명서를 번역하여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1-5. 평가

베이징+20주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사업을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베이징+10주년 이후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여성과 무력분쟁'보고서를 작성한 성과가 있다. 그리고 남북해외여성토론

회를 6.15남측위원회 소속 여성단체들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해나감으로써 남북여성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여성단체들이 원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단체, 정부,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추진하여 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여성들의 의견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평화통일운동 개발 및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였지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 남북여성협력사업

<2014년 사업계획(안)>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 평가

남북여성협력사업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었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 평화여성회가 남북여성협력사업을 지속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대중교육

<2014년 사업계획(안)>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평화운동들을 알리는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1) 청년들을 위한 여성평화교육

- 여성평화리더스쿨, 청년평화리더스쿨

2) 타 단체 청년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4.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2014년 사업계획(안)>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적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문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1) 대중참여인 활동
- 2) 회원교육 및 소모임을 통한 활동

4-1. 여성평화수다방

• 목표:

- 여성의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평화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일상에서 평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탐구.
- 여성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모색.
- 여성이 평화로운 일상, 사회,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각과 대응방식이 필요한지 논의.
- 젠더적 관점을 통한 한국사회 고찰

• 방식

- 여성과 평화 관련된 영화나 책,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주의, 여성주의적 평화, 평화운동 안에서의 여성주의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눔.
- 꾸준한 참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성장하고, 관점을 확장시키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감.

1) 회의 및 보고

(1) 기획회의

- 일시: 2014년 7월 7일(월)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사무실 회의실
- 내용: 여성평화수다방 프로그램안 논의

- 참석: 여혜숙, 최민정

(2) 미트웨어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일시: 2014년 8월 19일(화)

- 지원: NPO지원센터

- 내용: 공익적 가치 및 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

- 담당: 최민정

(3) 미트웨어 지원사업 정산보고

- 일시: 2014년 12월 19일(금)

- 내용: 지원금 30만원에 대한 정산서, 후기모음집을 작성하여 미트웨어 담당자에게 보고

- 담당: 최민정

2) 모임

(1) 1차

- 일시: 2014년 8월 21일(목)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영화 <노스컨츄리> 관람 후 <성과 권력, 남녀의 시각차 그 속에서의 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눔

- 참석: 김성은, 김손경미, 유지연, 여혜숙, 오경진, 오보람, 김소정, 최민정

(2) 2차

-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8:30-2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영화 <지슬> 관람 후 <국가 폭력하에서의 민중(여성)의 삶, 여성과 평화의 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눔

- 참석: 김손경미, 유지연, 여혜숙, 오경진, 최민정

(3) 3차

- 일시: 2014년 10월 30일(목) 18:30-2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책「자기만의 방」(버지니아 울프)을 읽고, 당일 영화 <디 아워스> 관람 후 '2014년 여기 여성과 나의 삶,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눔

- 참석: 김손경미, 유지연, 여혜숙, 이주원, 최민정

(4) 4차

- 일시: 2014년 11월 21일(금) 16:00-21:00
- 장소: 명동보신업선교회 2층 사랑3방
- 내용: 책『살아있는 날들의 시작』(박완서 저)을 읽고, 당일 영화 <안도니 아스라인> 관람 후 '우리 사회의 이상향과 우리 활동의 지향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눔
- 참석: 김손경미, 유지연, 여혜숙, 오경진, 이주원, 최민정

(5) 5차

- 일시: 2014년 12월 26일(금) 17: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내용: 영화<그르바비차>를 보고 '전쟁폭력과 폭력적 대응간의 아이러니'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눔.
- 참석: 김손경미, 유지연, 조혜민, 여혜숙, 오경진, 이주원, 최민정

4-2. 평가

모임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실무자의 관심이 결합하여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며, 타 단체 활동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여성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실무자, 참여자의 모임 만족도가 높았다. 평화여성회 사업에 20대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였으며, 소규모모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 기타

5-1.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대응

• 연대단체: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비폭력 평화물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 위한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평화저항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1) 안보교육대응 기자회견 '안보교육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 일시: 2014년 7월 28일(월) 10:30-12:00

- 장소: 서울시 교육청 앞
- 내용: 군 안보교육을 중단 요구 및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요구
- 참석: 최민정

2)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 일시: 2014년 9월 1일(월) 11:00~12:00
- 장소: 국방부 앞
- 참석: 최민정

3) 논평 발표 ‘국방부, 담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 일시: 2014년 9월 22일(일)
- 연대단체: 남북평화재단,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불안느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4)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행사

(1) 군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10월 27일(월) 11:00
- 장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 내용: 군의 안보교육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비판, 자료 공개 요청

(2) 병영체험을 다룬 영화 <안론의 여름방학> 상영과 GV

- 일시: 2014년 10월 30일(목) 19:00
- 장소: 인권중심사람 헌터
- 내용: 청소년의 병영체험 다룬 영화를 관람

(3)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 학생 안보교육

- 일시: 2014년 10월 31일(금) 19: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 내용: 학교에서 진행되는 안보교육 실태 및 문제점 발표, 학교 관계자 대표자들의 토론
- 가) 발제: 학생 안보교육 관리실태(김승환 참여연대 간사)

나) 발매: 군 안보교육의 문제점(강종대 다론티스) 글러스 편집장)

다) 토론: 교사, 대학생, 학부모, 평화교육활동가

- 참석: 최민정

(4) 연속연론기초: 우리안의 전쟁교육(오마이뉴스(10/7 1, 28, 29, 30))

[3]정보홍보 사업

<2014년 사업계획(안)>

-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소식지 발송
- 3) 정기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을 전달

1. 소식지 '올리브' 2호 발간

* 기획위원: 홍승희, 여혜숙, 김지호, 이덕경, 박인혜, 명희, 최민정

1) 기획회의

(1) 1차

-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11:00~12: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목차구성, 기고자 논의

2) 소식지 관련 민영 회원(의료살림 사회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

- 일시: 2014년 3월 11일(화) 11:00~12:00
- 장소: 의료살림사회협동조합
- 내용: 의료민영화와 여성의 삶에 대한 인터뷰
- 참석: 여혜숙, 최민정

3) 소식지 '올리브2호' 발간(통권 25호)

- 일자: 2014년 4월 7일(월)

- 발행부수: 200권

- 목차:

가. 시사 읽기 - 지방선거와 여성리더십 : 홍승희

나. 여성평화운동

가) 박근혜 정부 1년의 통일·평화 관련 정책평가: 김정수

나) 탈핵운동과 여성운동의 두 가지 공통점: 강수정

다) 접경지역과 대평화-두려움 혹은 경계를 넘어서: 노귀남

라) 강정은 지지 않는다-평화는 끝내는, 희망하는 자의 것: 빛나는 호수

마) [인터뷰] 의료인영화와 여성의 삶: 민영

바) 민회협 여성위 "연평도 통일기행"을 다녀와서: 김지호

다. 갈등해결과 평화

가) 물음표가 된 포래조정 교육: 김진희

나) 대화의 시도는 문제해결과 상처회복의 시작: 안향숙

다) 내년엔 또 뵙겠습니다: 이광용

라. 미디어를 통한 평화읽기

가) 깨지 않는, 이어지는 '또 하나의 약속': 이덕경

다. 회원마당

가) 인터뷰: [회원과 차 한잔] 강화에 뿌리 내린 문화예술의 삶: 범남희

나)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 평화여성회 회원이 되다: 한산석

다) 북한에 사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쓴 엽서

바. 평화여성회 발자국

가) 평화여성회가 뿌린 평화의 씨앗들

나) 갈등조정을 통해 뿌린 평화의 씨앗들

다) 연대를 통해 뿌린 평화의 씨앗들

라) 평화의 씨앗을 키워주신 분들

사. 부록: 발간 책자 소개

2. 온라인소식지 발송

- 담당: 여혜숙, 최민정

1) 2월호

- 발송일: 2014년 2월 4일(화)
- 내용: 제18차 정기총회 보고, 1월 활동보고(년기자회견, 여성신문 기고 글), 2-3월 공저,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2) 3월호

- 발송일: 2014년 3월 3일(일)
- 내용: 2월 활동보고(박근혜정부 1년 대응 여성계 촛불집회), 3월 공저, 주요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발표,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3) 4월호

- 발송일: 2014년 4월 4일(금)
- 내용: 3월 활동보고(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익여성토론회&공동결의문), 4월 공저, 주요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발표,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4) 5월호

- 발송일: 2014년 5월 2일(금)
- 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분들 애도, 4월 활동보고(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소식지 '올리브' 2호 발간), 5월 공저, 주요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발표,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5) 6월호

- 발송일: 2014년 6월 2일(일)
- 내용: 5월 활동보고(5.24 좌담회 개최, 한국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성명서발표,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인 일련토론 참가), 6월 공저, 주요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발표,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6) 8월호

- 발송일: 2014년 7월 31일(목)
- 내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요청, 6~7월 활동보고(여성미래센터개관 4주년기념 바자회, 정대협 수요시위, 안보교육 대응 기자회견), 8월 공지, 주요자료 및 기자회견문 발표,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7) 9월호

- 발송일: 2014년 9월 3일(수)
- 내용: 추석 감사 인사, 8월 활동보고(식량주권지킴이 여성선언, 여성평화수다방 1차, '여성과 무력분쟁' 간담회,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9월 공지, 세월호 농성장 현장스케치, 주요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발표,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8) 10월호

- 발송일: 2014년 10월 13일(월)
- 내용: 9월 활동보고(Post-2015 1차 의제종합워크숍, 여성평화수다방 2차, 민화협 평화통일워크숍), 10월 공지, 주요자료 공유,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9) 11월호

- 발송일: 2014년 11월 7일(금)
- 내용: 10월 활동보고(김음중학교 단체방문, 여성평화수다방 3차), 11월 공지, 인턴 양지의 '톡'톡(병화글쓰기),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10) 12월호

- 발송일: 2014년 12월 1일(월)
- 내용: 11월 활동보고(후원의 밤, 심포지엄, 여성평화수다방 4차, 사업총괄평가회의), 12월 공지,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11) 2015년 1월호

- 발송일: 2014년 12월 31일(수)
- 내용: 새해인사, 12월 활동보고(여성평화수다방 5차, 세월호 농성장 방문), 1월 공지,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3.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1) 페이스북 업데이트

- 내용: 본 회 활동 일림, 사업 공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함.
- 비교: 페이지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 수 337명

4. 평화여성회 소개 및 방문 인터뷰

1) 김음중학교 방문

- 일시: 2014년 10월 15일(수) 9: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평화여성회 소개(프레지 활용), 갈등해결교육 관련 놀이, 통일염원을 놀이
- 대상: 김음중학교 학생, 인솔교사
- 참석: 여혜숙, 최민정, 양지

5. 자료정리 자문

- 일시: 2014년 8월 13일(수) 11:00~12: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평화여성회 발간 자료 및 영상, 사진 정리 자문
- 참석: 김정아, 최민정, 아카이빙네트워킹연구원 관계자 2인

6. 평가

소식지 '올리브' 2호를 발간하며 통일운동, 포래조정교육, 탈핵운동 등 평화 관련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다. 온라인소식지를 월별로 발송하여 본 회 소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평화글쓰기, 현장스케치 등의 소식지 내용을 풍부하게 작성하는 등 정보홍보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본 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각 게시글의 좋아요 버튼 수 증가 등을 통해 페이스북의 홍보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댓글 등을 통해 온라인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회의 활동 지향성을 보다 대중적으로 알릴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4】회원 사업

<2014년 사업계획(안)>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소모임을 진행한다.

- 1) 회원 교육
- 2) 회원 마당
- 3) 영화모임

1. 회원가입 및 탈퇴현황

1) 회원 가입

(1) 회비증액: 2명

전상희, 손은정

(2) 가입: 16명

1월- 남미애, 김차연

2월- 한복임

3월- 임이미

4월- 한지연

6월- 오은숙

8월- 유은화, 정강애, 강한진, 김수환

10월- 박경아, 엄은혜, 한영리

11월-강민숙, 박혜연, 김지선

2) 회원 탈퇴: 8명

(1) 탈퇴: 양혜경, 홍영표, 김영란, 김연순, 정진경, 김미옥, 강지현, 박경옥

2. 회원관리

1) 회원가입서 목록 정리 및 파일화

- 일시: 2014년 8월 29일(금)

- 내용: 회원가입서 목록 정리 및 파일화 작업

2) 회원 인부전화

- 일시: 2014년 7월~8월
- 내용: 후원회원에게 연락처 등 확인하고, 인부 전화하기

- 3) 분기별 CMS 납부회원에 감사문자 발송
- 4) 신입회원에 감사 편지보내기

3. 영화보기

1) 영화 모임

- 일시: 2014년 4월 2일(수) 18:30~20:30
-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콘서트방
- 제목: 티파니에서 아침을
- 참석: 김지호 외 7인

4. 마음나누기 정나누기 바자회

- 일시: 2014년 7월 17일(목) 10: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회원 기증 물품
- 대상: 회원 및 활동가

5. 기타

- 1) 故 이탁호 이사 1주기 행사
 - 일시: 2014년 10월 8일(수)
 - 장소: 충남 홍성
 - 참석: 김지호, 김숙임

【5】 재정 사업

<2014년 사업계획(안)>

- 1) 꽃감판매 등
- 2) 후원행사: 6월 경

1. 함양 곳값 판매

- 1차 판매기간: 2013년 12월 23일(월) ~ 2014년 1월 31일(금)
- 2차 판매기간: 2014년 12월 15일(월) ~ 2015년 2월 13일(금)
- 1차 순수입: 1,704,000

2. '토닥토닥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후원의 밤

- 준비위원: 김지호(총괄), 김진희, 유은주, 여혜숙, 최민정, 유지연

1) 사무국 회의

- 일시: 2014년 10월 7일(화), 13일(월), 20일(월), 28일(화)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내용: 초청장 제작 논의-주문제작 및 발송, 홍보대입작성 전달, 후원의 밤 장소 논의-예약, 음식 논의-예약, 프로그램 논의, 팀구성(안) 논의
- 참석: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2) 진행팀 회의

- 일시: 2014년 11월 5일(수), 11월 12일(수), 11월 24일(월)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김지호, 김진희, 유지연, 유은주, 여혜숙, 최민정
- 내용: 프로그램 구성, 역할 분담, 자리배치 등 전체 논의
- 전체 진행 일정

세부일정	티켓	홍보 및 조직	프로그램 등	비고
9/29-10/2	시안 준비	웹자료 제작	아이디어 모으기	장소답사
10/6-10/10	완성(10/7)	공지, 전체메일		
10/13-10/17	우편 발송			
10/20-10/24		전체메일		
10/27-10/31		단체 공지		
11/3-11/9	전화각입, 프로그램 확정, 음식 확인			
11/10-11/16	역할 확인, 준비물 최종 점검 (마무리)			
11/17(행사)				
11/18~	정산 및 평가, 감사인사			

3) 프로그램

-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 18:00-20:00
- 장소 : 카톨릭 청년회관 5층 (홍대입구역)
- 제목 : 지금, 평화로 만나자
- 내용 : 후원회원을 위한 넉넉한 나눔
가. 입장시 행사
 (가) 참석자 이름표 붙이기
 (나) 비둘기 모양의 색지에 '2014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느낀 평화는 ○○다' 적기
나. 공간 구성
 (가) 포토존 만들기
 (나) 회원명단 현수막 걸기
 (다) 타로, 바자회
- 주요 프로그램
 가. 사회자: 김영진 회원
 나. 인사말: 김성은 이사장(& 여혜숙대표, 김선혜소장, 김정수원장)
 다. 축하말: 오보람(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서은정(기독교인회 총무)
 라. 평화여성회 활동영상 + 퀴즈
 마. 참석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나누기 +퀴즈
 바. 공연: 김성호 <남북경제협력포럼 사무총장>

4) 결산

- 순수입: 8,455,780원

5) 평가

- 후원행사 준비팀으로 새로운 회원의 참여가 있어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 졌다.

[6]연대 및 협력사업

1. 국내 상설연대

<2014년>

- 1)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주관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본부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담당

- 이사, 통일평화위원장,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 여혜숙
- 사무국장연석회의,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최민정
- 여성미래센터 총무단회의: 김지호

1) 회의

(1)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회 + 총회

- 일시: 2014년 1월 8일(수) 13:00-9일(목) 12:00
- 장소: 여성플라자 2층 국제회의장
- 참석: 여혜숙, 최민정

(2) 대의원총회

- 일시: 2014년 1월 9일(목)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

(3) 임원회의

- 1차: 1/29일(화) 14:00-16:00, 3.8여성대회 슬로건 정하기(카톡)
- 3차: 6/24일(금) 14:00-16:00, 2014년 6.4 지방선거 평가, 양성평등기본법 검토, 2014년 제2차 이사회 및 정책회의 주제, 베이비+20주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현황대응

(4) 이사회

-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14:00~17:00. 여성미: 센터 1층 소동방

- 내용:

가. 정책토의 : 민영화와 여성의 삶/ 이은경(세사), 연구원)

나. 안전성의 : 제28차 정기총회 평가 및 회의' 인준, 2014년 여성연합 임원 평단 확인의 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국여성대회 사업 추진의 건,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선정 및 올해의 여·노동상 추천에 관한 건, 2월~8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신규회원 가입 검토 소위'구성의 건, 2014년 이사회 운영 및 임정에 관한 건

(5) 여성미래센터

가. 총무단 회의

(가) 1차

- 일시: 3월10일(월) 16:00~17:00

- 장소: 1층 소동방

- 내용: 지하층 수리관련 브레인스토밍, 관리비내역 보고 등

(나) 2차

- 일시: 2014년 6월 9일(월) 16: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내용:

ㄱ. 미래센터 개관 4주년 기념 안내

ㄴ. 지하교육장 수리에 관한 보고

ㄷ. '마음나누기 정나누기' 비자회 실시 -> 지하교육장 개관행사에 맞춰 시 할 예정

ㄹ. 관리비 조절에 관한 건 : 평당 15,000원씩(영화여성회 매월 396,000원 분담)인 월 관리비를 2013년 1년 동안 결산해 본 결과 관리비가 연 500여만원 남았다고 함. 그리하여 평당 관리비를 13,500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과, 15000원으로 유지하고 회의실 등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각 단체별로 20일까지 의견 수렴하여 통보하기로 함.

(다) 3차

- 일시: 2014년 6월 26일(목) 16:00~18: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내용:

ㄱ. 미래센터 개관 4주년 행사 및 지하교육장 개관식 안내

나. '마음나누기 장나누기' 바자회 실시

(라) 4차

- 일시: 2014년 9월 15일(월) 16: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여성미래센터 활동 보고, 세공 관련 확인사항 안내

나. 운영위원회

가) 1차

- 일시: 2014년 3월 25일(화) 12:00~13: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내용: 2013년 보고(재정과 사업)와 2014년 계획(재정과 사업) 승인, 지하리모델링건, 개관4주년기념사업(6. 17.), 도용방 운영 등 보고와 승인

(6) 사무국장 면석회의

- 일시: 2014년 8월 27일(수) 17:00~11:30
- 장소: 수원 호스텔
- 내용: 사업공유와 논의, 공간리더와 조직에 대한 고민이야기

2) 행사 및 활동

(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가. 기획회의

- 가) 1차: 1/22(수) 14:00~16:00. 프로그램, 일정, 역할분담 논의

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 일시: 2014년 3월 8일(토) 13:00~17:00
- 장소: 창계광장 앞
- 주제: 정표,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민주주의, 평등사회, 소용사회
- 내용: 장평난장, 기념식, 안녕보라 점핑머레이드
- 참석: 여혜숙 외 20명

(2) '박근혜정부 1년' 대응

가. 박근혜정부 평가토론회 준비회의(참석: 김정수)

- 가) 1차: 2013년 11/29(금) 10:00~12:00, 정책분석영역, 토론회 방식, 일정 논의 등

- 나) 2차: 2014년 1/15(수) 14:00~16:00, 토론회 외화방식, 분야별 평가일

정 논의 등

나. 기획실행팀 회의(참석: 최민정)

- 가) 1차: 1/27(월) 16:00~17:30. 프로그램 논의, 방식 논의 등
- 나) 2차: 2/21(수) 15:00~17:00. 3.8한국여성대회 프로그램 최종 정 등
- 다) 3차: 2/21(금) 15:00~16:30 역할분담 및 마지막 점검 등

다. 촛불집회

- 일시: 2014년 2월 19일(수) 19:00~21:00
- 장소: 청계광장 동아일보사 앞
- 내용: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중심으로 전반적인 삶의 하향평준화, 비인간화 경향 등을 비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냄.
- 프로그램: 공연, 발언(김명진희원), 촛불 세례미나, '부서부서' 퍼포먼스
- 참가: 김지호 외 7인

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성명서&이슈리포트 발표

- 일시: 2014년 2월 25일(화)
- 성명서 제목: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하는 여성단체들의 성명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여성인권은 바다
- 이슈리포트 평화통일본야 작성: 김정수
- 성명서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근절결을위한한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3)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 일시: 2013년 3월 25일(화)
- 제목: 6.4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공천 30% 보장하라!

(4) 네팔의 '대안생리대 운동' 탐방 및 현지조사 발표회

- 일시: 2014년 4월 11일(금) 10:30~11: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롱방
- 내용: 네팔의 '대안생리대 운동' 탐방보고, 네팔 상황 보고, 국제기발협력 및 여성운동 접촉 논의
- 참석: 최민정

(5) 베이징+20주년 기념 post-2015 여성운동미래전망 만들기 사업

【8】부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4. 연구 참조)

- (6)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서명 관련 준비회의
- 일시: 2014년 7월 4일(금) 14:00~15: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내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 작업 논의
 - 참석: 최민정
- (7) 미래센터 지하교육장 개관 기념행사
- 일시: 2014년 7월 17일(목) 17:00시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교육장
 - 참석: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 (8) 미래센터 개관 4주년 행사- '읽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특강
- 일시: 2014년 7월 18일(수) 10: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내용: 자녀양육 방식에 관한 강사의 방청, 철학 등 소개
 - 강사: 여성학자 박혜란
 - 참석: 김지호
- (9) 창립 27주년 후원의 날
-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 12:00 ~ 14:00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
 - 참석: 여혜숙, 최민정
- (10) '온라인 여성혐오 현상' 활동가 워크숍
- 일시: 2014년 11월 13일(목) 19:00-21: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갤러리3
 - 내용: 온라인 여성혐오 현상에 대한 논의
 - 가. '온라인 여성혐오현상'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2030세대의 문화와 전파의식: 허다운(이화여대 철학과)
 - 나. 여성혐오에서 제기되는 '섹슈얼리티': 배은경(서울대 여성연구소)
 - 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인권 : '온라인 여성혐오 현상'을 중심으로: 윤보라(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 (11) [집담회] 양성평등기본법, 젠더랜즈로 들여다보기
-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5:00 ~ 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 예정.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와 한계,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운동

성찰 및 방향 모색

- 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의미와 과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나. 양성평등기본법 개념에 대한 의미와 한계 (나명정 장애여성공감/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가진 당론적 한계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라. 글로벌 성평등 담론과 의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본 여성운동의 성찰 (박봉정숙 한국여성인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 바. 질의응답 및 토론
- (12)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 가. 기획회의
 - 가) 1차: 12/12(금) 14:00~15:30, 31회 여성대회술로건 초안, 대회 형식 컨셉, 일정 논의 등
 - 나) 2차: 2015년 1/6 10:00~12:00, 대회 형식, 타이틀, 일정 논의 등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행사 및 활동

(1) 2014 정대협 정책간담회

- 일시: 2014년 3월 24일(월) 15:00~17:00
- 장소: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
- 내용: 국내 상황보고 및 경과보고- 윤미향, 일본정부의 현 상황과 고노담화 보고- 양장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해결안- 이상희 변호사, 공동토론
- 참석: 여혜숙

(2) 토론회<한일 양국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14:00~17: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내용: 한일정부에서 요구하는 진상규명조사에 대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의 '법적 책임',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 3년을 맞아 그 의의와 문제 해결의 전망
- 참석: 김지호, 여혜숙, 최민정

(3) 1136차 수요시위

-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12:00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내용: 바위처럼 노래낭독, 경과보고, 공연, 자유발언, 성명서낭독,
- 참석: 김성은,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성명서), 이권영희(사회)

(4) 24돌 후연행사

- 일시: 2014년 11월 16일
- 장소: 종로 옥도버펍스트

1-3.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담당

- 남측위원회 운영위원, 여성본부: 여혜숙(공동대표), 최민정(집행위원)

1) 회의

(1) 총회준비위원회

- 1차: 3/11(화) 16:00-18:30, 6.15 남측위원회 총회 보고, 2014년 여성위원회 총회 준비 점검,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의여성도론회 준비
- 2차: 3/18(화) 10:00-11:30, 2014년 총회 준비 진행사항/총회 자료집(안) 검토,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의여성도론회 준비

(2) 총회

- 일시: 2014년 3월 25일(화) 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내용: 2013년도 사업,회계 감사보고, 2013년도 사업,결산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승인 등
- 참석: 여혜숙, 최민정, 조영희

(3) 운영위원회 10차 회의

- 일시: 2014년 5월 20일(화) 15:00~16:00
- 장소: 서대문 사무실
- 안건: 강원본부 인준의 건, 6.15공동선언 발표14주년 기념 단속공동행사 추진의 건

2) 여성본부

(1) 공동대표자회의

- 일시: 2014년 2월 11일(화) 16:00~17: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2)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 일시: 2014년 4월 28일(월) 17:00~ 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 내용: 심양 남북해외여성도론회 평가
 - 참석: 여혜숙, 최민정

3) 행사 및 활동

- (1) 남북여성해외도론회(【2】평화-통일 사업의 1-3. 참조)
- (2) 6.15공동선언문 발표 14주년 기념대회
 - 일시: 2014년 6월 15일(일) 14:00~
 - 장소: 시대문독립공원
 - 참석: 정경란
- (3) 10.4공동선언 기념식 및 평화통일 콘서트
 - 일시: 2014년 10월 3일(금) 18:00
 - 장소: 인헌문화예술회관 알 광장
 - 참석: 여혜숙(호소문 낭독)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담당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여혜숙(여성위원회 위원장)

1) 회의

(1) 집행위원회

가. 3월

- 일시: 2014년 3월 12일(수) 10:00~11:30
- 장소: 민화협 사무실
- 내용: '북녘에 비로 100만 포대 보내기 운동'실행계획(안) 검토의 건, 문화예술-체육 분야 위원회 초정 및 위원장 선임에 대한 건

나. 5월

- 일시: 2014년 5월 29일(목) 16:30~17:30

- 장소: 민화협 사무실
- 내용: 7.4남북공동성명 기념토론회 계획(안) 심의의 건, 회원단체 신규 가입 심사에 대한 건

다. 8월

- 일시: 2014년 8월 8일(금) 15:30~17:00
- 장소: 민화협 사무실
- 내용: 민화협 창립16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심의의 건, 북-중-러 접경지역 조사 및 공동 세미나 개최에 대한 건, '인천아시아게임 남북공동 응원' 활동방향에 대한 건

(2) 여성위원회 회의

가. 1차

- 일시: 2014년 3월 21일(금) 15:00~16:30
- 장소: 민화협 사무실
- 내용: 2014년 여성위원회 사업 논의, 북핵에 비로 100만 포대 보내기 운동 참여 방안 논의, 평화여성회 216포대 납부(북한어린이돕기 모금액 전환)

나. 2차

-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15:00~16:30
- 장소: 민화협 사무실
- 내용: 2014년 하반기 여성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여성 통일 평화워크숍 (9/17-18)

2) 행사 및 활동

(1) 민화협 여성통일포럼<통일준비와 여성의 참여>

- 일시: 2014년 4월 24일 15:00~17: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제: 통일준비와 여성리더십 (윤미향/통일교육원 원장)
- 참석: 여혜숙, 최민정

(2) 민화협 1차 정책토론회

- 일시: 2014년 4월 28일 14:00~17:0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 주제: 한반도평화통일 구상과 남북교류협력발전방향

- 참석: 여혜숙
- (3) 7·4 공동선언 기념 토론회
 - 일시: 2014년 7월 4일(금) 14:00-17:00
 -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 참석: 여혜숙
- (4) "북한 모자보건지원 사업의 의미와 추진방향 모 !" 간담회
 - 일시: 2014년 8월 26일(화) 10:00-12:00
 - 장소: 민화협 회의실
 - 내용: 북한여성 및 영유아 영양실태 현황, 북한 모자보건 사업의 의미와 방향, 대북의료 지원을 통해 본 북한 의료 현황과 '모자보건지원사업' 실행방안에 대한 발제 후 논의
 - 참석: 여혜숙(사회), 최민정, 유지연
- (5) 여성위원회 평화통일워크숍: 여성,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걷다
 -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 9월 18일(목)
 - 장소: 강원도 화천, 양구 (안동철교, 평화의 댐, 박수근미술관, 두타연, 을지전망대, 제4담굴)
 - 내용: 탐방 및 강연(정지석-국경선 평화학교교장,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역할)
 - 참가: 김성은, 김지호, 안정애, 여혜숙, 조보성, 최안진경
- (6)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행사
 - 일시: 2014년 9월 25일(목) 오후5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 김지호
- (7) 통일문화축제 개막식
 - 일시: 2014년 10월 11일(토) 09:30 ~ 12:00
 -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제2주차장 특설무대, 민통선
 - 참석: 여혜숙(개막식 참여와 민통선 걷기)
- (8) 해외협의회 전체 회의
 - 일시: 2014년 10월 21일(화) 14:00 ~ 17:00
 - 장소: 프래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 참석: 여혜숙

2. 국내 사안별 연대

<2014년>

-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 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2-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2-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성명서 연대에 참여함.

2-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1) 회의

(1) 7차 대표자회의

- 일시: 2014년 3월 4일(화) 10:00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내용: 2014년 활동 계획 논의

2) 행사 및 활동

(1) 강정마을 법률지원 모금

- 참가: 김성은, 김선혜, 김정아, 안정애, 여혜숙, 윤경원, 조영희, 안산석
- 금액: 26만원

(2) 강정법률모금지원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3월 26일(수) 11:00~12:00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참석: 최민정

(3) 2014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

- 일시: 7월 29일(화) 13:00
- 내용: 기자회견, 1일 행진 등
- 참석: 여혜숙

2-4. 기타

1) 평화·통일운동, 여성운동, 군축활동 등 관련 활동

(1) EGEPE(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프로그램

- 일시: 2014년 1월 15일(수) ~ 16일(목) 14:00~17: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
- 내용: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운동, 물, 성, 그리고 인권, 여성의 노동과 역량강화, 여성의 행위성과 참여 등에 관한 해외여성활동가 발제
- 참석: 최민정

(2) 북한이탈여성들과 함께하는 초청대화모임<명화: 리더십을 일구며>기억, 38여성축제, 비전

- 일시: 2014년 2월 6일(목) 17:00~21:00
- 장소: 이대 리더십센터
- 참석: 여혜숙
- 주최: 이대리더십센터, (사)조각보

(3)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의(위원장:남윤민순 의원), 여성단체 간담회

- 일시: 2014년 2월 11일(화) 14:30~15:5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참석: 여혜숙

(4) 여성, 북한, 통일 플로키움<북한사회구조의 이해>

- 일시: 2013년 3월 11일(목) 14:00~17:00
-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 참석: 최민정

(5)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지원사업 설문조사 인터뷰

- 일시: 2014년 4월 3일(목) 13:00~14: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최민정

(6) '젠더정치와 6.4지방선거' 간담회

- 일시: 2014년 4월 7일(월)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참석: 최민정
- 주관: 여성환경연대

(7) 경실련 '드레스민 제안 이후 남북관계의 대북정책방향'

- 일시: 2014년 4월15일(화) 15:00-17: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8) 돌봄과 살림을 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14년 4월 21일(월) 14:00-17:00

- 장소: 정릉프린치스코 4층

- 참석: 최민정

- 주관: 여성환경연대

(9) 한국여성재단 100인 릴레이 완주 (4/29)

(10) 통일부 등록법인 대표와의 대화 개최

- 일시: 2014년 6월 17일(화) 14:00-16:00

- 장소: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회의실

- 내용: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설명 및 등록법인 의견수렴

- 참석: 김성은 이사장

(11)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 참가

-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11:00-12:00

- 장소: 광화문

- 참석: 김지호

(12)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추진본부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8월 6일(수) 11:0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 참석: 여혜숙

(13) 2014 여성회의 '한국 여성운동의 전환을 꿈꾸다'

- 일시: 2014년 10월 17일(금) 12:00-18일(토) 14:00

- 장소: 한국여성수련원(강릉)

- 내용: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모색(여성운동의 진단과 전망,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대화, 새로운 여성운동의 기획과 전략 논의)

- 참석: 최민정

- 주최: 한국여성재단

(14) 통일공감대 형성과 국민통합

- 일시: 2014년 10월 27일(월) 14: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통일준비와 국민공감대 형성(남남갈등과 통일 준비, 평화통일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통일현장과 국민공감대형성, 통일준비의 국민통합

- 주최: 통일준비위원회
- 참석: 최민정

2) 세월호 참사 대응

(1)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 열린토론 '천개의 바다가 되어'

- 일시: 2014년 5월 31일(토) 14:00~20:00
- 장소: 안산 문화광장
- 내용: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 및 해결책 논의
- 참석: 총 행사참가자 250명, 50개 모둠에서 회원 11명(진행자), 3명(참가자)로 참여

(2) '평북향 기다림의 버스' 참가

- 일시: 2014년 7월 11일(금)
- 장소: 진도 평북향 앞
- 참석: 여혜숙

(3) 2.16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 참가

- 일시: 7월 15일(화) 10:00~12:00
- 장소: 여의동 문화광장
- 참석: 최민정

(4) 세월호 생존학생 도보(안산-국회의사당)시 행진 참가

- 일시: 2014년 7월 16일(수) 14:00~16:00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참석: 김지호

(5) 특별법 제정 촉구 가족행진 참가

-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15:00~17:00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참석: 김지호, 최민정

(6) 세월호 참사 100일 촛불집회 참석

-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19:00~21:00
- 장소: 시청 앞
- 참석: 여혜숙

(7)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참석

- 일시: 2014년 7월 28일(월) 10:00~12:00

-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 김지호

(8) 진도 팽목항 자유방문

- 일시: 2014년 8월 12일(화) 16:00~18:00

- 장소: 진도 팽목항

- 참석: 김지호

(9)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8월 26일(화) 11:00~12:00

- 장소: 청운동 주민센터 앞

- 내용: 기자회견, 유족들과의 만남, 도보 행진

- 참석: 김지호

(10) 단식농성장 방문

- 일시: 2014년 8월 26일(화) 13:00~14:00

- 장소: 광학문 광장

- 참석: 김지호, 최민정, 유지연

3) 기타 활동

(1) 관련부정선거 증거조사 특검촉구와 부정선거 감시 호소 각계 시국선언

- 일시: 2014년 3월 25일(화) 11:00~11:4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 참석: 여혜숙

(2) 이우정 평화장학위원회 정기회의

- 일시: 2014년 3월 25일(화) 11:30~12:3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

- 내용: 기금 2,000만원 장학금 전환 건, 이우정 선생님 12주기 추도예배 전 (5월 30일)

- 참석: 여혜숙

(3) 국가기관 개입 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 참여

- 일시: 2014년 4월 24일(목)

- 내용: 공정선거 개입금지요구서 팩스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성환경연대 주관 에너지 진단 직업 참여

- 일시: 2014년 5월 28일(수), 6월 9일(월), 6월 25일(수)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및 화장실
 - 내용: 사무실 LED 전등 교체 및 타이머 설치, (비실 및 세면대 수압 조절, 컴퓨터 모니터 절전 프로그램 예코그린 설치, (세 예코 마일리지 가입, 에너지절감 단열재 창문설치 시범 및 종류 비, 에어컨 실외기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안내, 에너지절감운동 스티: 붙이기, 현향판 작성 등
 - 담당: 김지호
- (5)故 이우정선생님 12주기 추도회
- 일시: 2014년 5월 29일(목) 19:00
 -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 참석: 여혜숙
- (6)남은인순 의원 출판기념
- 일시: 2014년 6월 26일(목) 14:00
 - 장소: 국회현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참석: 여혜숙
- (7)고 문익환목사 남북해위 회고모임 및 백두산 지역 탐방
- 일시: 2014년 6월 27일(금)-7월 3일(목) (5박6일)
 - 참석: 여혜숙
- (8)참여연대 20주년 기념식
-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18:3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 여혜숙
- (9)윤일병과 다른 윤일병을 위한 추모의 밤
- 일시: 2014년 9월 30일(화)
 - 장소: 대한문 앞
 - 참석: 여혜숙
- (10)입소문 나는 마케팅 전략
- 일시: 2014년 10월 20일(월)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비영리단체의 입소문 마케팅 전략
- 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거리를 제공하라: 홍보리플렛, 명함 등을 2장씩 배
포하기
- 나. 가시성을 더하라: 단체후원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라
- 다. 입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라
- 기) 자랑거리를 제공하라: 자원봉사자 등에게 명함, 상장 등을 제공하여

개인 페이스북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

나) 보상을 제공하라

다) 개인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라

- 참석: 최민정

- 주최: 여성환경연대

3) 기타 연대단체 후원 및 모금활동

(1) 3월 7일, 강정마을 후원

(2) 7월 2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행사

(3) 9월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후원행사

(4) 9월 29일, 여성환경연대 후원행사

(5) 10월 1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의 밤 (참석: 여혜숙)

(6) 11월 4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후원행사

(7) 11월 26일, 흥사단 후원행사 (참석: 최민정)

(8) 11월 27일, 우리민족서로돕기 후원행사

(9) 강정마을 범불지원 모금액 : 16만원

- 김성은, 김선혜, 김정아, 안정애, 여혜숙, 윤경원, 한산석

(10) 식량주권 지킴이 여성선언

식량주권지킴이 여성선언

하나 밝은 생명이자 주권, 우리들은 식량주권 위협하는 할 전면개방을 반대합니다.

하나 농민과 국민의 동의 없는 할 개방 선언은 무효 국민, 정부, 국가가 함께 사회적 형의기구를 구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 쌀과 안전한 먹거리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권,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참가(15인) : 김지호, 김현희, 박인아, 손은정, 안수경, 안정애, 엄금옥, 여혜숙, 유복남, 이주원, 조바원, 조영희, 최민정, 최민진정, 한지연

(11) 12월 18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송년의 밤 (참석: 최민정)

3. 국제연대

<2014년>

- 1) GPPAC
- 2) Women Peacemaker Program

3-1. GPPAC활동

- 1) GPPAC 워크숍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예방' ([1]조직사업의 3-2. 국제협력위원회 활동 참조)
- 2) GPPAC NEA 국제회의 및 지역운영위원회([1]조직사업의 3-2. 국제협력위원회 활동 참조)

4. 평가

연대사업을 통해 평화운동을 진행하였지만, 연대사업이 활동가의 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유기적인 연대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 연대활동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7】부설 갈등해결센터

1. 조직

1) 구성

- 소장: 김선혜
- 운영위원회: 김선혜, 김영진, 김지호, 박인혜, 박재신, 이경순, 이덕경, 전상혁, 김진희, 유은주
- 연구원: 박수선
- 자문위원: 강순원(한신대 교수)
- 사무국: 명희(부장), 이주원(활동가)

2) 운영위원회의

- (1) 제1차: 1/27(월) 18:20~21:30. 활동보고, 2014년 사업 세부계획, 참고육학부모회 MOU제결 및 기자간담회, 회원원래공부모임 주제선정, 운영위원회 연간 회의일정, 2014년 청소년 평화리대캠프 등
- (2) 제2차: 2/26(수) 18:00~21:00. 활동보고, 제7기 회복적정의 조정자 훈련 평가, 서대문구 진행자 훈련 기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갈등해결센터 브로셔 제작 아이디어 논의 등
- (3) 제3차: 3/24(월) 18:00~20:30. 활동보고, 참고육학부모회 대화모임 실행계획서 검토, 11기 강사트레이닝과 회의진행자 훈련 구성, 갈등해결센터 브로셔 제작 아이디어 논의 등
- (4) 제4차: 4/30(수) 18:00~21:00. 활동보고, 세월호 사태에 대한 갈등해결센터의 대응, 수업에서 다루기, 토래조정 사업 논의 등
- (5) 제5차: 5/26(월) 18:00~23:30. 활동보고, 회복적정의 피해기에 대화모임 및 청소년평화교육프로그램 예산,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 열린토론 참가 의견 등
- (6) 제6차: 6/30(월) 18:00~21:00. 활동보고, 교육부 토래조정사업 진행현황 공유, 상반기 사업평가를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11기 강사트레이닝 참관 및 시연실습 일정, 청소년 교육 진행자 모임 등
- (7) 상반기평가 워크숍: 8/4(월) 10:00~18:00. 2014년도 상반기 활동보고, 상반기 사업평가, 조직구조에 관한 논의, 하반기 사업 제안 등

- (8) 제7차: 9/22(월) 18:00~20:30, 활동보고, 청소 1 평화교육팀과 교구제작팀 활동공유, 수요증 발급 기준에 관한건, 대서중학, 포레조장치 방문 건 등
- (9) 제8차: 10/20(월) 18:00~20:30, 활동보고, 청소년 평화감수성 프로그램, 11기 추후 교육활동,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의견 등
- (10) 제9차: 11/14(금) 18:00~20:00, 활동보고, 2014년도 사업평가 방법, 운영위원회 MT프로그램 논의 등
- (11) 하반기 평가 워크숍: 12/5(금)14:00 ~ 6(토) 11:00, 연건활동보고 및 평가, 조직과 역할에 대한 논의, 교육체계에 대한 제안 및 논의 등

3) 사무국회의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 참석: 김선혜, 명희, 이주원

4) 평가

- 사무국이 자리잡혀 회의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운영위원이 충원되고 회의가 정례화 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위원의 활동 참여율이 개인차가 크고, 학교평화커뮤니티 부문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현재 센터 사업의 정보 공유와 논의가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2.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

<2014년 사업계획>

- 1) 평화교육, 포레조점,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을 학교별로 코디네이터가 추진(연중)
- 2)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2-1. 교사.학부모 교육

연번	지역	학교/기관	대상	회차	시간	내용(주제)	인원	장소	강사
1	경기	고양성리초	학부모	1		평화커뮤니티 피해가해대화모임			이덕경
2	경기	고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1		김동해정의 기분이해	13	저동학교	여해숙
3	부산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상담지원 봉사자	3	24	회복적정의조 정자훈련	20	부산옥수 원	김선혜, 박수선
4	부산	부산교육청	상담교사 및 생활지도 부교사	5	30	회복적정의조 정자훈련	44	부산정보공 고	김선혜, 김 영진, 박수 선, 이덕경
5	부산	부산교육청		2	8	회복적정의조 정자훈련 심화워크숍	70	청룡리 트	김선혜, 이 덕경, 박수 선
6	경기	포천초	교사	5		교실 내 갈등다루기	10		김선혜, 여해숙
7	경기	부원밖고	교사	5	16	회복적 정의		부원밖 고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박수선
8	경기	부원초	교사	1		비폭력의사 소통(회복적 생활지도)	40		이덕경
9	경기	의정부 천보중	교사	1		도래조정 소개			김진희
10	경기	고양교육 지원청	학생상담 봉사자, 도래조정 지도교사	4		도래조정 소개			김선혜, 여해숙
11	경기	파주교육 지원청	학부모	2		도래조정 소개, 회의진행			김선혜
12	경기	안양참교 육학부모 회	학부모	2		회복적정의 소개 교육	12		김선혜
13	인천	신송초	교사	1		도래조정 소개			김영진
14	경기	부원초	교사	1					여해숙
15	경기	용인성 성산초	교사	1	2		25		이덕경, 김영숙, 여해숙

연번	지역	학교/기관	대상	회차	시간	내용(주제)	인원	장소	강사
16	경기	과천화양초	교사	1	3	갈등해결교육	25	여름초등학교	이혜숙
17	경기	양주회천중	교사	2	8	갈등, 조정	15	도서관	김명진, 박민혜
18	경기	용인성신초	학부모	1	2	갈등해결교육	60		이혜숙, 박민혜
19	경기	양주회천중	교사	1		포레조정	7	도서관	김영진
20	인천	방축중	교사	1	1		25	시청각실	김영진
21	경기	고양세원고	교사	1		회복직정의 소개	45	강당	염금옥
22	경기	양주덕계고	교사	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30	수준교실	이덕경
23	서울	오류남초	교사	2	4	갈등해결교육			김선혜

2-2. 포레조정

연번	지역	학교급	학교	지속여부	회차	시간	포레조정	인원	장소	강사
1	인천	초	신송초	3년차	12	24	기본	19	이순실, 조실	김명진, 채지영
2	인천	초	능허대초	신규	6	19	기본/추수지도	25		이덕경, 이은영
3	인천	고	생과고	2년차	12	24	기본/심화	30	예인당, 조리과 교실	김명진, 이은영
4	경기	중	과천중	신규	12	24	기본/추수지도	12		이덕경, 김진희
5	경기	중	용인나곡중	신규	5	15	기본	20	wee센터	김명진
6	인천	초	완월초	신규	4	8	기본	30		이덕경, 이은영
7	서울	중	민수중	2년차	8	30	기본/추수지도	6	지정교실	이덕경
8	경기	중	분당형술중	2년차	6	16	기본	13	지정교실	유은주

연번	지역	학교급	학교	지속여부	회차	시간	토레조정	인원	장소	강사
9	경기	중	구리인창중	2년차	4	21	기본/심화	19	교실, 방과후교실	유은주
10	인천	고	단수고	신규	3	6		14	지정교실	이은영
11	경기	고	불곡고	2년차	8	24	기본/심화	30	지정교실	김영진, 채지영
12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1권역	신규	2	8	기본	50	상영초	김영진, 김진희
13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2권역	신규	2	8	기본	50	원일초과학실	이덕경, 이은영
14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3권역	신규	2	8	기본	50	여월초	김영진, 김진희
15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4권역	신규	2	8	기본	50	상인초	김진희, 김진, 김
16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5권역	신규	2	8	기본	50	중흥초교실	박인혜, 유은주
17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6권역	신규	2	8	기본	50		이덕경, 이은영
18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7권역	신규	2	8	기본	50	약대초	박인혜, 유은주
19	경기	초	부천형교육지원형 8권역	신규	2	8	기본	50	임신초교실	박인혜, 유은주
20	경기	중	부천성주중	신규	3	16	기본/추수지도			이덕경
21	인천	고	부천여고	신규	4	12	기본	21		정상희, 명희
22	경기	고	성남방송고	신규	6	20	기본	15	wee센터	유은주
23	경기	고	능곡고	신규	5	15	기본	12	wee센터	채지영
24	강원	중	강릉중	3년차	4	15	기본			이덕경, 정상희
25	경기	중	수원제일중	신규	4	10	기본	18		엄금옥
26	서울	중	관악중	3년차	5	15	기본/심화	24	사회교과실	김영진, 김진희
27	경기	초	부천부원초	신규	4	12	추수지도	23	미술실, 도서실	유은주, 이덕경

연번	지역	학교급	학교	지속여부	회차	시간	도래조건	인원	장소	강사
28	경기	고	삼일상고	신규	1	3	실습	28	영어교실	유은주, 유은숙
29	경기	중	파주지역고 (동태중, 신유중, 해곡중)	신규	3	15	기본	36	동태중	이덕경, 김진희
30	인천	고	미추홀외고	2년차	3	20	기본	30	지정교실	이덕경, 이은명
31	강원	고	춘천소양고	2년차	3	15	기본	10		전상희
32	경기	초	부안초	신규	2	6	기본	21	지정교실	김영진
33	경기	고	부천범박고	신규	2	12	심화/실습	8	도래조아리점	전상희
34	인천	고	송내고	신규	1	7	심화	10		이덕경, 김진희
35	경기	중	의정부부천로중	신규	4	16		46	지정교실	이덕경, 김진희, 양영
36	경기	중	안산반월중	신규	2	10	기본		지정교실	유은주
37	강원	중	평원중	2년차	1	5	실습	15	수학교	전상희
38	경기	초	부천남초	신규	2	6	기본/실습	19	지정교실	김영진
39	경기	중	부천부인중	신규	6	12	기본	30	지정교실	이덕경, 김진희
40	서울	중	이대부중	3년차	1	6	심화	10		김진희, 이은영
41	서울	중	이대부중	3년차	3	15	기본	12	wee센터	이은명
42	경기	중	성북중	2년차	1	5		11		여혜숙
43	경기	고	선부고	2년차	6	11	심화	14	회의실	이은명
44	경기	중	파주중	신규	3	6	실습		음악실	유은주, 유은숙, 유은영
45	경기	고	향일고	2년차	1	3	실습			유은주, 유은영

연번	지역	학교급	학교	지속여부	회차	시간	도래조정	인원	장소	강사
46	서울	고	연남고	2년차	1	3	실습	22	시청각실	이덕경
47	경기	초	용인초	신규	6	17	기본	12	wee센터	채지영
48	인천	초	장수초	신규	8	16	기본	12	wee센터	이은영
49	인천	초	청일초	신규	8	16		15	과학실	김진희
50	강원	중	횡성중	신규	3	15	기본	11	도서실	김정아
51	경기	고	서해고	신규	1	2	실습		운영위원회	유은주
52	경기	고	분당중양고	신규	2	15	기본	28	음악실	유은주
53	경기	초	통일초	신규	2	8		12	지정교실	김진희
54	인천	중	신흥중	2년차	2	4	실습	17	시청각실	김영진, 유은주
55	경기	중	용인고림중	신규	4	15	기본	19	학습분석실	유은주
56	경기	고	회계원고	2년차	2	6	실습	19	도서실	김정아
57	경기	중	임곡중	신규	2	6		20		이덕경, 김진희
58	경기	고	동백고	신규	2	5	심화/실습	14	wee센터	채지영
59	인천	중	용현중	신규	2	5	실습	38	도서관	김영진
60	인천	중	방축중	신규	2	4	실습	9		김영진
62	경기	고	부천정보산업고	신규	2	4	실습	14	위클리스	이덕경

2-3. 그 외 청소년 교육

연번	지역	기관/학교	대상	회차	시간	주제	인원	장소	강사
1	서울	구이현지역 청소년교	지역 아동	11	33	갈등해결의 조정	90	그루터기, 운세, 우산, 푸르미, 평화의만들기, 새송이, 푸른학교, 심성기초, 지구촌, 파랑새지역 아동센터	이진희, 김경민, 김희영
2	서울	신서고		3	6	의사소통	280	2학년 각 교실	김정아, 최영미, 이우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안영민
3	서울	영등초	일월	1	2	일원수련회	70	각반교실	김진희, 김희영, 안영민, 최영미, 이우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4	서울	북원수련회	일원수련회	1	2	포레조정 소개	90		김진희, 김희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5	인천	인천생과		1	2	학교폭력 예방교육	240	1학년 각반교실	김진희, 김희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안영민, 최영미, 이우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6	서울	성동공고	일원수련회	9	18	갈등해결	9	2-4교실	김진희, 김희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7	경기	강주회천중		1	3	갈등해결	240	2학년 8개 반	김진희, 김희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안영민, 최영미, 이우영, 김민정, 김유아, 김유진, 김유영
8	경기	부현원초		1	2	교실 내 갈등해결	30	4-5교실	이진희, 김경민, 김희영

연번	지역	기관/학교	대상	회차	시간	주제	인원	장소	강사
9	경기	영성영양초		1	2	의사소통	27	양진초 제2캠퍼스	유은주
10	경기	고양양초	4,6학년	3	6	의사소통	120	자반교실	김진희, 이덕경
11	경기	수원재일중		4	12	회복적 생활교육	12	수원재일중 도서관	유은주
12	경기	부천부인초		1	3	회복적 생활교육	330	지정교실	김명진, 이희, 김진희,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13	경기	밀양하늘초		1	2	회복적 생활교육	55	시청각실	김명진
14	경기	동두천초		1	1	의사소통			김진희
15	경기	부천송내고		1	2	의사소통	31	시청각실	김명진
16	경기	광명중	1학년	2	4	의사소통		광명여중 교실	유은주
17	경기	의정부부중		2	4	평화감수성 프로그램	85		이덕경, 김진희
18	경기	성남정초		1	3	갈등해결	23	지정교실	김명진
19	경기	시흥은계중		1	2	의사소통	32	도서관, 미술교과지원실	김명진, 이은영
20	경기	성남서초		1	2	의사소통		지정교실	김명진, 김진희, 이은영, 채지영
21	경기	파주문산중		1	2	교실 내 갈등해결	378		전상희
22		김포성의전화	김포내동초등학교 학생	1	2	친화놀이	28	김포 청소년수련관	이덕경
23	서울	녹천중	1학년 6반	4	8	갈등해결	20	01-06교실	이덕경, 김진희
24		천도교생명평화연구소	중학생	1	2	갈등해결	40	인제생명평화동선	이덕경, 김진희

연번	지역	기관/학교	대상	회차	시간	주제	인원	장소	강사
49	경기	안양대인어중	2학년 7개반	1	1	갈등해결	266	각반교실	이덕경, 김진희, 김지은, 채은주, 신희
50	경기	용인용중	학생 회원	1	2	갈등해결	20		엄금옥
51	경기	진접중	2학년 6개반	1	2	갈등해결 과 평화	240	각반교실	김정아, 엄금옥
61	경기	부천 익산고	1학년 3개반	1	2	포레조정 소개	100	각반교실	이덕경, 김진희, 김진은

2-4. 학교 내 대학모임

1) 의정부 **중학교 대학모임

- 일시: 2014년 7월 1일
- 주제: 대학모임
- 참석자: 당사자 2명
- 진행자: 이덕경, 전상희

2) 경기도 화성 **초등학교 예비조정

-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 진행: 김선혜, 고유성(참교육학부모회)
- 비고: 참교육학부모회 의회 조정

3) 일산 **중학교 대학모임

- 일시: 2014년 9월 ~ 10월
- 진행: 여희숙, 김금주(참교육학부모회), 이덕경
- 내용: 학급 전체 대외로 진행

4) 일산 **중학교 대화모임

- 일시: 2014년 12월
- 진행: 여혜숙, 이덕경, 김진희
- 내용: 학급 전체 대화로 진행

2-5. 청소년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팀 회의

1) 1차 회의

- 일시: 2014년 2월 11일(화) 11:00~14: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미래방
- 참석: 김영진, 김진희, 유은주, 명희 (총 4명)
- 내용: 청소년 평화감수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모으기, 청소년 평화교육 프로그램(안) 구성해보기,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논의, 팀명 정하기

2) 2차 회의

- 일시: 2014년 5월 16일(금) 10:00~12:00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김영진, 유은주, 명희, 김진희
- 내용: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세부 프로그램 만들기

3) 3차 회의

- 일시: 2014년 5월 29일(목) 10:00~13: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진희, 유은주, 명희
- 위임: 김명진
- 내용: 초, 중등 6회차 12교시 교안 작성

4) 4차 회의

-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16:30~18:1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영진, 김진희, 유은주, 명희
- 내용: 찾아가는 갈등해결과교육 기획안 검토와 향후 계획논의

2-6. 기타 회의

- 1) 인천생활과학고 교육기획회의(구성: 김영진, 김진 1,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전상희, 명희)
 - (1) 1차: 2/11(화) 14:00~17:00, 대상의 특성에 관한 논의, 교육계획안 검토 및 수정, 향후 계획 수립
 - (2) 2차: 2/25(화) 13:30~17:00, 교육계획안 검토 및 수정, 진행 관련 논의 등
 - (3) 3차: 3/5(일) 15:00~17:00, 인천생활과학고(사)학교 1, 3학년 공동해결과 평화교육 활동지 논의 등

- 2) 신서고등학교 교육기획회의
 - 일시: 2014년 3월 11일(화) 10:00~13: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미래방
 - 참석: 김정아,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 3) 부천시역 2권역 토레조정 운영을 위한 컨설팅 교사 간담회
 - 일시: 2014년 5월 24일(토)
 - 강사: 이덕경, 이은영

- 4) 교구제작팀 회의
 - (1) 1차 회의
 -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15:30~16:3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진희, 유은주, 명희
 - 위임: 전상희
 - 내용: 교구제작팀의 목적, 교구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 (2) 2차 회의
 - 일시: 2014년 10월 31일(금) 10:00~11:00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김진희, 명희, 유은주, 전상희
 - 내용: 그림카드와 감정단어카드 제작 및 역할분담
 - (3) 3차 회의
 - 일시: 2014년 10월 31일(금) 10:00~11:3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그림카드와 감정단어카드 제작 및 역할분담
- 참석: 김진희, 명희, 유은주, 전상희

(4) 4차

-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10:00-11:3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진희, 명희, 유은주
- 내용: 그림카드와 감정단어카드 등 제작관련 논의

(5) 5차

- 일시: 2014년 12월 30일(화) 14:30-16: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진희, 명희, 유은주, 전상희
- 내용: 그림카드와 감정단어카드 진행사항 확인 및 논의

5) 부산교육청 집단따돌림 대책 심포지엄

- 일시: 2014년 11월 10일(월) 14:00
- 장소: 부산교육대학교
- 주최: 부산검찰청, 부산교육청
- 참석: 김선애(발제)
- 내용: 현장의 목소리로 대안을 모색하다

2-7. 평가

청소년 교육과 교사·부모 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모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학교에서 정제와 처벌이 아닌 다양한 평화적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센터는 훈련된 인력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었다. 청소년캠프를 대신할 수 있는 청소년평화감수성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하여 기획안을 구성하였으나, 겨울방학에 실행하게 되어 차기 년도로 사업이 미뤄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센터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교육은 교육 당국의 정책과 맞물려 양적 증가를 보였으나, 경기·인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고, 교육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등 센터가 기대하는 교육의

필을 담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교·강사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
 지 학교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는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2014년 사업계획>

- (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연 회)
- (2) 진행전문가 훈련 (연2회)
- (3) 조정전문가 훈련 (연1회)
- (4) 회복적 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조정전문가 훈련 (연1회)
- (5)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연중)

3-1.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1) 11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 일시: 2014년 6월 13일(금)-7월 26일(토)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5(4F), 시청각실(4F), NGO열린마당(2F)
- 참석: 26명(수료: 23명)
- 강사: 강순원, 김선혜, 김영진, 김정수,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전상희
- 후원: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1) 교육기획회의 (구성: 김선혜, 김영진,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전상희)

- 1차: 3/27(목) 11:00~15:00,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서울시여성발전기
 금 강사트레이닝의 수업 목표와 구성에 관한 논의
- 2차: 4/7(월) 13:00~15:30, 수업계획 세부내용 구성에 관한 논의
- 3차: 4/19(토) 16:30~17:30, 교육과정 세부계획안 논의
- 4차: 5/3(토) 10:00~14:30, 세부계획안과 역할분담 논의
- 5차: 5/10(토) 10:00~14:30, 수업준비물과 시나리오 점검 등
- 6차: 6/4(수) 13:00~18:00, 교육진행관련 점검, 인큐베이팅 논의, 수업계획
 안 검토 등

(2)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2014년 4월 14(월) 18:00~20: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김전혜, 김영진, 이지혜, 성희경, 최은경, 한봉순, 명희, 이주원
- 내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갈등해결 역량, 학생(청소년)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식, 학교와 외부기관과 지역공동체의 만남에
서 고려해야할 점 등

(3)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실무자 워크숍

- 일시: 1차 - 2014년 3월 31일(월) 09:30-12:00
2차 - 2014년 7월 9일(수) 09:00-12:00
- 장소: 1차-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2차-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 참석: 명희, 이주원

(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장방문

-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50 ~ 11:30
- 장소: 광명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
- 내용: 조사원(1인)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지 확인 평가.

(5) 교육내용

가. 기초과정

- 가) 1강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나누기
- 나) 2강 갈등과 갈등해결에 대한 이해
- 다) 3강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 라) 생생 Talk - 갈등과 폭력 시대의 나의 흑역사
- 마) 4강 심재 관심사 찾기
- 비) 5강 불통! 교통! 소통!
- 시) 6강 대화의 끈을 이어주는 조정, 조정자

나. 심화과정

- 가) 1강 대화의 끈을 이어주는 조정, 조정자
- 나) 2강 조정 실습
- 다) 3강 평화도 배워야 한다 - 평화와 평화교육
- 라) 4강 폭력에 민감해지기
- 마) 5강 평화로운 학교만들기키 어제와 오늘
- 비) 6강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나 못하는- 존중하며 듣고 말하기
- 시) 7강 화내면 나쁘다? No~ 분노다루기
- 아) 8강 성장통? 반인반수! 청소년은 누구?

- 자) 9강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교육진행과 설계
- 차) 10강 즐겁게 참여하는 교육활동
- 카) 11강 갈등해결이 여성주의를 만나면?
- 타) 12강 불통에서 소통으로 반목에서 협력으로
- 파) 시연실습

(6) 인규베이딩

가. 기획회의

(구성: 김명진, 명희, 이경숙, 이덕경, 이주우, 이주원, 한명리, 한탁영)

- 가) 1차: 8/10(일) 13:00~14:30,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강사의 준비, 역할 분담, 향후 일정 등
- 나) 2차: 8/27(수) 19:00~21:30, 교육 세부기획안 검토, 향후 일정 점검 등
- 다) 3차: 9/2(화) 11:00~15:00, 시연실습, 향후 일정 점검 등
- 라) 평가회의: 10/20(월) 15:00~17:00, 강사드레이닝 과정 및 인규베이딩 과정 평가

나. 인규베이딩 과정

가) 광명초등학교

- 일시: 2014년 9월 15일(월), 16일(화), 18일(목)
- 장소: 광명초등학교 6학년 6개반
- 진행자: 김명진, 김정아, 이덕경, 유은주, 전상희
- 참가자: 이경숙, 이주원, 한명리, 한탁영

나) 하안북초등학교

- 일시: 2014년 9월 25일(목), 29일(월)
- 장소: 하안북초등학교 각 반 교실
- 참가: 하안북초등학교 4학년 3개반 각 2시간, 1개반 4시간 / 5학년 3개반 2시간씩
- 진행자: 김명진, 김진희, 유은주
- 참가자: 이경숙, 이주우, 이주원, 한명리, 한탁영

2)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도래조정자 강사양성과정

- 일시: 2014년 5월 20일~6월 19일(월~금) 09:30~13:30
- 장소: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실
- 참석: 성인 19명

- 강사: 김선혜, 김영진, 박인혜, 이덕경, 전상희

(1) 교육기획회의 (구성: 김선혜, 김영진,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전상희)

- 1차: 3/27(목) 11:00~15:00.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강사프레이닝의 수업 목표와 구성에 관한 논의
- 2차: 4/7(월) 13:00~15:30. 수업계획 세부내용 구성에 관한 논의
- 3차: 4/19(토) 16:30~17:30. 교육과정 세부계획안 논의
- 4차: 5/3(토) 10:00~14:30. 세부계획안과 역할분담 논의
- 5차: 5/10(토) 10:00~14:30. 수업준비물과 시나리오 점검 등

(2) 교육내용

- 프로그램에대한기대나누기, 갈등과갈등해결교육이해
- 갈등과 갈등해결이해, 다양한 갈등해결방법
- 갈등분석하기
- 의사소통의 기초(듣기와 말하기)
- 다양한 대안탐색의 방법(의견나누기와 결정)
- 폭력의 개념과 영향,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 평화의 개념과 평화형성의 다양한 방법
- 조정의 이해와 원칙, 조정지역할, 조정의과정과절차
- 이야기하기와 조정자의 의사소통, 강한 감정 다루기
- 쟁점정리와 대안 탐색 및 합의와 합의문 작성
- 조정과정 전체실습 1
- 조정과정 전체실습 2. 조정자의 윤리
- 청소년의 행동 특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평화교육과 진행자의 역할, 관점과 태도
- 또래조정 이해와 적용 - 실습지도방법, 교육기획안 작성하기 1
- 수업기획안 작성하기 2
- 수업기획안 작성과 발표, 검토/적용계획 세우기

3) 행복학교를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개발 워크숍

- 일시: 2014년 12월 12일 9:00~16:00
- 장소: 은평구 평생학습관
- 진행: 김선혜
- 참가자: 회복적정의 조정자 양성과정 참가자 중 신청자 10명

3-2. 진행전문가 훈련

1) 서대문 구정참여사업 회의진행자훈련

- 일시: 2014년 9월 16일 - 10월 21일 매주 화 18:30-21:20, 10월 25일 (토) 10:00-17:00
- 장소: 로하스A플렉스(이대역 4번출구)
- 참석: 20명(수료:12명)
- 강사: 김선혜, 박수선, 전상희
- 교육내용:
 - 가. 진행과 진행자의 역할
 - 나. 진행의 기초
 - 다. 진행과 커뮤니케이션 1
 - 라. 진행과 커뮤니케이션 2
 - 마.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 1
 - 바.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 2
 - 사. 의사결정 기법
 - 아. 종합실습

(1) 1차 기획회의

- 일시: 2014년 3월 21일(금)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김선혜, 김은실, 박수선, 이경순, 이현주, 전상희, 최연희, 명희, 이주원
- 내용: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어려움, 진행자 교육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과 고려해야 할 점 등

(2) 2차 기획회의

- 일시: 2014년 6월 30일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미래방
- 참석: 김선혜, 전상희, 김복남(박민내일), 오정익(열티즌), 명희, 이주원
- 내용: 진행자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수요조사 대상자 및 진행자 추천 등

(3) 회계교육

- 일시: 2014년 3월 20일 15:30-16:30
- 장소: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참석: 명희, 이주원
- 내용: 서대문구청 지원 사업 회계담당자 운영지침 교육

(4) 중간평가회의

-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16:30~17:30
- 장소: 로하스a플렉스
- 참석자: 김선혜, 박수선, 방송희, 전상희, 전성자, 이주연(배석)
- 내용: 서대문 회의진행자훈련 교육내용 평가 및 향후 수업 논의 등

(5) 평가회의

- 일시: 2014년 11월 11일(화) 19:00~20: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내용: Facilitator 훈련 교육 과정 및 내용 평가, 개선방향, 지역사회 적용방안 모색 등
- 참석자: 김선혜, 박수선, 전상희, 전성자, 이주연(배석)

(6) 최종 평가회의

- 일시: 2014년 12월 8일(월) 19:00~21:00
- 장소: 종로 도즈
- 내용: 회의진행 경험나누기, Facilitator 훈련에서 다루어야 할 점, 적용과 확대를 위한 의견 등
- 참석자: 김선혜, 박수선, 전상희, 방송희, 박지호, 서은성, 이주연(배석)

2)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진행자 훈련

- 일시: 2014년 5월 10일~31일 매주 토요일 09:30~13:30 총 16시간
- 장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참석: 13명
- 강사: 김선혜, 여혜숙
- 내용: 진행자의 역할, 진행의 기초세우기, 의견모으기, 진행과 커뮤니케이션, 회의진행 실습, 종합실습

3-3. 조정전문가 훈련

1) 여성정치연맹 이웃 간 분쟁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자 훈련

(1) 기획회의 (구성: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 1차: 5/3(토) 14:00,
- 2차: 5/24(토) 20:00, 각 차수별 교육프로그램 기획
- 3차: 7/28(월) 20:00, 상반기교육 평가, 심화과정 논의

(2) 교육내용

가. 기본과정

- 일시: 2014년 5월 23일-9월 22일
- 장소: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평생학습원 등
- 대상: 서울, 경기, 광주, 청주, 대구 지역 주민 15명
- 주제: 이웃 간 분쟁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자 훈련
- 강사: 김선훈,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나. 심화과정

- 일정: 2014년 11월 7,8,9일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갤러리 4
- 진행: 김선훈,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 참석: 20명
- 내용: 이웃 간 분쟁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자 훈련과정

2)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조정자훈련

- 일시: 2014년 6월 14일~7월 12일 매주 토 09:30-13:30 총 20시간
- 장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대상: 직장여성 14명
- 강사: 김선훈, 이경순, 이덕경
- 내용: 조정이란 무엇인가, 조정의 과정 및 단계, 조정자의 기술(갈등분석, 의사소통, 아이디어 모으기), 조정실습

3-4. 회복적 정의 조정자훈련

1) 제 7기 회복적 정의 조정자훈련

- 일시: 2014년 2월 7일(금), 8일(토), 14일(금), 15일(토) 09:00-18: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NGO얼린마당, 아트갤러리3(2/15)
- 참석: 14명(신규 10명, 재참가 4명, 수료 11명)
- 강사: 김선훈, 박수선, 이경순, 이덕경 (심습지도: 김영진, 이덕경)
- 교육내용

가. 1강 소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나누기

나. 2강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다. 3강 회복적 정의의 실제

- 라. 4강 조정과 조정자의 역할
- 마. 5강 조정기술 1 - 의시소통
- 바. 6강 조정기술 2 - 갈등분석
- 사. 7강 조정기술 3 - 대안 탐색과 합의
- 아. 8강 대화모임의 과정
- 자. 9강 단계별 연습 1 - 준비와 도입단계
- 차. 10강 단계별 연습 2 - 이야기하기와 듣기
- 카. 11강 단계별 연습 3 - 대안탐색과 합의
- 타. 12강 피해-가해 대화모임 종합 실습 1
- 파. 13강 피해-가해 대화모임 종합 실습 2
- 하. 14강 회복적정정의 현장 적용. 마무리

(1) 기획회의

- 가. 2차: 1/8(수) 10:30-15:00. 교육운영과 진행에 관한 논의, 교재 및 시나리오 구성, 부산교육청 회복적 정의 조정자훈련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 등
- 나. 3차: 1/20(월) 19:00-22:00. 교육기획안 검토 및 수정의견, 시나리오 검토, 부산교육청 회복적정의 조정자훈련 교육내용과 역할분담 등
- 다. 4차: 2/4(화) 13:00-17:30. 수업기획안과 시나리오 검토, 부산교육청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 교육 내용과 역할분담 등
- 라. 5차: 2/23(일), 부산교육청 회복적 정의 조정자훈련 심화워크숍 교안 논의 등
- 마. 평가회의: 3/6(목) 11:00-12:30. 회복적 정의 조정자훈련 교육 내용 평가

2) 은평명생학습관, 행복학교를 위한 회복적정의 조정자 양성

(1) 기본과정

- 일시: 2014년 9월 24일, 10월 1, 8, 15일 매주 수요일 10:00-13:00
- 장소: 은평구 평생학습관
- 참석: 24명(수료: 18명)
- 진행: 김선혜, 여혜숙

(2) 심화과정

- 일시: 2014년 10월 22일-11월 12일 매주 수요일 10:00-13:00
- 장소: 은평구 평생학습관(6호선 역촌역 1,2번 출구)
- 참석: 17명(수료: 4명)
- 진행: 김선혜, 여혜숙

3-5. 지역사회의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1) 교육활동

연번	기관	대상	회차	시간	내용(주제)	인원	장소	강사
1	대전평화여성회 조정자문연	교육신청자	1	4	조정자문권 실습	10	대전평화여성회 교육장	김선혜
2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	3	24	희복적정의 조정자문연	20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교육장	김선혜, 박주선
3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 센터 직원교육	1	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20	경기북부센터 사무실	김선혜
4	연문중재위원회	ADR기관 직원	1	4	조정민을 위한 조정기법	24	연문중재위 원회의 교육장	김선혜
5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	14	42	평화와 갈등해결 (교양선택)	40	서울여자대 학교	김선혜
6	서울가정법원 특색있는학교 만들기	학교장	1	1	화해권고 소개	80	서울가정법 원	김선혜
7	부산교사연구 회	교사	2	12	희복적정의	30	부산교육정 보원	김선혜, 강미라, 부부실현)
8	경기두레생활	임원	1	2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12	강화 검안도 원전	김선혜
9	평택 오산 아이들	임원	1	4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7	서울여성플 라자	김선혜
10	부산 교사 정책연구회 연수	교사	1	6	RC	4	주례중학교 (부산)	김선혜
11	서울여성가족 재단	시민	1	2	성평등시민 강화와-랜드 커뮤니케이 션	25	원광유린중 학사의복지 관,광구지역 사회복지협 의회	이덕경, 김영진

연월	기관	대상	회차	시간	내용(주제)	인원	장소	강사
12	부천교육봉사회	회원	4		갈등이해·의사소통	25	부천평생학습원	박인희, 이덕경
13	부천교사연수	교사	8	16	회복적정의	10	부천법박고	김선혜, 최진희, 이영순
14	여성환경연대	인직원 교육활동가	1	3	갈등대응유 결론과 의사소통	20	여성성공센터	김선혜
15	성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연인	4	26	갈등해결	30	성북평생학습관	김선혜, 최진희, 이영순
16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	12	미래초정강사 기초과정	15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김선혜, 이덕경
17	부산희망세상	교육강사	2	7	평화교육진 행자 교육	7	부산스드나루 도서관	김선혜, 유혜숙
18	인생이모작센터	경로당코 디네이터	6	18	직무역량 향상교육	20	인생이모작 센터교육장	김선혜
19	파주교육지원청	학부모	4	18	회복적정의 조정자훈련	30	파주교육지 원청과학자 원2층 과학실	김선혜, 유혜숙, 전상희
20	은평마을활동가교육	은평마을 활동가	5	18	소통과 갈등이해	20	은평중앙마당	김선혜
21	남북평화재단 부천지원부	시민	4	8	소통· 유대· 협력 할것인가	17	부천제과교회	김선혜
22	구로시민자활센터	협동조합 실무자	1	5	인간관계 개선 방법 해결	5	구로시민자 활센터	이덕경
23	구로시민자활센터	협동조합 실무자	3	3	주민참여 초정 상화과정	8	구로시민자 활센터	이덕경

2) 현장활동

(1) 사법영역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활동

가. 화해권고위원

- 김선혜, 김영진, 박상희, 박수선, 박인혜, 박진, 안향숙,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정원주, 조영희, 김진희, 유은주, 채지훈, 이은영

나. 가사조정위원: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2) 세월호 참사 애도와 성찰을 위한 대화모임

가. 세월호 참사 애도와 성찰을 위한 대화모임

- 일시: 2014년 5월 13일(화), 20일(화), 29(목) 1:00-19: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 진행: 김선혜

나. 서대문 마을넷 '세월호 애도 서클' 진행

- 일시: 5월 19일(월) 2시간
- 장소: 탁탄내일 강당
- 참석: 마을넷 회원 24명
- 진행: 김선혜

다.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인 열린토론

- 일시: 2014년 5월 31일(토)
- 장소: 안산문화광장
- 참석: 김선혜, 김영진, 엄금옥, 여혜숙,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 내용: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인 열린토론 진행자로 참여

라. 세월호 참사 안산지역 활동단체 워크숍 진행

- 일시: 2014년 6월 24일 13:30-18:00
- 장소: 안산글로벌 다문화센터
- 참석: 김선혜(진행)
- 내용: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논의

마. 안산 대화모임 (피네트워크 공동사업)

- 일시: 2014년 10월 11일(토) 18:00-21:00, 11월 23일(토) 18:30-20:30
- 장소: 안산
- 참석: 안산시 일동 여성, 엄마 모임 회원 15명
- 진행: 여혜숙, 김영진
- 내용: 세월호 관련 느낌과 소감 나누기 등

(3) 조정

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조정

- 활동기간: 2013년 12월 ~ 2014년 4월
- 조정단: 박수선, 김희경, 이경순
- 내용: 서울시의 주택건설계획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사이의 갈등 명함 분석 후 종료

(4) 국민대통합위, 2014국민대토론회

- 일시: 2014년 10월 11일~ 11월 16일
- 장소: 서울, 광주, 대전, 부산
- 내용: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 참석: 박수선(진행), 김선혜, 김지선, 전상희(의제분석)

3-6. 기타

1) 퍼실리테이션 설명회 참석

- 일시: 2014년 2월 22일(토) 13:30~16:30
- 장소: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 참석: 명희
- 주최: 쿠퍼퍼실리테이션그룹
- 내용: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와 적용사례, 교육과정안내, Q&A

2) 서울인생이모작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 일시: 2014년 3월 5일(수) 14:30~16:00
- 장소: 서울 시청 8층 다목적실
- 참석: 이주원
- 내용: 5060 정책토크쇼

3) NPOpia 공익경영아카데미 참석

- 일시: 2014년 3월 27일 ~ 5월 22일 매주 목요일 15:00~18: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갤러리, 세미나실
- 참석: 명희
- 내용: 공익리더과정: 후원자는 어떤 단체를 원하는가, 숫자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누가 책임자인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잘 알릴

것인가, 나는 전략가인가 혁신가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등

3-7. 평가

11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서대문여성인턴개발센터 또래조정 강사양성 과정, 지역사회 리더를 위한 Facilitator훈련, 이웃 1인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자 훈련 등 전문가 양성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외부 3명의 피해가해대화모임 조정자 훈련이 부산지역에서 교사와 지역사회 주민, 사립사교육장 소속 교사, 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자,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은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다.

Facilitator훈련 참가자들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열린 '2014 국민대토론회'에 진행자로 참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회복적 대화모임을 회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등 교육과 현장의 결합도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영역에서 회원들이 화해연고위원과 가사조정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어 회복적정의 실현 역량이 확장되었다.

강사트레이닝은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센터의 활동 강사로 활용인력이 유입되지 않았다. 이는 강사트레이닝의 목표, 활동 강사의 충원 방안 등 내부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연구·정책사업

<2014년 사업계획>

- (1) 강사트레이닝 후속모임 매뉴얼 개발
- (2) 평화교육 강사 워크숍 (연2회)
- (3) 평화교육, 회복적 학생지도 등 정착화를 위한 홍보 및 연대
- (4) 자문회의, 현장 전문가 간담회
- (5) 수요자 중심 교육 모델 개발
- (6)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4-1. 평화교육 강사 워크숍

1) 청소년 평화교육 진행자 모임

(1) 1차 모임

- 일시: 2014년 7월 18일(금) 18:30~21:30

- 장소: 여성플라자 4층 아트갤러리 3
- 참가: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임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명희, 이주원
- 내용: 청소년평화교육 진행자로서의 필요, 교육진행자와 센터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등

(2) 후속모임

- 일시: 2014년 7월 31일(목) 14: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가: 김영진, 전상희, 명희
- 내용: 청소년 교육 진행 매뉴얼 등

2) 청소년 평화교육 진행자 운영체계 논의팀 회의

- (1) 1차: 2014년 12월 14일(일) 15:00~17:3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전상희, 명희, 청소년 평화교육 진행자의 요구와 자격, 훈련 및 역량강화 방안, 교육체계 논의
- (2) 2차: 2014년 12월 16일(화) 15:00~17:0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전상희, 명희, 이주원, 연간 교육과정 논의, 준 강사 체계 및 강사 관리 체계 논의
- (3) 3차: 2014년 12월 30일(화) 12:00~15:3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전상희, 명희, 이주원, 연간 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 논의

4-2. 평화교육, 회복적 학생지도 등 정책화를 위한 홍보 및 연대

1) 참교육학부모회 MOU 체결 및 학부모포럼

- 일시: 2014년 3월 12일 13:30~15:30
-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7층 회의실
- 참석: 김선혜, 김진희, 이덕경, 명희, 이주원 (총 5명)
- 내용: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활동 업무협약

4-3. 자문회의, 현장전문가 간담회

1) 학교폭력 해결 절차에서 회복적 접근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 간담회

- 일시: 2014년 2월 6일(목) 16: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원운매(금혼교), 진민욱(이화금관중), 최은경 (목동중) 총6명
- 내용: 모임 재안 취지와 배경 설명, 학교폭력 인의 회복적 접근이런?, 학 폭위 절차에 회복적 접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 등

4-4.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1) 연구원회의 (연구원구성: 김선혜(연구책임자), 김정수, 김정아, 전상희, 명희 (연구보조원))

- (1) 1차: 5/27(화) 16:30~19:00. 인터뷰 질문 정리
- (2) 2차: 6/3(화) 16:30~19:00. 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사업내용과 방향, 인터뷰 내용,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등
- (3) 3차: 6/10(화) 16:30~19:00. 중간보고서, 갈등해결 교육
- (4) 4차: 6/25(수) 14:00~16:00. 갈등해결교육프로그램 수업계획논의
- (5) 5차: 8/13(수) 15:00~17:00. 강의 준비 등
- (6) 6차: 9/17(수) 14:00~15:30. 국내 갈등해결교육현황 보고자료 검토, 향후 일정 점검 등
- (7) 7차: 9/28(일) 13:30~15:30.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탈북대학생 교육프로그램 논의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 1차 간담회

- 일시: 2014년 6월 16일(월)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선혜, 김정아, 전상희, 명희
- 발제자: 김학순(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내용: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역할

(2) 2차 간담회

- 일시: 2014년 6월 26일(목) 14:30~16:30
- 장소: 평화여성회 미래방
- 참석: 김선혜, 김정아, 전상희, 명희
- 발제자: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 내용: 북한의 언어

(3) 3차 간담회

- 일시: 2014년 9월 2일(화)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자: 김선훈, 김정아, 명희, 전상희
- 강사: 이나영
- 내용: 통일교육으로서의 갈등해결교육, 독일사례 및 적용

3) 교육수요조사 인터뷰

- 일시: 2014년 5월 28일(수), 6월 26일(목), 27일(금), 29일(토)
- 진행: 김선훈, 김정아, 전상희

4) 통일교육콘텐츠개발 연구진 워크숍

- 일시: 2014년 6월 25일 16:00~18:30
- 장소: 통일연구원 광화문 사무실
- 참석: 김선훈, 김정아, 전상희, 명희
- 내용: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절차 및 평가방안 논의

5) 교육내용

(1) 직장인 직무연수

- 일시: 2014년 7월 2일(수) ~ 8월 13일(수) 18:30~20:00 총 4회 진행
- 장소: 소회의실
- 참석: 직원 12명
- 내용: 갈등해결
- 강사: 김선훈, 김정아, 전상희

(2)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대학생 교육

- 일시: 2014년 10월 4일(토) 10:00~17:00
- 장소: 서울유스호스텔 소회의실
- 참석: 탈북대학생 15명
- 내용: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진행: 김선훈, 전상희, 명희

4-5. 평가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하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해 통일교육으로서 갈등해결 교육의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해결 절차에서 회복적 접근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 회복적 접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 진행자의 필요와 센터, 학교와의 관계 등을 진단하고, 청소년교육진행 지침을 만들어 사업계획을 일부는 실행했으나, 교육 후속모임 매뉴얼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모델 개발 등은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지는 못했다.

5. 연대사업

<2014년 사업계획>

- (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 (2) 사안별 연대 추진

5-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1)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기초법교육

- 일시: 2014년 2월 23일(일) 15:00~17:00
- 장소: 우리마포복지관
- 참석: 김선혜, 김영진, 박희진, 이덕경, 전상희
- 강사: 부천지원 임수희판사, 이순욱 변호사, 전정주 변호사, 김학우 변호사
- 내용: 갈등 조정 현장 전문가에게 도움이 될 기초 법 교육
- 주관: 회복적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2)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세일호 참사 대화모임

- 일시: 2014년 5월 6일(화)
- 장소: 삼성동 NVC센터
- 참석: 김선혜, 김영진, 김진화, 전상희

3) 회복적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회의

- (1) 1차: 4/28(월), 세월호 관련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대응
- (2) 2차: 6/27(금) 10:00~13:00, 신촌 NVC센터, 김선혜(김석봉, 이재영, 박성욱, 박성일, 이연미, 박숙영, 임종화), 세월호 관련 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 기준 논의
- (3) 3차: 9/5(금) 10:30~13:00, 신촌NVC 센터, 김선혜, (이재영, 박숙영, 박성일, 캐서린 한, 이연미), 안산 대화모임의뢰와 역할 분담, 당일종결사안 폐지에 대한 입장논의(좋은교사에서 성명태기로 함), 학교내 군인들의 교육에 대한 대응 정보 공유
- (4) 4차: 10/9(목), 김선혜(이재영, 박숙영, 박성일, 캐서린 한, 이연미), 회복적정의 실천가 대회 논의(11/29, 14:00~21:00)
- (5) 5차: 10/27(월) 10:00~12:00, 용산ZOO카페, 김선혜(김석봉, 이형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제출(평화교육의 현황 조사 및 갈등현장지원 등)

4) 회복적정의 네트워크 활동가대회

- 일시: 2014년 11월 29일(토) 14:00~21:00
- 장소: 삼형동 NVC센터
- 참석: 26명(감동해결센터, 한국NVC센터, 좋은교사, KOPI, 비폭력평화물질, 광명교육연대)
- 내용: 회복적정의 현황과 전망

5-2. 시민평화대학 준비위원회

- 1) 사전모임: 2/28(금), 3/13(목) 평화대학준비위원회 참여 제안 관련 논의, 김선혜
- 2) 1차: 4/28(월), 김선혜, 여혜숙
- 3) 2차: 5/23(금), 김선혜, 여혜숙
- 4) 3차: 6/27(금), 신촌NVC센터, 김선혜,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제안서 논의, 시민평화대학준비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5) 4차: 7/16(수), 용산, 김선혜, 여혜숙,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협의
- 6) 5차: 9/22(월), 용산, 김선혜, 평화시민대학 관련 논의
- 7) 6차: 10/27(월), 김선혜, 2015년도 사업계획

5-3. 사안별 연대

- 1) 3·8 여성대의 참석 3/8(토), 김선혜, 김정수, 김 호,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최안진경, 명희, 이주원
- 2) 세계군속행동의 날 기자회견 4/14(월), 김지호, 여 혜, 명희, 이주원, 최민정
- 3)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개소식, 5/30(금) 17:00- 18:00,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명희, 이주원
- 4) 참교육학부모회 후원추진 후원, 9/18(목)
- 5) 대서중학교 노래조정자 방문, 10/7(화) 13:00-15:00, 김선혜, 김진희, 명희, 이덕경
- 6)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남부센터 개소식, 10/18(토), 하한 발송

5-4. 평가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경제회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소속단체가 함께 세월호 참사에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을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2014 회복적정의 실천가대회를 통해서 회복적 정의의 공동 실천 현안을 공유하여 이후 활동의 방향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한 것은 연대의 기틀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갈등해결센터는 2014 회복적정의 실천가대회 주관단체로서 연대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평화시민대학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평화교육 단체의 정보공유와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단체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6. 회원활동

<2014년 사업계획>

- (1) 학습 소모임
- (2) 회원 월례 공부모임
- (3)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

6-1. 학습소모임

- 1) 평강공주모임 (구성: 김진희, 박재신, 명희, 영금옥, 유은주,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 (1) 1차: 1/14(화) 김진희, 박재신,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명희, 2014년 평강 공주 향후 방향 설정
- (2) 2차: 2/25(화) 10:00-12:00, 명희, 박재신,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학교현장에서 빈약한 평화교육 주제별, 시간별 모델 공통교안 작성(갈등해결과 의사소통교육 2차시, 4차시)
- (3) 3차: 5/1(목) 10:00-12:00, 명희, 유은주, 엄금옥, 김진희, 세월호사건 등 사회공동의 슬픔과 분노를 수업에서 다루기
- (4) 4차: 6/24(화) 10:00-12:00, 김진희, 유은주, 엄금옥, 명희, 모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
- (5) 5차: 7/29(화) 14:00-16:00, 김진희, 유은주, 채지영, 명희, 차이와 편견에 대한 수업내용 공유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연구
- (6) 6차: 7/30(화) 10:00-12:00, 김진희, 명희, 유은주, 채지영
- (7) 7차: 9/2(화) 10:00-12:00, 김장아, 김진희, 유은주, 전상희, 채지영, 분노 다루기
- (8) 8차: 10/14(화) 10:00-12:00, 김진희, 명희, 유은주, 이은영, 양파분석, 친화 놀이 등
- (9) 9차: 10/14(화) 10:00-12:00, 김진희, 명희, 유은주, 이은영, 양파분석, 친화 놀이 등
- (10) 10차: 11/25(화) 10:00-12:00, 김진희, 명희,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친화 놀이 개발, 삼각형분석 공부 등
- (11) 11차: 12/23(화) 10:30-15:00, 김진희, 명희,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갈등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영화 '저런거 달 소년' 감상

6-2. 회원월례공부모임

1) 1월 공부모임

- 일시: 2014년 1월 15일(수)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강사: 박재근
- 참석: 15명
- 내용: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논의진개와 전망

2) 3월 공부모임

(1) 프리 워크샵

- 일시: 2014년 3월 19일(수) 17:30~18: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9명
- 주제: 7대3의 마법
- 강사: 전상희

(2) 3월 공부모임

- 일시: 2014년 3월 19일(수) 19: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11명
- 주제: 성인지적 갈등해결 모색,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갈등해결
- 강사: 조명희

3) 5월 공부모임

- 일시: 2014년 5월 21일(수) 19:00~21: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18명
- 강사: 강순원
- 주제: 평화와 평화교육

4) 9월 공부모임

- 일시: 2014년 9월 15일(월) 18:30~21: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11명
- 진행: 강순원(한신대학교 교수/갈등해결센터 자문위원)
- 내용: 북아일랜드 포레조정 활동의 평화적 의미

5) 11월 공부모임

- 일시: 2014년 11월 13일(목) 19:00~21: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내용: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제자와의 대화

- 참석: 10명
- 강사: 정주진(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저자)

6-3. 회복적 정의 피해가해 대화 사례연구모임

- 1) 1차: 2/4(화) 18:00~20:3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2013년 학교단계 대화모임 사례 나눔, 논의와 질문
- 2) 2차: 4/11(금) 18:0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박인혜, 이덕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재판에서 회복적 정의 시범 실시 사업과 사례
- 3) 3차: 7/7(월) 18:0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전상희, NVC 중재 이해와 소개(여혜숙)
- 4) 4차: 9/3(수) 18:00~20:0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박수선, 박인혜, 박희진, 안향숙, 이경순, 이덕경, 이항진, 전상희, 화해권고 현황 등
- 5) 5차: 11/21(금) 18:00. 트라우마 이해(조영희),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이덕경, 명희

6-4. 독서모임

- 1) 운영위원회 독서모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읽기
 - (1) 1차: 9/1(월) 18:30~21:00. 김선혜, 김진희,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 (2) 2차: 10/6(월) 18:30~21:0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여혜숙, 유은주
 - (3) 3차: 10/27(월) 18:30~21:00. 김선혜, 김진희, 유은주, 이덕경
 - (4) 4차: 11/3(월) 18:30~21:0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여혜숙, 유은주, 이덕경
 - (5) 5차: 11/19(수) 18:00~20:30.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여혜숙, 유은주, 이주원
- 2) 강사프레이닝 11기 독서모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읽기
 - (1) 1차: 9/12(금) 18:30~21:00. 명희, 박혜연, 서은정, 이경숙, 이주우, 이주원
 - (2) 2차: 10/13(월) 19:00~21:00. 명희, 이경숙, 이주원
 - (3) 3차: 10/27(월) 19:00~21:00. 명희, 이경숙, 이주원

6-5. 기타

1) 송년파티

- 일시: 2014년 12월 30일(화) 18: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참석: 길동해결센터 운영위원 및 평화여성회 회원 등 17명
- 내용: 음식 나눠먹기, 인사나누기, 셀프칭찬, 신나 : 놀이, 선물교환

6-6. 평가

학습 소모임으로 평강공주 모임이 대달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책읽기 모임이 개설되어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회원공부모임은 계획한 대로 격월로 진행되었고, 주제선정이 적절해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센터활동에 관심을 갖는 비회원들이 참여하여 회원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은 화해권고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는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장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7. 홍보·출판 활동

<2014년 사업계획>

- (1) 홈페이지 관리 및 SNS를 이용한 일상적 사업 홍보
- (2) 회원 소식 나눔의 정례화
 - 온라인 소식지 격월 발송
- (3) 길동해결센터 리플렛 제작
- (4) 학교폭력 해결 매뉴얼

7-1. 홈페이지 관리 및 SNS를 이용한 일상적 사업홍보

- 일시: 상시
- 내용: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를 활용하여 센터활동 공지 및 홍보, 게시물 관리

7-2. 온라인 소식지 발송

- 일시: 2014년 2/27(목), 4/22(화), 6/25(수), 10/10(금), 12/18(목) 총 5차례 발송
- 내용: 센터 활동 보고 및 계획 안내

7-3. 갈등해결센터 리플렛 제작

- 일시: 2014년 6월 10일
- 내용: 2000부 인쇄

7-4. 기타

1) 포레조정 뱃지 제작

- 일시: 2014년 9월 18일
- 내용: 1000개 제작

7-5. 평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소식지 적실발송을 통해 회원 및 교육수요자와 소통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센터 리플릿을 새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센터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8. 교육부 포레조정 운영사업

1) 회의

(1) 포레조정코치 보수교육

- 일시: 2014년 1월 24일(금) 10:00-18:00
- 장소: 대전 경하온천호텔
- 참석: 김선훈, 김영진
- 대상: 2013 교육부 포레조정사업 포레조정 담당 코치
(센터 코치 -김진희, 박희진, 유은주, 이은영, 정현주 참석)
- 내용: 포레조정자 양성코치의 역량강화와 2014년 시도별 포레조정사업 활성화 전략 토의

(2) 포레조정 지원단 회의

- 일시: 2014년 7월 20일(일) 13:00~17:00
- 장소: 대전 유성호텔
- 주제: 2014년 포레조정 사업과 지원단 역할 논의
- 참석: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전상희, 유은주 총 17명 참석

2) 지도교사 직무연수

구 분		일 시	장 소	이수인원
기본	서울권역	'14. 8. 6(수)~7(목)	수유리 호텔·아카데미하우스	38
	대전권역	14. 8. 11(월)~12(화)	호텔아드리아	45
심화	서울권역	'14. 8. 25(일)~26(화)	수유리 호텔·아카데미하우스	40
	대전권역	'14. 8. 21(목)~22(금)	호텔아드리아	33
기 준		'14. 8. 19(화)	호텔아드리아	21

3) 지원단 간담회

(1) 인천지역 포레조정운영학교 지도교사 간담회

가. 1차

- 일시: 2014년 10월 7일(화) 16:00~18:00
- 장소: 인천교육청
- 참석: 김재희 장학사, 김명진, 5개 학교 포레조정담당자(덕신고 불참)
- 내용: 포레조정 수업과 운영 현황 공유 등

나. 2차

-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15:00
- 장소: 인천 방송중학교
- 참석: 김명진, 5개교 포레조정 담당자(미추홀외고 불참)
- 내용: 포레조정 운영 현황 공유 및 소감 나누기

(2) 경기지역 포레조정운영학교 지도교사 간담회

가. 1차

-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5:00-18:00
- 장소: 동수원중학교 Wee클래스
- 참석: 유은주, 포래조정 담당자 김재근(동수원중) 외 9명
- 내용: 포래조정 수업과 운영 현황 공유 등

나. 2차

-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5:00-18:00
- 장소: 동수원중학교 Wee클래스
- 참석: 유은주, 포래조정 담당자 김재근(동수원중) 외 5명
- 내용: 포래조정 운영 현황 공유 및 해결방안 논의 등

(3) 강원지역 포래조정운영학교 지도교사 간담회

- 일시: 2014년 10월 29일(수) 14:00-16:30
- 장소: 강원도 행정교육지원청 4층 회의실
- 내용: 강원도 포래조정 현황 및 향후 진행 방안 논의
- 참석: 강원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김용희, 각 학교 담당교사(강릉중, 평원중, 횡성중, 소양고, 전민고), 지원단 전상희

(4) 서울지역 포래조정운영학교 지도교사 간담회

- 일시: 2014년 11월 5일(수)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내용: 포래조정 수업과 운영 현황 공유, 포래조정 사업에 바라는 점 등
- 참석: 서울지역 포래조정운영 담당교사(도봉중, 이대부중, 인수중, 금천고, 언남고, 유한공고), 지원단 이덕경

4) 평가

- 한국사회교육연구소센터와 함께 포래조정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서 교사연구회 온라인 정보공유 활성화 부분을 담당해서 진행했다. 전국 110개 학교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은 평화교육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전국적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학교의 자발적 참여와 시스템의 안정화는 과제로 남았다.

9. 총괄 평가

갈등해결센터는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 활동과 현장 실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현장 실천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이 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이 정리화되고, 소식지발간 등 센터의 홍보 활동도 안정화되었다.

교육 활동으로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갈등해결 시...템으로서 포괄조정자 훈련, 교육부 지정 포괄조정 운영학교 지도교사 직무연수, 부산시 교육청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복적정의 피해가해 대화 조정자 훈련 등 학교 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를 위한 훈련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평화문화 조성을 위한 훈련 - 갈등해결과 평화를 위한 강사트레이닝 의 이웃 간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자 훈련, 지역사회 리더를 위한 Facilitator훈련, 행복학교를 위한 회복적정의 조정자 훈련 등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센터 활동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센터와 안산지역에서 열리는 대화모임을 주관하고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 열린토론'에는 회원들이 함께 진행자로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에 진행자와 의제분석, 테이블 진행자 등 여러 방식으로 참여해 '의견이 다른 사람도 함께 논의하고 대화가 가능한' 경험을 함께 하였다. 한편 일선학교에서 의회하는 기려-가해 대화가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지난해에 비해 더욱 늘어나 회복적정의 실천영역이 사범영역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영역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회원원칙 공부모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자율적인 학습모임인 평강공주, 책읽기 모임도 정리화 되었다. 화해연구소 사례연구모임도 경험과 학습을 서로 나눔으로써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교육정책의 변화, 대안적 갈등해결의 사회적 필요성 증대 등 외부적 요인과 신규 운영위원의 충원과 사무국의 안정화 등을 기반으로 가능하였고,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역량 강화 노력에 기반 한 바 크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화커뮤니티의 모델개발은 교육이 현장 활동과 접점을 찾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 접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의 미흡은 정책연구 역량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조직구조가 소장, 운영위원회 체계로 단일화 되어 있어 사업의 특화와 전문화를 위한 조직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4년 사업계획(안)>

- (1) 연구위원회 회의 및 공부모임
- (2) 프로그램
 - 여성청년평화리더아카데미
 - 학술포럼회
- (3) 연구
 - 여성평화리더십 교육 교재 개발
- (4) 기타
 - 여성평화 아카이브 구축
 - 다음 카페 활용: 자료 수집 및 정리

1. 조직

-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젠더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연구위원: 김정수, 조명희, 안정애, 김정아, 이문숙
- 실무담당: 최민정

2. 연구위원회 회의/세미나

1) 1차

- 일시: 2014년 1월 14일(화) 10:30~12: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2014년 사업계획 논의, 여성평화관련 자료 공부 등
- 참석: 김정수(원장), 김정아, 안정애, 조명희, 최민정(비석)

2) 2차

- 일시: 2014년 2월 18일(화) 15: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회의실
- 참석: 김정수, 안정애, 조영희, 최민정(배석)
- 내용
 - 가. "세계화 하의 군사주의와 여성안보" 논문 발제 및 논의
 - 나. 여성신문에 '여성은 평화다'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제안하기로 함. 내용은 군사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내가 만난 북한여성지도자들 이야기 등으로 논의됨.

3) 3차

- 일시: 2014년 4월 9일(수) 18:0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5.24기념 좌담회 개최 논의, 베이징+20주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사업 공유 및 역할분담, 계획 논의
- 참석: 김정수, 김정아, 안정애, 조영희, 최민정

4) 4차

- 일시: 2014년 5월 28일(수) 18:30~20:30
- 장소: 평화여성회 5층 미래방
- 내용: 5.24기념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좌담회 개최 논의, 베이징+20주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전체워크숍,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채택 대응 논의

5) 5차 회의

- 일시: 2014년 6월 27일(금) 18:00~19:00
- 장소: 시청역 근처 레스토랑
- 내용: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 보고서 내용 구성 논의, 관련 자료검토 및 의제분석, 의제별간담회 개최 논의 등
- 참석: 김정수, 김정아, 조영희, 안정애, 최민정

6) 6차 회의

- 일시: 2014년 7월 14일(월) 19:00~21:00
- 장소: 사무실 근처 토프리스카페
- 내용: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c’성과 무력분쟁’ 분야 보고서 초안 검토, 관련 자료검토 및 의제분석, 조사할 대표 분담 및 역할 분담, 간담회 개최 무산 논의 등
- 참석: 김정아, 김정수, 안정애, 최민정

7) 연구원+정책위원회 공동회의

- 일시: 2014년 7월 28일(월) 17:00~19: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분방
- 내용: ‘여성과 무력분쟁’ 레포트 초안검토
 - 가. 여성의 살과의 연계성을 고민하면서 지역질문을 검토한 후 관련 수치 추가
 - 나. 군위안부 내용은 정대협의 자문이 필요
 - 다. 내용 구성 수정
 - 라. 평화운동에서 정대협 활동의 평가 고민
 - 마. 한국 군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지하는 성폭력 문제를 과제로 포함
 - 사. 여성안보개념 구체화 필요
- 참석: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박현선, 안정애, 여혜숙, 윤경원, 조영희, 최민정

8) 연구원+정책위원회 2차 공동회의(연구원 연구사업 참조)

9) 9차

-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20: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2014년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 평가 등

3. 프로그램

3-1. 4.9 통일평화재단 공모사업 지원

- 일시: 2014년 3월 20일(목)
- 주제: 토크쇼 “여성, 통일대박론을 꼼꼼히 들여다 보다”
- 목적: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슈가 부상하면서 여성들이 대

안을 제시하고 준비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독일의 흡수통일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동독, 서독여성들의 경험을 답습할 수 있다. 이에 남북여성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성들의 평화통일본을 준비하고자 함.

- 담당: 김정수, 김지호, 최민정
- 비고: 지원단체에 선정되지 않음.

3-2.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좌담회

-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14:00-17: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제: 여성, 통일대박론을 품음이 들여다 보다
- 목적: 2014년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모든 정치사회적 의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본주의 서북체제와 제도 중심의 흡수통일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 동독의 여성들과 서독여성들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다. 한반도 주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통일대박론' 시대에 남북의 여성들은 독일여성들처럼 역사의 패배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에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남북여성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성들의 평화통일본을 준비하고자 좌담회를 기획함.

- 프로그램

가. 사회-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나. 발제

가) 되돌아보는 독일통일과 여성의 경험-한정숙(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나) '통일대박론'이 여성들에게 주는 의미-박현선(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성평등 통일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모색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다. 토론

4. 연구

4-1. 베이징+20주년 기념 post-2015 여성운동미래전망 만들기 사업

• 목적: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5년 개최된 북경 성대회 이후 20년동안 여성들의 삶이 성 평등과 여성세력화목표에 근접하고 있는지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여성운동의 미래 전망을 만들고자 북경여성행동강령 12분야를 분석, 평가하고자 함. 본 회의는 12분야 중 평화-통일-안보 분야의 현황과 과제점검을 담당함.

1) 전체워크숍

- 일시: 2014년 4월 29(화) 14:00-17:00
- 내용: 글로벌 여성운동의 성평등 전략과 과제, 베이징+20주년 평가를 위한 범위와 분석물(안) 논의, 지부 및 회원&연대 단체 회의
- 참석: 안정애, 여혜숙, 조영희, 최민정

2) 베이징 +20년, Post-2015 '여성과 무력분쟁' 간담회(2차 연구원+정책위 공동 회의)

- 일시: 2014년 8월 28일(목) 17:00-19: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롱방
- 내용: 베이징+20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만들기 사업 아래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 검토
- 프로그램:
 - 가. 사회: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나. 발제: 한반도에서의 여성안보를 생각한다
- 안정애(기지촌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 다. 토론: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
윤경원(동아시아사회문화포럼 대표)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후원: 한국여성재단
- 참석: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안정애, 여혜숙, 윤경원, 조영희, 최민정

3)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와 쟁점' 토론회

- 일시: 2014년 6월 27일 14:00-17:00
-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2층 세미나실 1
- 내용: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정치&노동&가족&사회/복지& 여성 빈곤 영역별 발전, 라운드 테이블
- 참석: 안정애, 조영희, 김정수, 최민정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4)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1차 의제종합워크숍

- 일시: 2014년 9월 18일 14:00-18:00
- 장소: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중회의실(츄빌리)
- 내용: 분야별 발표 및 질의응답
- 참석: 안정애(발제), 최민정, 유지연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5) 베이징 +20주년, Post-2015 의제종합워크숍 2차

-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14:00-18:00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하프문
- 내용: 분야별 발표, 각 분야별 코멘트 및 토론
- 참석: 최민정

6) Post-2015 '여성과 군사적 갈등' 보고서 논의

- 일시: 2014년 10월 31일(금) 18:00-20: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여성과 군사적 갈등' 보고서 내용 논의
- 참석: 김정수, 안정애

7) 베이징 +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 일시: 2014년 11월 11일(화) 09:30-18:30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 내용: 분야별 발표, 지역 발표, 종합토론
- 참석: 안정애(발제), 여혜숙, 조영희, 최민정

5. 기타

1) 여성평화 아카이브 구축

2) 다음 카페 활용: 자료 수집 및 정리

3) 여성신문 특담회

- 일시: 2014년 1월 28일(화)

- 장소: 여성신문 본사 편집국

- 제목: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 모델 되어"

- 보도: 여성신문(2월 5일, <http://www.womennews.co.kr/news/66116>)

- 내용: 전문가 4인의 평화통일 좌담회

- 참석자: 김정수(본 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김동진(평화문화원 원장), 이수정(복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지식(국경선평화학교 대표-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 소장)

6. 평가

①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상반기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여성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세이징+20주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사업" 중 여성안보와 평화 부분을 검토하여 향후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전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하반기의 여성평화운동 평가와 전망 모색 작업은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전체 여성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자리매김과 정체성 확인, 그리고 과제를 점검하는 데 기여했다. 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여성평화운동의 20년을 점검하는데 일조하였다.

② 연구위원 공부모임을 상반기에 진행하며 여성안보, 평화통일 등의 주제를 다뤘다. 그러나 하반기는 구성원들의 바쁜 일정과 Post-2015사업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하지 못해 향후 연구공부 모임을 지속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③ 연구원의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여성평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해 “여성평화아카이브 구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④ 연구원은 2014 사업계획(안)에 따라 회의 및 공부모임, 학술보론회, Post-2015 관련 연구사업, 다문화개선 등을 진행하였지만, 여성청년평화리더 아카데미, 여성평화리더심교육교재개발 등을 진행하지 못해 향후 실행 가능한 계획의 수립을 통해 연구원 사업을 진행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아울러 2015년에는 공부모임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작성, ‘여성평화운동’을 위한 이론적 지원의 방법론 수립 등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 근거: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인선위원회 구성: 조영희(위원장), 박유희, 정현택, 박수선, 이덕경, 김지호
- 임원 현황
 - 이사 임기 만료 5인: 김성은, 김선혜, 김지영, 박유희, 한정숙
 - 이사 사임 (4인): 권정욱, 이은선, 정정실, 최순옥
 - 공동(상임)대표 사임: 여혜숙
 -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임기 만료: 김선혜
- 임원 선출 (안)
 - 이사: 연임- 김성은, 김선혜, 김지영, 박유희, 한정숙 (임기:2015년~2017년)
 - 신임- 안경애 (당연직: 임기- 2015년~2017년)
 - 공동(상임)대표: 안경애 (보급: 임기- 2015년~2016년)
 -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선혜 (임기:2015년~2017년)
- 이사회 구성 (안)
 - 김성은 (이사장), 김선혜, 김경수,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안경애, 여혜숙, 이니영, 정현택, 조영희, 한정숙 (12명, 가나다순)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사업계획안

I. 2015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II. 2015년 사업계획안

I. 2015년 사업기조와 방향(안)

2015년은 한반도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 한국전쟁 발발 65주년과 정전체제 성립 62주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체제는 한반도 여성들의 삶을 괴롭히게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그 폐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분단체제의 지속으로 끊임없이 고통받아 온 한반도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힘으로 분단/정전체제를 종식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실제적인 남북한 여성의 통일 청사진을 구상 제시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최원확대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회의는 2014년만큼이나 2015년도 물적·인적 토대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평화여성회가 창립된 지 18주년이 되는 해로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본회의 현실적 운동 역량 사이에서 사업을 잘 조정하고 규모 있게 운영함으로써,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회의 기존의 사업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2015년도의 사업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기로 한다.

1) 여성들의 평화의식 형성 역량을 강화한다.

-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여성의 목소리·경험 드러내기와 이를 계기로 평화통일의식 함양을 도모한다.
-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연대활동을 모색한다.
- 유연안보리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후 모니터링 제회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을 모색한다.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과 행동 청사진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해결역량을 키워,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2) 회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사업을 개·하고 실행한다.

평화여성회는 전 해와 마찬가지로 '여성평화수다'를 비롯한 장부·분단 70년
포럼회, 집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3) 여성의 일상의 삶과 연결된 평화의지를 발굴해 나간다.

일상에서의 평화실천을 모색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II. 2015년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15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선혜, 김성수,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여혜숙, 안정애, 이나영, 정현택, 초영희, 안정숙(존칭생략, 기나다순)

1-3. 운영이사회

-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 위해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 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이사장, 공동대표, 부설기구의 장 외 약간 명

1-4. 운영위원회 (•운영이사회로 대체하다)

-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5. 사무국회의

- 1) 역할: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안정애(상임대표), 김지호(총무국장), 최민정(사업부장), 유지연(활동가)
- 3) 내용: 매주 월요일 오전 혹은 오후.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 2) 구성
 - 위원: 구성중

2-2. 국제협력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국제연대를 진행한다.
- 2) 구성
 - 위원장: 정경란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동아시아의 정세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 1-1. 광복70년, 분단 70년: 여성들의 평화통일의지 고취
- 1-2.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1-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 1-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 1-5. 핵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탈핵, 탈원전 운동

2. 남북여성협력사업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3. 대중교육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평화운동을 알리는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 3-1. 여성평화모임: 여성평화수다방
- 3-2. 청년들을 위한 여성평화 강의, 교육: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

4.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적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분위기를 원기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4-1. 군사적 폭력 문화 대응

【3】정보·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을 전달

【4】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모임을 진행한다.

1. 작은 바자회: 년 1회
2. 평화영화보기
3. 송년회

【5】재정 사업

1. 굿감판데 등
2. 후원행사: 11월 경

【6】연대 및 협력사업

1. 국내 상설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일원회의),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비리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주관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 2-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2-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3. 국제연대

- 3-1. GFPAC
- 3-2. Women Peacemaker Program

[7] 부설 갈등해결센터

1. 조직

1) 구성

- 소장: 1인
- 부소장: 2인
- 운영위원회: 소장, 부소장, 김영진, 김지호(본회 총무국장), 김진희, 명희, 양승광, 유은주, 이덕경, 전상희
- 사무국: 명희(부장), 이주원(활동가)
- 자문위원: 강순원(한신대 교수), 김차연(변호사)
- 전문위원: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이정순, 조영희

2) 회의

(1) 운영위원회

- 역할: 갈등해결센터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갈등해결센터의 주요 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구성: 소장, 부소장, 본회 사무총장 담당자, 일반 운영위원
- 운영: 연 6회 정례회의

(2) 사무국회의

- 역할: 센터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을 점검하고 공유한다.
- 구성: 소장, 부소장, 실무활동가
- 운영: 대주 1회 정례회의

2. 사업목표

- 평화적인 갈등해결 확산을 위하여 현장경험을 체계화하고, 교육·조정·실천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다.
-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힘쓴다.

3. 사업계획

3-1.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

- 1) 학교별 평화커뮤니티 사업: 평화교육, 포대조성, 가해자-피해자 대화보임용 학교별모 코디네이터가 추진(연중)
- 2) 청소년 평화감수성 교육프로그램(연1회)

3-2.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 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연1회)
- 2) 활동대우기 워크숍(연2회)
- 3) 회의진행자 훈련(연1회)
- 4) 조정자 훈련(연1회)
- 5)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연1회)
- 6)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연중)

3-3. 연구·정책

- 1) 평화교육(포대조성, 회복적 정의 활동 등)과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지원 정책화를 위한 홍보 및 연대
- 2) 평화교육 강사 워크숍(연2회)

- 3) 활동대우기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4) 회복적정의 현장 활동 책자 등 연구자료 발간
- 5) 학교 내 갈등해결 경험 토론회 개최

3-4. 연대 사업

- 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 2) 시민평화대학 준비위원회
- 3) 사안별 연대 추진

3-5. 회원활동

- 1) 학습 소모임
 - 평강공주
 - 학습 모임 운영
- 2) 회원윙크 공부모임

3-6. 홍보활동

- 1) 홈페이지 관리 및 SNS를 이용한 일상적 사업 홍보
- 2) 회원 소식 나눔의 정례화
 - 온라인 소식지 격월 발송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전미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연구위원: 김정아, 안정애, 조명희
 - 실무(담당): 유지연

2. 연구위원회 모임

3. 프로그램

3-1. 광복/해방 70년 여성평화토론회

4. 연구

4-1. 여성평화통일포럼: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힘

- 주제: 평화통일 관련 시사/시기적인 것, 군사주의/군대 관련 여성과 평화 관련 담론 등
- 방식: 월 1회 혹은 격월로 평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모임
- 참가: 여성평화통일포럼 참여회원 모집 약 20여 명
평화여성회 회원(이사, 전임 대표 포함)와 관심 있는 분들

5. 여성평화 자료 수집·정리·보관

6. 기타

6-1. <여성평화운동사> 개정판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 2005년에 발행된 <여성평화운동사> 개정 보완
- 주제 혹은 정점 별로 제정리/재구성
- 광복과 분단 70년까지 여성의 평화통일운동 포함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현황
- 2014년 성명서
- 2014년 발간자료 목록
- 회원가입서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재명 등 정제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리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회,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정제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결 또는 회원지신과 별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평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
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
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
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
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언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① 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5 갑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권원이 철회하고 권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석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책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증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영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대도, 중어,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요금, 기타 감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제입 제출예산은 매 회 인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지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재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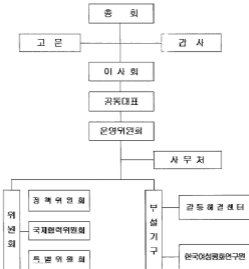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 록 】 평화불만뜨는여성의 조직 현황



[부 록] 2014년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40109	[신년 기자회견문] '여성대통령'에게 여성들이 보인다. 일로후 카드 를
140224	[기자회견문] 대화에 찬불 끼없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하라!
140227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통일 준비는 여성과 함께"
140225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하는 여성단체들의 성명서] 박근혜 정부 출 발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여성인권은 바다
140325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 성명서 > 6.4 지방선거, 지역구 여 성공천 30% 보장하라!
140329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140415	<기자회견문> 문제결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 반대한다!
140417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140508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1405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을 비롯한 홍보 킬러 '메리미리사건부표' 를 즉각 삭제하고,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연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 민국 '국가행동계획', 채택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140527	-지속가능한 평화와 성평등을 촉진하기위해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의 적극적인 이행과 좋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 [획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140625	권천 수명연장 금지 법안 요구 청원 서명 매일 보내기 5일 만에 6천통 해도, 2기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청원서]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140702	[기자회견문] 밀로만 '우리'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140703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140721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

날 짜	제 목
	이제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입는 <기일연합훈련 중단하라>
140728	<기자회견문> 안보교육, 이대로는 안됩니다!
140728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140729	<기자회견문> "멈출 수 없는 생명·평화의 투쟁으로 함께 합니다"
140826	철저한 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성들이 호소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행동할 때입니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140901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140922	[논평] 국방부, 담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141024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141121	정종원 총리의 영덕 신규 핵발전소 현안지역 방문, '민심듣기를 가장한 중앙정부의 권력행사' 끝내 중단하라.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조속히 선포하라!
141203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

경고!!

‘여성대통령’에게 여성들이 보인다. 엘로우 카드볼!!!
이렇게 할 거면 ‘여성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성대통령’,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성유권자들은 ‘여성대통령’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성차별이 없어졌다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대통령’이기에 그 역사적 벼루는 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여성대통령’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돌아 온 것은 실망 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하면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드러난 친 기업 쉐보, 철도민영화 추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공약은 폐기되거나 변질되었고 민생은 무시당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폐쇄와 불통의 정체를 경험했고,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과탄으로도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철도 파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레고나 진압 등의 강경방향을 유지하면서 심각한 소통 부재의 문제를 보여주고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종되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재통일 전 김철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된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것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정책도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가 필요한 출범 2년차 역시 불통과 독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하는 변화에 대한 국민에 기대에

반하여 불통과 독선이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7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대통령'으로 강조하여 주요 화두로 다루어진 '여성 경력단절 방지대책'과 '일·가정양립방안'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여성만의 일·가정양립방안은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가기관의 대신 지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친 재벌 위주의 경제체계를 바꾸어 경제 민주화에 힘쓰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실업 등 실질적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후회 된 복지공약은 제도 개선 및 지원을 확실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차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청소년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성별 격차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생활·육아 그 어느 것에서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위협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며, 노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2014년 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광화문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여성회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의 지역/회원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응답하라! 영혼이 있는 소리로...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공공재를 유지하는 정책 - 철도, 의료 민영화 철회하라!

일, 가정양립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무상교육 실시하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국민의 피로 지극한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공안 통치와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정책, 복지정책을 후퇴 및 폐기하여 위선과 거짓,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 광주 5월의 여성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원칙대로 부정선거에 개입된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러면 퇴진운동 생각해볼게.

[대전여성단체연합]

'물물'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손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부산여성단체연합]

2014,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라!!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대통령 시대 1년,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는 저버리고 화려한 의상들만 돋보여.

4대 사회악 최절반 외치면 민생 돌보기는 끝나는 박근혜 통령.
 올해도 달단 할 년가.
 이제 뭐 '여성' 대통령 시대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탁이라 하지마.
 내게도 정직한 일자리가 필요해!
 원칙은 지킨다는 대통령.
 공약이 약속이며 원칙입니다.
 불통과 독선, 아겔과 오만으로 가득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눈을 뜨시오
 귀를 여시오
 그리고 말을 하시오

[경남여성회]

여성일자리 확대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하라!
 성매매 피해여성 비영리화!
 핵발전소 추진 중단!
 여성 일원 확대!

[기독교연합회]

무늬만 대통령, 진짜 대통령을 보고 싶다!

[대구여성회]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여성적 가치도 실현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

[대전여성회]

실현가능한 정책을 세워라. 무늬만 아닌 주민이 국민이 소통하는 과학기술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고는
 여성에게 나쁜 일거리만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나쁜 대통령!

[수현여성회]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살기 싫다면 떠나서도 됩니다. 땅 빼-

[새솔터]

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직접 기지촌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관리한 제도였다. 이에 국가가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여 성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사회교육원]

미래의 여성대통령은 소통훈련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울산여성회]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려면 퇴진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은 여왕이 아닙니다.

[제주여민회]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의 망령의 부활을 중단하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등의 교과내용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민들을 두 번 죽이는 역사교과서를 엄중히 교정하며 제주도민 인권을 존중하라!

[평화통일하는여성회]

박근혜 대통령은 말뿐인 통일 염원이 아닌 포용력 있는 자세로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바랍니다

통일이 전라 한반도의 "대바"이 되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하라"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하여 급강산관봉을 해제하라"

"북한 여성,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여성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포항여성회]

밀양이 어른선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를,
그들의 죽음에 응답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국민은 소통을 원합니다.
타협은 소통이 아니라고요?
소통이 어려우시면 타협이라도 해주세요,
때로는 구부릴 줄 아는 것도 리더의 자질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한민국의 2013년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2012년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온데간데없고 불법선거에 대한 책임회피와 공복들이, 철도민영화로 온 국민을 인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릴말이 다 나아지길 기대한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권업, 야근까지 더해져 급여가 150만원도 채 안 돼 차별과 무시 속에서 희망 없는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쓰는 관행을 정착시켰겠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기다린 수많은 여성비정규직은 허탈감과 분노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고 불법과업으로 몰아가는 작태는 70년대 유신시대 수법 그대로였습니다.
더구나 여성들을 용인없이 노동으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국가인 한국의 성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국정원 사태를 밝혀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복들이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화 정책 폐지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들불 서비스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계속 견전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실해(제대로) 집행하라(성거라)!!!

2014년 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하라!**

한미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월 24일~4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5천 2백명이 동원되고, 전구급 아비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에는 한국군 20만명과 미군 7천5백여명이 동원되는 세 차례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이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화국면을 파탄내고 또다시 전쟁위기를 부를 수 있는 위험적인 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북의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한미당국은 '북한 변화 유도 방안' 협의를 위한 '북한 정세 평가 고위급회담'을 신설하기로 했고,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를 추진했다. '통일 대화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권은 흡수통일을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결로 치달던 남북이 7년 만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남북 사이의 불신이 여전히 심각하고 대화의 끈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만큼 양측은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북한 변화 유도'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벌이는 것은 남북 대화와 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대화 단절은 물론 침착한 대결국면을 불러올 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억제전략'이란 현대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 만약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이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한미 양국군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선제공격훈련을 3월 대상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관련 시설도 포함된다. 이 역시 국지권을 전면전으로, 4대권을 핵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의 생명과 생존을 담보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관련 무기체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을 위한 킬체인과 미사일방어 구축 등은 '본의 집단의 자위권 행사와 맞닿아 있으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대(對)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과 일본 자위대의 대(對) 선제공격전략이 한반도 위기를 핵전쟁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또한 올해 연습에는 2013년 3월에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 국지도달 대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도발 원형뿐만 아니라 지원·지휘체역까지 다뤄한다는 이 계획은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넘어서는 자위권 행사로서 전면전을 부르는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비책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벌어져 전세가 아닌 평시에 한미연합군은 투입하는 특수전 훈련이나 북한군의 시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심리전 훈련도 전개된다. 이 또한 확전을 유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훈련이다.

3월 말 포항 일대에서 벌어지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은 1만여 명의 병력과 대형수송기, 대형상륙함, 오스트리 수직 이착륙기 등 최신 장비들을 동원하여 최단시간 내에 평양을 점령하려는 훈련이다. 연합상륙훈련에 미 해병대가 5,000명이나 투입되는 것은 팀스피리트 연습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 훈련은 한미연합군이 원산일대에 상륙해 평양-원산 축선 이남을 차단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전형적인 공격훈련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국제적 충격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3. 국제법과 헌법 등에 위배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위와 같이 한미당국은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한미당국자들도 공공연히 대북 선제공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킬 체인 등 선제공격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당국은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른 것이다.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자위권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51조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 4조와 5조에 위배된다.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2개월 동안이나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에 해당한다. 또한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 국경 외에서의 인원과 장비 등 무력 증강을 금지한 평전협정 제2조 13항 ㄷ, ㄹ 목에 위배된다. 대북 선제공격의

작전계획 5027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국방목표에도 위태롭다. 이에 우리는 국제법과 헌법 등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4.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

60년 이상 끊이지 않는 전쟁위기는 분단과 정권체제에서 비롯된다. 한반도 핵문제와 원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전쟁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시키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와 주변의 당사국들에게 촉구한다.

2014. 2. 24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다함께, 민간협양심수후원회,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평등한SOFA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음악사회, 생명평화연대, 우리마당,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명화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진정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맞이, 통일외길,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AWC한국위원회, NCCK화해통일위원회(이상 39개 단체)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여성단체들의 성명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여성인권, 박다**

지난해 1월 28일, 여성단체들은 당시 대통령 인수위 앞에 ‘여성대통령’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연근과 복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1) 노동, 복지영역에서의 차별과 여성빈곤 해소, 2)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 변화, 3) 실질적 정당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사라지고,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의 성차별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해소하겠다고 여성들을 저임금과 노동인권과 사각지대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아가는 통에 성별분업이 강화되고 있다. 4대약 근절의 구호 아래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는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정책 수립 과정들이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없이 진행되기에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범 1년, ‘여성연근과 복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실종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성평등지수가 높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 원전 추가 건설, 국정 교과서 채택 논란, 전교조와 진보노조 통합법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철도연명회, 의료의 명리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인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인권,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를 위한 4대약의 한계 드러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여성인권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

력을 성별불평등 및 우리사회 차별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결사유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폭력 문제를 국정 중요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 없이 비현실적이거나 선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기본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대악 포함'상봉이다. 지난 30여년간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 해 왔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형이라는 상봉을 통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으로 회피시켜 버렸다. 한편, '4대악'에 모든 공민력이 집중되면서 실산업 확산 방지와 성태대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실효의미가 없다.

여성들의 일생활양립을 강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여성일자리 정책은 어떠한가? 고용률 70% 로드맵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시간선택제 일지의 확대가 주요 골자이다.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소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남노모두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노동조건 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여성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알바일지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우려했던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우리사회의 성별분리를 강화하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 유급 노동시장에서 쫓겨가려는 '여성만의 일생활양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 위협하는 역풍 기초연금 도입 시도

또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관련 공약들은 후퇴하거나 폐기되었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년간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편이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 약속은 어느새 전체 노인의 70%에서 차등 금액으로, 그것도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조장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율도 낮은 여성노인의 불안한 노후가 더욱 태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의료 공공성 의미, 최소한의 공약조차 변질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연관되는 '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한 개인의 부담도 높아지

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자체가 전반적인 의료 공공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알려진 바이다. 임신·출산 이외에 여성건강관련 공약은 전무했지만, 이러한 공약조차 세
이 삭감되고, 저가제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사다난한 남북관계, 관계개선을 위한 로드맵 없이 대박도 낚았

통일은 '대박'이라는 단 한마디로 국민의 뇌리에 통일을 인식시켰지만, 박근혜 정부의 '일
일대박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여성들에게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 스
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진전 2년차, 여성영권과 폭력의 문제 해결, 여성인권과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한 8급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100% 국민행복시대를 달라고 '여성'대통령을 강조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1년, 여성들은
분쟁했다. 상호 배려와 공감,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사회적
관등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진전된 정책이 추
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영권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14. 2. 25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대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성장애인연합

“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통일 준비는 여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은 여성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준비 없는 통일은 여성에게 재앙이다. 독일의 경우, 흡수통일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돈을 겪었다. 독일에서 통일되면서 여성정책이 후퇴하여 여성들은 통일의 희생자가 되었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통일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통일이후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고 여성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아주 낮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 지수로 볼 때, 한국은 세계 136개국에서 111위로 남녀 사이에 격차가 아주 크다. 대통령은 여성이지만, 경제참여의 기회, 건강과 생존,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을 토대로 평가할 때,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64%에 불과하다. 최근에 공군사관학교 대통령상 수상자의 변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대에서 성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된 사회는 남녀 성격차가 해소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추진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 신뢰형성, 교류 증진, 평화정착, 경제협력 확대의 과정으로 동북아 건강관화와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여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등 통일관련 조직과 역할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민간협력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 함께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풍부한 경험, 창조성, 지식이 통합되어야 한다. 통일의 결과가 남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해하며, 준비과정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 외교, 국방영역의 정책결정과 운영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대통령은 여성이지만 이 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성의제도 찾기 힘들다.

여성 전문가와 여성단체가 통일 준비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준비과정은 정부와 여성단체와 함께 '좋은 민간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 준비 과정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여성단체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여성·평화·안보'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 국가행동계획에 통일, 외교, 국방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여성 인권 보호, 분쟁 및 성폭력 예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여성단체의 민간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여성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991년과 1992년 남북여성들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서울과 평양에서 만났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후 한반도 내에서 남북 여성교류는 중단되었다. 남북 상호이해와 신뢰 형성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화해, 협력, 신뢰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민간교류에 대한 온전한 허용과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한반도는 성평등사회,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사회이다. 그 사회로 전환을 위해, 여성들은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 함께 할 것이며, 정부는 여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2014. 2. 27

1325 네트워크

평화분단노는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록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옹호지원 하는사람들, 쉼터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피해지원본부, 함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견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44개 단체)

6.4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공천 30% 보장하라!

우리 여성들은 정치권에 여성참여 확대방안의 실질적 이행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정치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선거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 양대 정당의 행보가 그동안 어렵게 한발 한발 진전해온 지방선거 여성참여를 일시에 후퇴시킬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주장하고 권외해 왔던 우리 여성들의 일관된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각 정당이 진정성을 갖고 파란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의회 입법과정에서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특히 생활정치 실현인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여성 참여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대선공약을 지키지않는채로 여성 및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천혁명을 부르짖던 집권 여당은 그 의지가 무색하리만치 여성 우선공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을 내세우며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어떤 원칙도 단언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대한민국 실정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민주화의 척도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 정치권의 개혁은 여성들에게는 재앙이요, 대의민주주의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 참여 30%조차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6.4 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은 공천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각 정당은 지역구 공천할당 30%를 엄격히 준수하고, 여성우선공천지역을 대폭 확대하라.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무공천을 핑계 삼아 여성공천 대폭확대를 피하려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해악을 끼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선의 가능성, 남성 후보들의 반발 때문에 여성참여 확대를 주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천혁명'과 '새정치'를 주장하지 말라.

둘째, 각 정당은 '지역구선거에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담은 '당규'에 명기하라.

공직선거법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각 정당·선출직 여성할당 30%를 확보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새정치연합 어느 쪽도 공직선거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주요 당직과 선출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규정하여 여성계의 환영을 받았으나 새롭게 구성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규정을 숨겨할 지는 미지수이며, 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관련규정을 도입한 전례도 없다.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각 정당들은 당원이 자발적으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여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노력은 그 당의 당헌·당규에 여성후보자 공천 할당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셋째, 여성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각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30%가 이행되도록 노력하라.

작금의 정치여건상 의회에 진출한 여성국회의원들은 여성할당제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여성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실천해야 할 의무감을 갖고, 여성공천할당 30%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행동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슬러 지역구 여성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시 여성 우선 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지금 무엇이 진정한 '공천혁명'이고 '새정치'인가를 묻고 있으며, '집권 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6.4지방선거에 여성 후보를 대거 공천, 후원하며 남녀 불수의 지방의회를 목표로 지역구 30% 이상 여성공천할당을 단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여성들은 이번 6.4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총 연대하여 유권자로서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명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25일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

<공 통 결 의 문>

남(북)과 북(남), 해외의 각 계층 여성단체 대표들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지친 전대여론의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최근 날로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군국주의 무합과 전쟁아육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 남, 해외 여성들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은 지난 세기 40여년간이나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야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전쟁범죄국이다.

가혹한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을 강탈하고 청장년들을 강제인행하여 노예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고 두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시습지 않았다.

특히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고 다니며 인권을 유린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인류전쟁사의 그 어느 길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세기를 넘어 일본이 재방한지도 근 70년이 되어 오지만 민족의 가슴에 서린 분노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런에도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성실히 사과, 배상하고 침략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권면무죄하고 폐곡하면서 군국주의부활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일제에 의해 해야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전세 여성들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군국주의 무합과 제질기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잔악무도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력히 벌어나갈 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범죄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강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이며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우리는 규탄대회, 토론회, 증언연단, 사진전시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일본이 우리 여성들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만인분적 성노예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며 해·내외의 각계 각층과 굳게 연대하여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일본의 진보적인 여성단체들과 인사들,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일본군성노예 피해국들과 국제기구를 그리고 세계의 인권옹호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만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2. 과거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이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강행한 과거범죄는 그 무엇으로 해도 가릴 수 없으며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 수 없다.

우리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알이 밝히고 만천하에 고발하여 정심·불필적 죄회를 비롯한 온갖 국가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끝까지 받아 낼 것이다.

일제가 약탈해 간 귀중한 역사 유물들과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투쟁도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전 민족적인 투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 음모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장악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본성이 조급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목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나라의 영토임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선언하며 목도와 그 주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불법침략과 무력강장 활동을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다.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지금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것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지배층이 집단적인 《아스구니진자》 참배와 일급 전범자들에 대한 관미, 《평화헌법》 수정 등 군국주의 열기를 고취하며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통치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그 후손들이 제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정치적 박해와 인권탄압을 반대·저지하고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특히는 제일동포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전민족의 연대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갈 것이다.

5.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우리 민족거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나가는 여기에 일본의 온갖 범죄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 10.4 공동선언문의 가치를 높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하고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기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반전쟁화해운동을 더욱 힘

있지 관계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여성들은 우리 민족의 기치 밑에 솔해에는 기어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적극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남, 북, 해외여성포럼회

2014년 3월 29일

중국 심양

문제점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9차 미군주둔비부담(당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촉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아당을 '별곡잡가'라면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3개월 무협정 상태'를 야기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5년 유효기간의 제8차 협정이 종료한지 1달이 지난 2월 2일 제9차 협정에 서명, 2월 7일야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조약 내용을 점검해야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때는 2월 21일이다. 이처럼 늦은 정부의 협상 진행으로 인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1999년 제4차 협정 이래 지속적으로 침체됐다.

이처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외교부는 만성온케녕 '한국인근로자 9개월 강제무급휴가' 운운하면서 국회를 위협하는 한편, '5조원짜리 조약'을 불과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면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마저 부정하려 들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몰지마 비준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5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성과 불투명성을 시정하지 않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미국이 불법 무당하게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하거나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미군주둔비 축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CB(커뮤니티뱅크)의 이자소득이 주한미군사 또는 미국방부에 전혀 이전된 바 없음을 공식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계 당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제까지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거짓말 해온 미국 정부의 답변을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또다시 영부세처럼 외몰이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본다. 또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일단 협정을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주둔비 축적금의 귀속처가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 (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처 역시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라는 것) 사실에 속하는 문제다. 커뮤니티뱅크와 거래한 델코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이 법인이 9 공판에도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가혹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와서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가 현미SOFA 상 초정계약자라는 사실은 ? 부의 문서(노봉부, 『현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2001. 4. 10-11쪽)와 김관진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2014. 2. 19. 68쪽)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외교부도 초정계약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

초정계약자인 커뮤니티뱅크의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지정*과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공적업무 수행기관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 자체가 미국정부의 공적 업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군주둔비 축적금을 통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와 이자수익 규모 확인, 정부의 공식 사과, 이자소득의 미군주둔비부담금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이자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라고 본다.

우리는 협정 비준동의 전에 이자소득 문제에 대해 확실의 태도를 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 귀결되거나 이에 호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협정 비준동의 전에 미국이 불법 부담하게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하거나 미군주둔비부담금징에 반영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국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예초 '제도개선'과 관련해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과 집행 투명성 확보'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은 과거 세 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일회해 온 사안이고, '09년 8차 협정시에도 논란이 되어 공청회 등을 거쳐 비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위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미방위비분담금징 위반은 물론 기지이전비를 규정한 한미연합포서관리계획(LPP)협

정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그 경위와 전용 액수를 보고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향후 3년간 협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9차 협정의 새로운 핵심 문제는 정부가 8차 협정 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전환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8차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를 통해 명시했던 '현물지원 88%' 규정이 9차 협정과 교환각서에는 완전히 빠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조항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주한미군의 미결행 분담금 적당액이 1조 3천억원에서 6천억원대로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외무장관은 "미결행 분담금 7천억원은 제7차협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09년 8차 협정 시부터는 현금이 12%고 현물이 88% 지원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결행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9차 협정에서도 88% 현물지원은 유지된다고 강변한다. 정부의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최소한 추가 협상을 통해 국회 비준동의 전에 한미당국이 서명한 '현물지원 88%'를 명시한 공식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미 간에 명시된 협정조와 미국이 무시해버리고 우리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 말을 믿으라는 것은 현물지원 88% 포기과 같은 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협정 유효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8차 협정에 이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미준기지지이전사업 완료시점을 연장하여 일부만 남은 미2사단이전비용 미국 부담분조차 모두 미군주둔비 부담금으로 송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굴욕적이다. 따라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거나, 최소한 미군기지지이전사업 완료시점인 2016년까지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5. 실질적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3년간 임금동결과 지속적 감원에 시달리는 주한미군노조의 모용안경 보장, 임금 인상, 인건비 분야 철저 검토 및 노사정 협의의 구성, 고용조건에 대한 경우 간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양국의 합의는 주한미군 노조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미 의회가 지적하는 것처럼 미군주변비부담금이 ‘공공’처 활용방향 쓰이지만 않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필요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6. 청문회와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최소한 제8차 협정에 의한 집행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작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수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 사업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수천억원을 지원한 한국의 국회와 국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근본적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3년간 총 11조 817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그 집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다. 지난 2일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훈령을 근거로 한 것이나,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의 경우 이같은 청구대상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9차 SMA 협정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간의 집행내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인가. 따라서 제9차 SMA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제8차 방위비협정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여 그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미군주변비부담 협상과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은 위해 우리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미군주둔비무당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4. 4. 15.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 참가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유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인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생명평화연대, 우리마당,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인권회, 통일외길, 평화평화센터, 평화네트웍,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계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한국의 인권, 평화, 여성, 환경, 문화예술, 종교 등 각 분야의 100여 명이 넘는 명사를 비롯하여 대학교와 노년대학은 우리 시민단체들과 국제 대표들은 2002년 12월 27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활동해 온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 역사적 가장 비극적인 아픔이자 국민의 오랜 숙원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한 마음으로 요구한다.

연자 4월 16일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국'금 협의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앞으로의 협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낱 외교적 구실로 이용하거나 일부만 해결' 급급한 안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적 조치를 존중하여 일본정부는 국가적, 법적 책임을 축소하는 어떠한 이복책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1.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국가 일본 및 그 군대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시 성노예 사건이며,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쟁범죄로 규명되어 왔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음과 같은 국제기준 및 협약들에 근거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임을 재차 확인한다.

11. 일본이 비준한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금지조약'
12. 일본이 비준한 'ILO 강제노동금지조약' 29호
13. 일본이 비준한 '헤이그조약'

2. UN과 ILO 등 수많은 국제인권기구는 결의 및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게 범죄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 역사 교육 등을 권고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시키는 바이다.

21.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문: '성노예제'를 무력 분쟁 하에서의 여성인권 침해로 규정(1993년 6월)
22.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성노예제를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로 간주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 규정(1995년)

23.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1996),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채택한 게이 대두길 전사 학 조지저 장간, 성노예제 및 유사 관행 특별보고관의 보고서(1998)

24. ILO 권고임약용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1996년부터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ILO임약 29호 위반사례로 판단하여 문제해결 권고

25.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평화·안전에 관한 결의 1325호(2000)

26.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정기검토(2008, 2012), 여성차별철폐위원회(1994, 2003, 2009),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2008, 2012),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2013), 고문철폐위원회(2007, 2013) 등 유엔인권기구의 보고서

27. 유엔인권이사회의 라디아 민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2010)와 유엔 사이드이벤트에서 표명한 과불로 드 그리프 전실-경의-대상종전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의견(2013)

3. 세계 여러 나라의 국회와 지방 의회는 결의를 채택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고, 각지의 시민사회는 민간명성, 명화액과 기림비 건립, 캠페인 등을 통해 도처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노력을 확산시켜왔다. 우리는 세계 민중들의 열의를 담은 다음의 사실들을 거듭 확인하며 그 뜻을 같이한다.

3.1. 미국(2007), 케냐(2007), 유럽연합(2007), 네덜란드(2007), 대한민국(2008), 대만(2008) 국회가 채택한 결의

3.2. 호고현 다카라즈카시를 시작으로 일본 44개 지방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결서 및 청원서(2008~2013), 호주 라이드와 스토라스필드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2009),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5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채택한 결의(2009~2014), 미국 뉴저지, 뉴욕, 일리노이(2013) 등을 비롯하여 미국 주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와 각지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3.3. 국제법률가협회(1994), 국제영네스티(2005)의 조사보고서,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2007) 및 세계적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수차례 연대결의와 공동의 요구

3.4. 1992년 1차부터 2012년에 11차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피해국가 연대국의 시민사회가 채택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의 공동결의문

4. 이와 같이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미룰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세계적, 시대적 요구임을 밝혀준다. 그러나 고통을 딛고 일어난 피해자들의 용기어린 증언과 호소, 시민사회의 지난한 투쟁 위에 만들어진 경이로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며 귀를 막아 온 일본정부는 최근 더욱 권력적이고 가

속화된 형태로 역사왜곡과 책임회피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강제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본정부와 우익집단의 도발적 언동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계속되는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전면 발굴, 공개하고 일제히 그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라.

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사실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명복할 수 없는 명확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범죄적으로 배상하라.

셋,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고통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배상과 피해자대에 교육하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시행하라.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반박하라.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중단시킬 최우선의 책임을 안은 한국정부는 장복 리 추부리는 차치하고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후 지난 20여 년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피해자들과 민간에 그 책임을 떠넘긴 과오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가 '잘 못해서'도 아닌 '하지조차 않은' 책임을 뉘우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더 이상 억본 자원이 아닌 헌법의 의무로 부여되었음을 이미 확인해주었다. 머뭇거리지도 미루지도 말고 즉각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자료의 발굴, 수집, 공개를 통해 일제의 진상을 규명하라.

둘,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길 헌법적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양자 간 협의와 그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즉각 실현하라.

셋,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분명한 원칙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서며, 중국을 포함하여 피해국 및 국제사회의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확산하라.

6. 국제기구의 조사 및 권고, 각국 정부와 의회 결의에서도 확인된 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피해국과 일본 간의 분쟁 사안으로만 치부 될 수도, 그러시도 안 된다. 전서 하 여성폭력 근절과 정의실현이라는 인류 공동의 업적을 담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모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한다.

7. 한국의 시민사회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실현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계의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적극 활동을 벌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4월 17일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보른회 참가자 및 한국 시민사회 일동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2014. 4. 5. 8

1325호 네트워크

<1325호 네트워크>는 여성들의 경험, 지혜, 재능을 모아 2013년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1월 27일 <1325호 네트워크>는 국가행동계획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가이도라인을 제안하였다.

2014년 4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안에서는 <1325호 네트워크>가 제시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325호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325호 네트워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과 관련된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건강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포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빠진 점을 심하게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상임이사국이며 평화유지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국가로서, 1325호의 핵심 규범인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규범을 한국에서 해외로 파병하는 평화유지군 뿐 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주한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여성 폭력 사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최소한 주한미군에 의한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함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협상에서 <성인권 조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3.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여야 한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정부안(2013년 12월 16일) <4. 이행 및 모니터링>에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동 국가행동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2014년 4월 21일 정부안에서는 삭제되었다. 국가행동계획에서 이행과 모니터링을 서술하는 이 부분에서 위 내용이 빠질 경우에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국가행동계획이 될 것이다. 특별히 환사를 볼 때, 정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존 정부안을 복원하고 수정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동 국가행동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 수립 3년 경과 이후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의 협의를 거쳐 동 행동계획의 목표, 세부과제, 행동계획 진반을 제정할 및 보완할 예정이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4.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나와 있는 유엔 안보리 1325호 이행 평가지표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S/2010/173)를 사무총장 보고서(S/2010/498)로 수정하여야 한다. 유엔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는 2010년 9월 발표된 사무총장 보고서(S/2010/498)에 나온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2010년 4월 발표된 사무총장 보고서(S/2010/173)에 나온 지표를 수정한 것이다. <1325호 네트워크>는 이미 ‘1325호 네트워크 의결서’에서 위 사무총장 보고서를 제시(2013.3.28)하고 수정할 것(2014.11.22)을 요구하였다.

5.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1325호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5월 2일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하였다. 동 법 “제123(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2항에 양성평등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1325호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정,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은 국민을 집단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1·31 한 달이 넘었다.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분노와 슬픔을 견디다 못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함께 애도하고 '국민이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한 달여간, 정부 및 부처 기관은 대체 무얼 하였는가? 관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덮는 일에만 급급했고, 언론 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관계자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발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에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분명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통탄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의 책임 통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라 달라'던 대통령은 5월 19일, 세월호 침몰 후 한 달이 지나고서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요구한 '희생자, 생존자 가족을 포함한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규명'과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모든 공을 국회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였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과 시민들은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게 되었다. 대통령은 법·제도 개선보다는 실종자 수색 및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가 반영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장악과 보도통제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막대한 논란으로 해임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KBS 김광현 사장이 직접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는 등 KBS에 대한 청와대의 간섭이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제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어성명서연합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이후 사건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마지막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및 관련자들의 치유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 전상조사위원회는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희생자·살상자·생존자 가족, 시민사회, 전문가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로 구성하고 이에 부합한 권원이 부여되어야 한다.
- 청와대 및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국정기조 수정 및 권력자들에게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권민적인 언론투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방상장악 및 언론통제에 대해 사과하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세월호 간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시위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어성단체연합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국민 모두가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담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다.

2014. 5. 21.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록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대상을여는전주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이·세·연,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어성민우회, 한국어성연구소, 한국어성회친화, 한국어성장애인연합, 한국어신학자협의회, 한국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을 비하' 홍보 웹문
'美리미리사전투표'를 즉각 삭 하고,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 중 웹문 '美리미리사전투표'는 '여성'이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참가 전날 시술을 받게 되면서 투표권을 상실하고, 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질수록 투표할 '美리미리'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여성'을 정치·사회 문제 보다 성형, 다이어트 등 외모에만 관심 있는 소위 '개념 없는'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어 여성비하적이다. 특히 미인대회 출전은 많은 여성이 겪게 되는 상황이 아닌에도 이러한 상황설정을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여성비하 및 혐오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웹문은 '여성'을 소위 '개념 없는' 여성, 시인의식 없는 시민으로 보이게 하여 여성비하, 혐오를 조장한다.

다른 홍보 이미지도 전반적으로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의 선거 시간보장에 대한 정보를 주는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권에서는 노동자, 고용자 모두 '남성'으로 그려진다. 또한 '기우스전자 과액수의 투표시간 보장 이야기' 권에서도 출근 때문에 선거를 못하는 '남성'에게 '남성'들이 사전투표를 권려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남성'은 노동자, 고용자이며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당설이는 것으로, '여성'은 선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 투표를 당설이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홍보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美리미리사전투표' 홍보이미지를 즉각 삭제하라.
- 여성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4년 5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재택’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과
좋은 인턴 기비너스 구축을 요구한다.—

2014.5.27

정부는 2014년 5월 23일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이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기를 촉구하고, 내실 있는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도록 내용에 대한 비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1325호 네트워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의미가 있다.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채택한 후 14년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 안보리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45번째 국가가 되었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국내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이다. 한국은 평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평화-통일-외교 영역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본질 해결,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의 인권 보호,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추구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2. 하지만 정부가 이번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제출한 다양한 제안 중에 일부만 수용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간원외체의 구성, 주한미군 존재 사실 및 그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2012년 국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후 국가행동계획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외교 영역에 대한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분석 결과와 성인지 통계 없이 국가행동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3. 향후 효과적인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행동계획을 잘 이행한다면 여성의 권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325호 국가행동계획 주무 부처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행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

최근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면서, 「3대커리큘, 보호까지, 예산 재정, 이행 평가 지고 재발,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수입 등을 포함하는 법칙이며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1325호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제안한다. 이번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민관협의체로서 이 영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 민관협의체는 개최에 실패했다. 우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정,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 조정위원회>를 정부가 수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볼 때, 영토와 주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관을 넘어 인간의 목지와 안전 문제까지 함께 안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1325호의 철저한 이행이 국가안보를 넘어 생명상과 여성의 권리 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는 평화정책 노력이 없어 1325호 이행은 어렵다. 정부가 군사력 증강과 전쟁 억지를 통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상, 사회문화교류, 경제 협력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지속가능한 평화, 좋은 인간 거버넌스, 생명 등을 위한 모델로서 작동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평화-통일-외교 영역의 주체로서 한반도 분단 해소 및 평화정착, 여성의 권리 향상 및 생명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다짐한다.

1325호 네트워크

평화통일뜨는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평안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세계상처는원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한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옹호지원 하는사람들, 성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광교육을위한한국학부모회, 원안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어성연우회, 한국어성연구소, 한국어성외권회, 한국어성장애인연합, 한국어성정치연구소, 한국어성학자협의회, 한국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평화외교모임 (45개 단체)

책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요구 청원 서명 제일 보내기
5일 만에 6천통 채도, 2기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책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다. 원전 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수명 끝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원전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첫 번째 조치이므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지난 수요일인 18일에 원전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5일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 제일 6천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 1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0여명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비급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다. 이 서명은 서명과 동시에 서명인의 이메일 계정을 발송자로 해서 서명 내용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메일로 전송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견제인 방식이다.

책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기 국회 원구성이 확정된 오늘부터 새롭게 구성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청원 서명 메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미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원전 수명연장 금지내용이 들어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지를 결정하는 상임위원회다.

오늘부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전원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 찬성과 반대, 입장 유무 여부를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 내용이 들어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 2의 참사 원전 사고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4. 6. 25

책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 원 서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경대집행,
건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걸지된 것은 사랑이었...니다.

6월 11일, 밀양송전탑 공사현장의 경정대집행 현장에서는 급격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밀양시청은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1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에 지어진 농성장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11일 새벽부터 밀양 송전탑 4개 부지 농성장 및 4개 용막 등 총 8개소에 경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용막 안이 난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위사술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종교인, 인대저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대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문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근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대화를 요청했던 주민들을 외면하고 경찰이 앞장서 경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밀양 주민들 역시 재산과 건강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인데도 보호는커녕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철거를 한 후, 경찰들이 V자를 그리며 단재기동촬영을 한 것만 알려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많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또한 진압과정에서 수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하고, 강제로 배일을 짓기는 등 건디기 힘든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경찰은 기본적인 상식과 법을 넘어섰고 힘으로 제압하면서 한 골질 부상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폭거를 수녀들에게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옥계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권력인가 의심하게 하는 경찰폭력을 대는 폭력만 수 없습니다.

이번 밀양송전탑 경정대집행에서 심각한 경찰폭력을 목격한 권국의 167개 시민, 환경단체, 종교, 정당이 청원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월 11일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위법 실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력주시길 요청합니다.

1.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경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상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 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직접 농성용막을 열고 용막의 백대를 들어내는 등 철거와 다음없는 행위를 했습니

다. 밀양시청 소속 집행관은 대집행 현장 남독단 했을 뿐, 행정대집행을 주도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곧바로 진입한 경찰은 밭도 움푹을 쪼아낸 뒤 고령의 주민들이 목에 두르고 있던 의사술을 거침없이 절단기로 잘라냈습니다. 알뜰으로 있던 할머니들을 남성경찰이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끌어내다가 주변의 함의로 위논계 여성경찰을 투입한 것처럼, 농성자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까지 25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38만1천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했고, 이들의 현지 숙박비와 식비가 총 99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하면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이례하고 수감하는 국민들이 일어나 되겠습니까.

2. 통행이 제한되고 변호인 접근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전일인 10월부터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있는 곳에서조차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양 땀물지워단 소속 변호사도 현장 접근을 금지당해 몇 시간 동안 위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집행이 시작되자마자 마을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고착 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고착당한 주민에 대한 접근·교통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변호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근·교통권 침해 행위 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09가단28294판결).

3.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몇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생활해왔으며,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과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농성장이 대부분 산 속에 위치해있고, 주민들의 연령이 높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 위태로운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경찰병력에 비해 구급차를 준비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좁은 길에 경찰버스가 대기하면서, 응급상황에서 구급차의 이동이 원활할 수 없었습니다. 위급상황에서 경찰은 오히려 이를 미տ는 피도조차 보였습니다. 호르몬만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할대의 숨이 가쁘다. 빨리 돌 것을 가져와달라" 요청에 "나도 숨 가쁘다"며 조롱하고, 헬기로 부상자 후송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바로 인근 경찰들은 단채기념사건을 찍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는커녕 미웃고 조롱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언대회에서 주민들은 "예견부대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현장에 올 때마다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소동을 요청하면 김수환 서장은 씩씩 미웃습니다. 저는 그 미웃은 얼굴이 뜯서리치게 싫습니다. 경찰과 한권은 하늘에 공사나 진압을 위해 올 때 주민들의 자두나무, 잣나무들을 많이 땅가뜨리며 올라옵니다. 그 사람에게지는 그 나무들이 아무 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희 주민에게는 그게 생명줄입니다. 국가가 있다면 그렇게

국민을 조롱하고 평평줄을 해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방해도 두르고 있는 한전에 맞서 아무 힘도
비판하게 세워왔습니다. 그 국가폭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는 의무감 같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길게는
한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태도로 인해 이미 주민들은 국
본노에 치를 뵈고 있습니다.

말년에는 국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힘겹게 태도는
이 말장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년,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경
공민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번 행정대집행이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강경진
고갈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권
남용과 허위행위가 상부의 정
치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누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주민들
은 저희 책임자인 이상한 경찰청장,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김수환 밀양시장 등에 대한 과
면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지난 10월, 경찰이 주둔한 이래 171건
의 응급 추송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입니다. 지금도 그 추유
중으로 주민 33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경찰에 위
된 사안만 89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폭력과 세금 남비에 대해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가진 포럼아시아(FOCUM-ASIA)는 최근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밀양시장, 한국전력 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게 이번 밀양행정
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
난해 10월에도 포럼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
들이 반드시 해당 개발사업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
가렛 서카기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기
관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멈추지 않고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슴 아쁩니다.

전국의 16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뜻을 모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청
원 드립니다. 밀양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행태는 현장을 기위한 밀양시장과 경남경찰청장
의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최고지휘권을 갖는 이상한 경찰청장의 명령이 없는 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6.11 밀양폭력사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로
상고, 관계자들의 청문회차 등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간곡하
게 요청 드립니다.

2014년 7월 2일

전국의 167개의 시민사회단체

**달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7월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과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외주식"하였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되는 사건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면서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다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카의 보도는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일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핵심 내용이 "한반도 유사사"와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2008년 7월 31일 작성된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 권료 회담 내용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수송 작전을 위해 한국에 자위대 소속 함정과 항공기를 보낼 계획"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에는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선박 정색 등"이 포함된다고 돼 있다. 2010년 12월 간 나오토(菅 直人) 총리가 직접 "한반도 유사시 재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 검토"를 주장한 바도 있다.

이번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헌법 해석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유사시에 괴란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각계 시민사회는 물론, 전문가, 언론, 심지어 여당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달로는 "우려"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영보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지속해 오기까지 했다.

이미 이렇듯 정부 때부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등"에 관해 한국과 일본 정부(그리고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은 물론, 관련 군사훈련을 제주 남방해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까지 했다!

7월 2일 개최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최순희 총참모장: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우려 발언도 있었다지만 이 또한 일본방기유일 뿐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것 자체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군사대국화 행보를 인하는 것일 뿐이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이야말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 증거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도도미' 질 정보를 일문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이 자국 영토 밖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것 일 증명에 의거한 집단 방위다. 따라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동결할때 주기 위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곧 유엔헌장: 위배하여 미일 집단동맹에 연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 고스란히 남북, 한중관 및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연적이다"며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국한된 기간 간 약정"(김산진, 2014. 6. 18, 국회 대정부 질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사담 회소도 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확대를 결의하였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말로만 '우려' 하며 실질적으로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 힘을 실어준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이 가져올 사태를 실질적으로 우려한다면, 당장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일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그 모든 협력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4년 7월 3일

공동주최 : 경제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원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정치연대, 농민약국, 대권평화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광명, 민간혈양심수추진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연국회의, 민주인생평화통일추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동자연구위원회), 민주주의제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

곡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할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
 대, 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마당, 우리민족언방계통일추
 진회의, 여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연속
 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연수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수화공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면민
 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일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
 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장장, 통일맞이, 통일리걸,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의동임을
 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세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의
 생사유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
 연대, 한일군사협정만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의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의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각의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은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및 군대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열린 일본 사회의 평화 약속이었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는 자위대의 대외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면, 헌법 9조에서 규정한 평화헌치만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각의 결”이라는 권위적 방식으로 헌법 9조 조항 제정 67년 만에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자-국을 사실상 “군대화” 하고 본격적인 재무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집단의 자위권 행사, 평화적 질 무력화에 반대한다!

이번 각의 결정에서는 다국 합정의 땅이나 선박의 강제진사, 기뢰 제거, 미사일, 핵 동등 집단의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의 자위권의 범주에 명백히 벗어난 것이며, 각의 결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협’의 범주도 벗어난다. 그리하여도 아베 정부가 굳이 이를 집단의 자위권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일본 땅과 구관 하지 타국에 가하는 무력행사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의 자위권 행사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속사시(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입을 우려한 한국사회의 우려도 높다.

일본 재무장 정책이 계속 강행될 경우 냉전시대에 비견가는 수준으로 역대 갈등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높아질 것임을 물론 보듯 한다.

우리는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 남침을 높이는 일본의 집단의 자위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역사정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재무장 정책을 반대한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후 국제사회가 전범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수기를 일

오리지 못하도록 한 결과이다. 아베 정부는 헌법 9조 해석변경을 시도하면서 '전후체제 탈피'를 외치고 있는데, 최근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라는 '학습지도요령' 채택, 고노담화 재해석 등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 왜곡하는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아베 정부의 '전후체제 탈피'란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합리화하면서 다시 군국주의 정책을 재확인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수십억 민중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재무장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역사정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을 기로하는 평화헌법 무력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무력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정부는 앞으로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제를 헌법 해석 변경에 조응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58%의 일본 국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주 일본 현지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총리 공관 앞에서 평화헌법 무력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일본 사회 안에서도 강한 반대여론을 불러오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갈등과 고립을 불러오는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평화헌법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웃 나라와 갈등하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권의 수명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바른해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한일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관련 왜곡에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추진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협력해 왔다. 아베 정부가 각의 결정을 추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사상 최초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은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재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도 개선해

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조, 중국 등과 대결을 심화시킬 군사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주장'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측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헌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저지하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동북아 일대의 갈등과 대결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군사적 패권경쟁으로는 대립만 격화될 뿐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최근 격화되는 군사적 갈등 앞에서, 국제 시민사회는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효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식을 모아내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제도 정비, 군사 훈련 움직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일본 정부가 재무장 정책을 버리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다.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일본 평화세력들과도 적극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 정부의 실호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동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단일 정부가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실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s)' 추진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개인연명(326명), 단체연명(229개)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입는 한미일연합훈련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정의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권력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훈련 내용에 미수에 불과, 결코 '인도의 육락'의 훈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와 한미일 3국에서 '수상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자체에 수색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한미일 3국에서 참여한다는 '수상함'은 바다위에서 기동하는 해군 함정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동안 3국 연합훈련에는 이종 이지스함이 매년 참여해 왔다. 2013년 10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일본의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레'함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던 말인가.

그동안 진행된 훈련 내용을 보더라도 '수색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일찍 2012 훈련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당시에는 해상검문검색, 동심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6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해상작전'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은 '인도의 육락'의 허술아래 '군사의 육락'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옌카부/다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할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대중국 군사 압박으로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일찍훈련이 끝난 8월 초 부터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밝혔고,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육지훈련가이드인 연습에도, 그동안 그려왔듯이 참관 명목으로 자위대 전력의 참가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위한 훈련공간을 일본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제공할 경우,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일본 집단의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리의 뜻을 밝힌 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의 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규탄하였음에도, 자위대의 군사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연합훈련에 동참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할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종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석구조’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집단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MOU 체결 등 예정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책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불안여, 국제노동자고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상실수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추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군), 불교평화연대, 사원현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마을, 우리민족연맹재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국민주주의불위한국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회춘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총연,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희일노동대학, 전대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력강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경남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안보교육, 이대로는 안됩니다

과거 군부정권의 반공교육 떠올리게 하는 안보교육,

장려한 하고 빚짓지고 있는 교육당국

안보교육 실태 조사와 평가는 물론 시행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오늘 우리는 그동안 나라사랑을 구실로 두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교육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진행한 나라사랑교육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북한 실상을 알려준다며 잔인한 장면을 시청하도록 해 다수의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삼화형태로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시키는 모습, 고문을 하는 모습 등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장사에 따르면 이 영상이 국방부 표준 교안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현행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고, 삼상무기를 조각하게 하는 등의 안보교육은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전쟁 교육일 뿐입니다. 또한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안보교육은 결코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교육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 해 동안 20만 명의 학생들에게 안보체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안보교육 활성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의 교육청이 국방부 산하 부대와 안보교육 업무계절을 맺고, 군부대의 병영체험과 안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장려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안보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현 정부의 안보교육 사업이 중립성·객관성 없이 무차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감사 신청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 안보교육 장사의 일부는 표준교안 외에 정치 편향적인 개인 보조교재를 사용하여 불의를 일으켰다는 결과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교재가 전문가 자문도 받지 않은 자료였다는 점을 짚어 정부 안보교육 교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학생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교재나 장사의 적절성은 물론 교육시행의 사후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안보교육에 대한 교육 시행지침이나 사후 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악되고 편향된 안보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부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 당국이 안보교육에 두 큰 놓고 있는 동안 문제가 된 중앙은 비단 이면에 논란이 된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에서도 많은 피해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안보교육이 과거 군부정권 당시 반공교육으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생명을 희생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과거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군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대감을 주입시키고 폭력적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전쟁 교육은 구시대적이며 그 자체로도 반 교육적입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엄과 다양성, 관용과 연대라는 민주적 가치와 권리, 평화적 상상력이며, 이를 통해 민주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 상원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20개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평영제임을 포함하여 굳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안보교육과 장려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2.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보교육과 평영제형 설대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영상물 포함한 유사 영상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교육당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의 경우, 교육과 강사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4.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면, 민주시민 교육은 물론 기존의 평화·통일교육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걸맞은 안보교육의 원칙과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민변 이근문제연구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평화포럼 어린이책시인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당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불안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재단군인회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한국건보연대 한국정확교육훈련원(KOPF)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20개 단체)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또 다시 4일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가만히 있다' 죽음을 당했던 승객의 참사를 겪은 국민들로서는 100일이 지나도 똑 긴장조사 특별법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100일 동안 단 한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대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던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발간된 '유병언 사체'는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또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의 지적사항'이란 문서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의 문을 잠가 있고 안전을 위한 출구는 없는 사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가와 정치권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단식을 결행하였습니다.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절제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벌써 15일째 걸어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안에 반대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진정성 있는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4.16참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세월호 특별 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정의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 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헌법소모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가 단체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법리 문제로 사법체제 혼선 등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일법부인 국회의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유가족들의 제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권리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삼불사고, 상수대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반복되어온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권리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특검 제안은 특검에 대한 임명권, 특검 수사권의 범위, 기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절차도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사법제치 혼란이나 권력 집중을 우려하며 아무 대안의 제시도 없이 사실상 특별법에 대한 반대와 거부 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자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유가치가 있어 공평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또한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적 합의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2.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하여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인권권리와 구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서 결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상의 위원회 구성에서 참사의 책임을 지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의 추천권을 겸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에게 반드시 1인 추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피해자 단체만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지만 피해자 단체를 특별위원회 구성 권한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피해자 단체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지금 '진실의 문을 열고 안전사회로 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극복하는 유익한 길의 하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는 그 기준에 입각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만들어져야 할 특별법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믿을 수 없는 생명·평화의 함성으로 함께 합니다”

1. '생명의 딸결음, 평화의 돌깃'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길을 떠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값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낮을 만들고자 합니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한다는 소망을 시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기적, 평화로운 추억이 오뎀한 구급비가 부서지고 시멘트 땅어리로 채워지는 풍경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제주해군기지 2631일',

강정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은 8년째 여전히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총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공격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가관표'를 던진 정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있지만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권환경공범이라고 포장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하루하루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연산호 가득했던 '강정바닷밭'은 이제 하나 둘씩 생명의 용지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육공한 무기로 비탈 것이라며 호연장담했던 '케이슨'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다가 결국 무실당어리가 되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강정의 평화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별금남부를 거부한 채 끝내 육살이를 자처해서라도 무를 끊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질이 제시하는 갈등해결과 치유방식이 그 동안 잘못 처리되어 온 것들에 대한 검토 과정이 없는 기탄적인 보상일 뿐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이 강정마을회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강정은 강정을 넘어 용산, 방자, 밀양과 연대해왔습니다.

평화를 향한 연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맞서했습니다.

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잘못!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제주해군기지의 갈-해결을 내세웠지만, 그들 내 놓는 태임이라는 것은 결국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조양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그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입지의 적정성이 부적합한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에서는 조양적 정당성이 부재했습니다.

각종 불법·탈법을 동원해 강행한 사업입니다. 국제사범이 되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부끄러운 사업일 뿐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해결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잘못 저운 단추를 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끝까지 간 사업이라 되돌리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것은 국토를 파괴해온 탐욕스런 토건사업자들의 논리와 다름 바 없습니다.

4.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8년간 잘못된 정권과 공권력에 맞서 절절하게 저항해 온 강경추진들의 눈물을,

단 1초라도 공사를 멈추려고 레미콘 차방 앞을 가로막았던 강경지킴이들의 몸짓을,

공사장 정문 앞에서 선천으로 경화를 실천해 온 참종교인들의 경화를 향한 기도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자! 저항의 역사!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를 새긴 2014 강경생명평화대행진은 민주와 진실을 알리는 행동하는 실천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의 기억을 넘어 생명의 땅, 평화의 연대가 넘쳐나는 강경을 위한 단을 이어겠습니다.

그 길 위에 생명의 발걸음, 평화의 몸짓으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강압으로는 평화를 향한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경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2014년 7월 29일

2014 강경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필거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성들이 호소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행동할 때입니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비통함과 분노, 인파카운,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294명이 사망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10명이나 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3일째, 유엔이북 김영오씨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4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동안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38일동안 도보순례를 했고, 지금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평화문, 경운동 거리에서 풍찬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이북 김영오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따라고 있으며, 동조단식에 참여한 시민은 2만 5천명을 넘어섰고, 해외 각지에서도 릴레이 단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국민들은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소망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직접 당사자인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도 안산 단원고에서 서울 국회까지 도보순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광복령’ 기다림 버스가 매우 급요일 서울-전도를 왕복하며 실종자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사회 원로, 전문가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포스터, 문화행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성들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 위해 수사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정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대표들을 만나서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론 약속해 놓고 이제는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호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과 도산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은 필수입니다. 긴 세월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 속에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회면하고 분재회 등 피해하는 것은 부끄럽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유족을 고립시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선을 밝힐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호, 국민과 유족 앞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바라는 '국익'이 바로 잘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행동의 주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관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 주십시오

2014년 8월 26일(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들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오늘 우리는 현행 안보교육에 대한 자료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나라사랑교육은 시민사회에 더 이상 군이 진행하는 안보교육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당시 현역 육군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중에 교육자료 동영상을 본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아 교실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려준다는 해당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재를 길러 낚대시키는 모습, 고문하는 장면이 삽화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했던 육군소령은 문제의 영상이 개인자료가 아니라 국방부가 제작한 표준교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8월 5일 국방부 나라사랑교육의 표준교안 영상 및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 사본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3주가 지나서야 국방부는 법적 근거나 어떠한 합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의 '대외제공이 제한된다'고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는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처리하여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차단하였습니다.

담당자였던 국방부 정신전력과 김00 행정사무관은 전화상에서 나라사랑 교육자료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설득력 없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비공개하고도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 마치 자료를 공개한 것처럼 처리한 이유를 묻지하자 (전체 중 일부만 답변한)과일을 올리지만 해도 공개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잘 몰랐다'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육군본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대외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할 뿐 어떠한 근거도 비공개 처리하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충남 육군본부까지 오면 '일말' 할 수 있다고 답하며, '일말'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자료 비공개냐고 되물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굳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나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국방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안보교육용으로 쓰이는 자료가 어떻게 국방부의 내부 자료입니까?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중학생에게는 보여주는데 일반

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폐쇄적 행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7일, 5월 2일, 6월 9일 3차례에 걸쳐 우리는 사·도 교육청과 안보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국방부 산하 부대 및 안보교육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함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 수준과 무성리한 단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난 7월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자료를 요구한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에도 자료 공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용 교육자료 공개마저 거부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군 정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매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에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시민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정부 3.0'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군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에 유독 국방부만 역행하는 이유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 기밀도 아닌 안보교육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스스로 안보교육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재 정부는 반교육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시민사회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감사원결과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안보교육 강사 선정 및 자료 지원 비효율, 교육의 중립성 확보 수단과 과제 제작 관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외부의 감시와 견제 없는 폐쇄적인 정부기관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안보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군 안보교육으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군이 권력되고 있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에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국방부는 안보교육을 병자한 전장교육, 적개심 교육을 중단하라!

2014년 9월 1일

남북평화재단, 제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보터,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파다, 평화물감드레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KC-1)

국방부, 덩달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공개가 군사적 긴장 조성한다?

김주리 협수목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

1. 지난 9월 11 국방부는 평화·인권·통일·교육 단계로 구성된 '군 안보교육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 (이하 시민사회모임)을 대표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자료에 대해 '해당 동영상 자료를 공개할 경우 북한의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 정신권력과 김정숙 정신권력과정은 지난 8월 아무런 사유 없이 '양해를 부탁한다'라고만 답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구체화해도 '국익'을 들어 또 다시 영상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2. 초등학교생용 교육 자료를 가지고 국익 운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도한 해석일 뿐 아니라,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는 정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위반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거부 사유인 초등학교생용 교육 자료가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공석한 답변엔 설소를 금지 못한다. 국방부는 엉터리 밀실 행정으로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제라도 군 안보교육 자료를 일체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게다가 지난 7월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상영되었던 나라사랑교육 영상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해당 영상은 북한 인권 실태를 보이기 위해 '장병 정신 교육용'으로 만든 것을 초등학교생용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장병교육용이라도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은 자치하더라도, 적개심을 주입하는 주먹적인 내용의 자료를 굳이 몇 다른 계지 없이 학생교육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지난 8월 28일 국방부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학생 안보교육 자료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자문조차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의 국방부의 '버티기'가 군 안보교육 과정 및 자료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만연하여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와 비방 중상 문제는 별개라며 매년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한 인권실태를 보여준다는 나라사랑교육 영상 자료

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답변은 자기모순이고 구겨진 면명일 뿐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응하다.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보비공개 인식을 일삼는 경신전력과 김경욱 서기편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 정보교육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끝.

남북평화재단 민변 이군문제연구위원회 비폭력평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인도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세향군인회
한국전보연대 한국평화교육총회 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한반도 핵전쟁화, 미국 MD 가일,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201 화려여단 경기 북부 잔류를 결정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연기,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201여단 경기 북부 잔류에 합의했다. 우리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핵전쟁 기도를 철회하라!

한미 양국이 오는 2015년 말로 연기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내세운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여내 안보 환경—은 환수 연기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작권이 왜 시급히 환수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는 이유들이다.

무엇보다도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국가라면 어떤 조건이나 능력 하에서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절대적인 국가 권한이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작전통제권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달린 사제가 없다는 것은 이를 응변해 준다. 전작권 환수를 조건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이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빠른수록 좋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또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핵선제공격(First Use)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북핵·미사일을 명제로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 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출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실천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반도 핵전쟁화 기도를 철회하고

6차회담 재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북중미 3위전략을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포괄적 미-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 유·무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 MD와 미국 MD 합어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북 작전에 알력·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북 MD 작전을 미국 MD 체계의 정보, 요격 자산을 위주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국 MD 자산을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제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필연적 사실로 되었으며, 한국 사드 배치와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 도입도 시간문제로 되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부경하고 있으나,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번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군 전작전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사 시 대북-중 탄도미사일 발사, 요격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역은 미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 미군, 일본 방어,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국 MD 자산 지휘통제에 관한 그 간에 있었을 한미 간 갈등이 미국의 이해를 위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또한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그 위상을 낮게거나 성격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나 SM-3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으며,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주일미군, 미국을 방어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넘어서는 대북 MD 작전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데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서 체결은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이를 통한 북방의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오랜 야대 지역 다자동맹체 구축 야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글로벌 카드너십의 명분하에 전 세계 다국의 군사관련 추구에 동원되게 된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과 한국군의 속박의 굴을 가능하게도 차 어렵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미 2사단 2011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합의를 제기하라!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미 2011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결정하였다. 한미연합사에 24만㎡를 새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왕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등을 합쳐 현재 용산기지지 약 17%, 47만㎡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이유로 전략권 전환 연기나 한미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한미연합사 광대 이권은 전략권 환수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변질없이 추진되어 온 사실으로 전략권 환수 연기와 무관한 사안이며, 한미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연라사무소 용으로 2.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 2011 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한 것 역시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함께 타결된 한미 간 10대 군사임무 전환의 하나였던 대 화력전 임무 전환을 뒤집는 것이다. 우리 군은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도입했다. 한미 양국은 이에 기초하여 대 화력전 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교제 달라지지도 않은 북의 장사정포 등의 위협을 내세워 이 임무를 되돌리는 것은 억지이다.

201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광대 이권 사업을 근거에서 뒤집음으로써 미국의 재경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종산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수도 한 북방에 더 이상 외국군 이 주둔하지 않도록 하려는 국민의 바람과 용산미군기지를 세계적 공원으로 바꾸려는 서울 시민의 꿈도 반도 막 나게 되었다. 또한 미 2사단 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동두천 시민들의 꿈도 좌절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미 양국이 기어코 201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고집한다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보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평화미군기지 확장 공事も 중단하고 미국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합 전을 하고 있는

미군주물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듯 이번 한미연계안보협의회회의 제반 합의는 국가안보와 국익 포기, 한반도 핵전쟁장화, 대중 적대관 강요라는 내용들로 전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연계안보협의회회의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한다. 한미 당국이 전쟁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면 즉각 6자회담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공동안보 평화협력체를 구축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10. 24

2012 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갈산미군기지주류파앗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문화연대, 민가월 양성수주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유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유통일대학생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명증한 한미SOFA개정국연대, 사일혁명회, 생명평화연대, 생태계경, 서울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마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유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보리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열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화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정홍원 총리의 영덕 신규 핵발전소 현안지역 방문,
'민심들기'를 가장한 중앙정부의 권력행사 좀수 중단하라.**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울진과 영덕을 방문한다. 이들은 울진에는 약 20분 정도 머물며 울진군청에서 열리는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8개 대안사업 합의서' 서명식만 참석하고 오후 1시부터 영덕 신규 핵발전소 지역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은 영덕군의 농민단체가 제출한 신규원전유치 재검토 주민투표 요구 청원에 대해 군 의회가 특이구성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날이다. 이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한수원 관계자가 군의원, 이장, 지역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삼척 주민투표로 확인한 원전 반대 의 흐름이 영덕의 신규원전 재검토 주민투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압박용이나 다름없다.

또한, 신한울원전 1,2,3,4호기 건설 관련 15년에 소요하고 있던 '8개 대안사업'을 수권위원의 제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명식 이후의 영덕 지역 방문은 영덕의 신규원전 재검토 주민투표를 통해 자력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파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여러 언론들은 "정홍원 총리 영덕 울진 방문 '감각 선물' 있을까", "울진-영덕에 '신물 보따리' 주냐" 등의 보도를 통해 신규원전 지역 주민들의 문제의식을 '돈'의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삼척 주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교훈을 얻는기녕 자발적인 주민 수용성 촉진을 위한 주민투표 움직임을 '보상'이라는 언론몰래이와 중앙정부의 권력으로 압박하려는 접근 태적인 사고를 고쳐먹어야 한다. 이번 행차는 향후 신규 원전 뿐 아니라 노후원전 수명연장, 폐로, 사후추적연료 처분에 걸쳐 국민들의 수용성은 제쳐두고 중앙정부의 압박과 덮어붙이기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는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위해 지역 압박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핵발전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고통을 입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경청을 위한 행보를 해야 할 때이다. 주민 의사 수렴 없는 핵발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85% 신규원전 유치 반대라는 결과를 가져온 삼척 주민투표의 명확한 메시지를 교훈삼아 국민들의 수용성에 반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백지화 해야 할 것이다.

2014. 11. 2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조 6의 선포하라!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 대상이 아니다. -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원회')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조항에 대해 표결로 제 6조 1항을 제외한 헌장에 합의한 일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규범이자 동시에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거부했다.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6차례에 걸친 토론 및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 왔고, 마지막 합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 서한 표결처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성숙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온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갑자기 부인하며, 권위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거부하였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그간의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인권헌장 제정에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으로 규정한바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또 다른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으로 얼마든지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격비리는 반인권적 행태에 정지권 무담을 이유로 극복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용인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시민위원회에서 채택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독교민회 재세상유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권대정치연구소
미세먼지정화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16개)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4년 발간자료 목록

2014년 발간자료 목록

발행일	자료명
2014-04-0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소식지 통원25호 올리브 2호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드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도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서 ☺

기본 사항	이름 (단체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이동전화	
연락처	집 주소		
	집 전화 (지역번호)	우편물 받을 곳	<input type="checkbox"/> 가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직장주소 (우편번호)		
	직 장 명	소 속	
	전자메일	직장전화	
회비 납부 (CMS자동이체)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 채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회비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일규 원/월)		
	평생/특별회원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경제대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산동해경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20 년 월 일		

후원계좌 :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5년 제19차 평화●만드는여성의 정기총회

발행일: 2015년 1월 29일

발행인: 여혜숙

발행처: 평화●만드는여성회

편집: 최민정, 유지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56-03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7 / 팩스 02-929-4843 / 이메일 wwp@peacewomen.or.kr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wmp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